家族計劃研究

～第７輯～

〈1973年 12月〉

家族計劃研究院

머 리 말

이제 「家族計劃硏究」 第7輯을 發刊하게 되었읍니다. 本 7輯에는 1973年度 3/4分期의 家族計劃事業 推進現況과 本 硏究院에서 實施된 各種 硏究 및 訓練事業의 內容과 그 結果의 一部를 中心으로 엮었읍니다.

한편 이번 特別寄稿인 硏究論文에는 우리나라 家族計劃事業을 經驗論的, 現實指向的인 面에서 다룬 "평가·연구가 사업운영에 미치는 영향(金 泰龍)"과 農民들의 家族計劃, 農業革新에 대한 KAP 및 「커뮤니케이션」 要因등을 比較檢討한 "한국농민의 가족계획수용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金 智子)" 등의 玉稿는 家族計劃 관계자 여러분의 좋은 參考가 되리라 믿읍니다.

本 誌는 家族計劃事業의 效率的인 遂行을 위해 當 硏究院에서 實施하고 있는 각종 調査硏究 및 訓練事業의 結果를 分期別로 揭載하는 한편 이 分野에 硏究從事하고 있는 著名人士의 硏究論文 등을 特別寄稿欄에 계속 收錄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 분발 家族計劃事業의 伴侶誌로서의 本 誌의 使命을 다할 것을 約束드리는 바이며 여러분의 계속적인 指導鞭撻을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1973年 12月 日

家族計劃硏究院長 **車潤根**

目　　次

머 리 말

事業經過

■ 評價·研究事業

家族計劃事業評價…… 7
病院家族計劃事業評價……16
資料處理 分析 ……26
家族計劃事業 第 4 次 5個年計劃 試案作成……40
多目的標本活用에 의한 家族計劃綜合實態調査……42
報恩地域 人口動態申告改善에 관한 硏究 ……47

■ 訓練事業

國內要員訓練……49
國際訓練……55
國際人口問題세미나……58

■ 特別寄稿

評價·硏究가 事業運營에 미치는 영향 ……金 泰 龍……61
韓國農民의 家族計劃受容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硏究 ……金 智 子……79

■ 飜譯論文

人口問題와 社會經濟開發……舘　　稔 著
孔 世 權 譯 ……107

(評)(價)(事)(業)

家族計劃事業評價

評　價　課

本 內容은 每月 全國 11個 市道 및 193個 保健所에서 報告되는 家族計劃事業 實績表에 의하여 7月, 8月, 9月의 實績을 集計 分析한 結果이다.

家族計劃事業 目標量 追加策定

保健社會部는 年初에 策定 配定된 家族計劃 事業 目標量 이외에 目標量 超過達成 可能與否를 市·道別로 타진하여 별도로 目標量을 배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루우프가 30萬名에서 38,600名이 追加된 338,600名, 不姙手術이 2萬名에서 8,300名이 追加된 28,300名으로 增加되었다.

또한 追加目標量 1件에 대한 권장비도 100원씩 증액되어, 루우프 200원, 不姙手術 4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保健所 단위로 보상제도가 新設되어 루우프는 100件當, 不姙手術은 50件當 각각 10,000원의 보상금을 支拂하도록 되었다.

〈表 1〉　改定된 勸奬費 및 目標量

	從前의 目標量	從前의 勸奬費	追 加 目標量	追加目標量 勸 奬 費	保健所當 補償制度
루 우 프	300,000	100원	38,600	200원	100건당 10,000원
不 姙 手 術	20,000	300원	8,300	400원	※ 50건당 10,000원

※ 서울, 부산, 인천시는 제외

〈表 2〉 改定된 市·道別·目標量

市道別	루우프			不姙手術		
	종전의행정적 목표량	추가목표량	개정된목표량	종전의행정적 목표량	추가목표량	개정된목표량
서울	38,000	—	38,000	3,000	4,000	※7,000
부산	17,000	5,100	22,100	1,300	700	2,000
경기	33,000	5,000	38,000	2,100	500	2,600
강원	20,000	1,600	21,600	1,300	150	1,450
충북	17,000	3,400	20,400	1,000	150	1,150
충남	28,000	5,600	33,600	1,800	360	2,160
전북	26,000	3,900	29,900	1,700	260	1,960
전남	40,000	4,000	44,000	2,600	260	2,860
경북	44,000	6,600	50,600	2,900	870	3,770
경남	34,000	3,400	37,400	2,100	1,050	3,150
제주	3,000	—	3,000	200	—	200
계	300,000	38,600	338,600	20,000	8,300	28,300

※ 협회 크리닉 실적 포함

이는 事業實績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思料된다. 再調整된 目標量 및 勸奬費와 各 市·道別 目標量은 〈表 1,2〉와 같다.

目標量에 대한 實績

7月初 追加目標量의 策定으로 루우프와 不姙手術의 目標量이 300,000名, 20,000名에서 各各 338,600名, 28,300名으로 增加되었으므로, 3/4分期 事業實績의 分析은 追加된 目標量을 이용하였다.

9月末 現在 各 避姙方法別로 目標量達成 정도를 보면 〈表 3〉에 提示된 바와 같이 루우프 受容者는 271,093名으로 개정된 目標量(338,600名)을 80.1% 達成하였으며, 市·道別로는 제주가 89.8%, 전남이 84.6%로 높은 實績率을 보인 반면, 강원은 71.7%로 가장 저조하였다.

追加目標量에 의한 今年度 3/4分期 實績은 前年度 3/4分期(72,582名) 對比

8% 增加된 78,035名이다.

3/4分期末 現在 정관수술 및 난관수술을 받은 사람은 20,078名으로 年間目標量(28,300名)을 70.9% 達成하였으며, 市·道別로는 경기도(86.3%)와 충남(84.9%)이 높은 實績率을 보인 반면 서울(55.0%)과 제주(55.0%)가 낮은 實績率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서울市의 경우에 있어서 6月末에 이미 종전의 行政的인 目標量(3,000名)을 超過達成하였으며, 또한 부산시와 경기도 역시 行政的인 目標量을 達成하였다.

〈表 3〉 目 標 量 對 實 績(1973年 1月~9月)

		루 우 프	不姙手術	콘 돔	먹는避姙藥
73	目 標	338,600	28,300	150,000	250,000
73	實 績	271,093	20,078	174,280	225,926
	%	80.1%	70.9%	116.2%	90.4%
72 3/4	實 績	72,582	5,088	176,300	219,439
73 3/4	實 績	78,035	5,253	186,327	233,594
指	數 (73/72)	108	103	106	106

〈表 4〉 루 우 프 實 績

市 道 別	目 標 量	7 月	8 月	9 月	累積(1月~9月)	%
서 울	38,000	2,749	3,276	3,321	30,754	80.9
부 산	22,100	1,780	1,747	2,069	18,082	81.8
경 기	38,000	2,470	2,803	3,597	30,966	81.5
강 원	21,600	1,413	1,745	1,884	15,479	71.7
충 북	20,400	1,298	1,641	1,129	15,421	75.6
충 남	33,600	1,997	2,238	1,901	26,420	78.6
전 북	29,900	1,697	2,695	2,504	22,647	75.7
전 남	44,000	3,162	3,693	3,910	37,211	84.6
경 북	50,600	3,966	4,050	3,411	41,141	81.3
경 남	37,400	2,624	3,288	2,875	30,277	81.0
제 주	3,000	384	502	239	2,695	89.8
계	338,600	23,540	27,678	26,840	271,093	80.1

〈表 5〉 不 姙 手 術 實 績

市 道 別	目標量	7 月	8 月	9 月	累積(1月~9月)	%
서 울	7,000	172	478	337	4,074	58.2
부 산	2,000	95	194	160	1,523	76.2
경 기	2,600	132	144	236	2,244	86.3
강 원	1,450	59	67	145	1,009	69.6
충 북	1,150	60	81	86	849	73.8
충 남	2,160	207	201	244	1,833	84.9
전 북	1,960	143	163	172	1,524	77.8
전 남	2,860	171	173	244	2,209	77.2
경 북	3,770	116	124	228	2,818	74.7
경 남	3,150	151	166	248	1,885	59.8
제 주	200	13	16	29	110	55.0
계	28,300	1,319	1,807	2,129	20,078	70.9

過去의 例에 비추어 루우프와 不姙手術의 實績은 年下半期에 떨어지는 것이 상례이나 追加目標量으로 인하여 今年度 3/4分期 實績은, 前年度 實績 指數 100에 대하여 103이다.

〈表 6〉 콘 돔 實 績

市 道 別	目標量	7 月	8 月	9 月	平均(1月~9月)	%
서 울	20,000	22,659	27,855	25,817	23,981	119.9
부 산	8,000	8,700	8,756	8,627	8,530	107.8
경 기	16,000	17,534	18,120	19,268	17,152	107.2
강 원	11,000	14,467	16,028	16,604	13,729	124.8
충 북	8,000	9,336	8,991	9,576	8,737	109.2
충 남	14,000	17,027	17,332	14,913	16,285	116.3
전 북	13,000	13,729	13,874	13,923	13,254	102.0
전 남	20,000	31,128	36,682	30,469	29,679	148.4
경 북	22,000	25,820	25,292	26,697	23,788	108.1
경 남	16,000	17,768	18,349	17,646	17,183	107.4
제 주	2,000	2,074	2,004	1,915	1,962	98.1
계	150,000	180,242	193,283	185,455	174,280	116.2

〈表 7〉 먹 는 避 姙 藥 實 績

市 道 別	目 標 量	7 月	8 月	9 月	平均(1月~9月)	%
서 울	30,000	24,831	25,002	24,375	24,981	83.3
부 산	13,000	8,733	8,785	8,863	8,365	64.3
경 기	27,000	25,642	27,568	17,400	26,139	96.8
강 원	17,000	16,612	19,319	19,802	16,856	99.2
충 북	14,000	14,220	14,505	27,201	15,062	107.6
충 남	25,000	24,599	24,409	23,084	24,416	97.7
전 북	22,000	16,067	17,033	16,751	15,012	68.2
전 남	33,000	28,855	30,922	31,909	29,585	89.7
경 북	38,000	39,335	41,426	40,955	39,184	103.1
경 남	28,000	24,793	25,785	25,341	23,952	85.5
제 주	3,000	2,179	2,203	2,267	2,374	79.1
계	250,000	225,876	236,957	237,948	225,926	90.4

콘돔을 避姙方法으로 使用한 사람은 月平均 174,280名으로 月目標量을 超過達成하였다. 市·道別로는 제주를 제외한 10個 市·道에서 目標量을 超過하였으며 특히 전남 148.4%, 강원 124.8%로 높은 보급율을 나타내고 있다.

9個月間 月平均 먹는 避姙藥 服用者는 225,926名으로 月目標量(25,000名)을 達成하였으며, 市·道別로는 충북과 경북이 目標量보다 높은 보급율을 나타내고 있다. 9個月間 實績率이 60%線에 있는 부산시와 전북의 關係者는 目標量達成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表 4, 5, 6, 7參照).

保健所別 避姙方法別 實績

1973年 7月 1日 政府의 行政單位 개편으로 인하여 全國 保健所 數에 다소 變更이 있었다.

서울特別市의 경우 성북구는 도봉구와 성북구로, 영등포구는 관악구와 영등포구의 兩個區로 세분되었으나 保健所는 新設되지 않았다.

경기도 안양읍, 성남군, 부천군이 市로 승격되므로 종전의 25個 保健所가

27個所로 增加되는 한편 경남의 동래군은 양산군에 흡수되었다.

개편된 行政單位에 의하여 全國 193個保健所 實績을 避姙方法別로 集計 分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단 各 保健所單位로 追加目標量이 배정되지 않았으므로 本 分析에서는 종전의 行政的 目標量을 이용하여 주로 目標量 超過達成 可能與否를 타진하여 보았다.

루 우 프

루우프의 경우 9月末 現在 年間目標量을 達成한 保健所는 70個 保健所이며 그中 實績率이 높은 保健所는 경기도 시흥군(168.6%), 경북 군위군(168.0%), 경기도 강화군(157.1%) 保健所이다.

이 70個 保健所는 4/4分期間 追加實績을 올릴 수 있는 可能性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9個月間 目標量을 70%未滿 達成한 18個 保健所의 關係者는 남은 期間 동안 目標量 達成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表 8〉 保健所別 루우프 實績率

市·道	保健所數	實績率 (%)							
		~59	60~69	70~79	80~89	90~99	100~109	110~119	120+
서 울	9	1	—	5	2	—	1	—	—
부 산	6	—	—	1	—	1	3	—	1
경 기	27	1	1	3	9	4	4	2	3
강 원	19	2	2	6	5	3	1	—	—
충 북	12	—	1	2	1	3	4	1	—
충 남	17	1	1	1	4	4	4	2	—
전 북	16	—	—	6	4	3	3	—	—
전 남	26	—	1	1	5	10	9	—	—
경 북	33	—	4	2	2	3	13	4	5
경 남	25	—	2	5	4	4	8	2	—
제 주	3	—	1	1	1	—	—	—	—
계	193	5	13	33	37	35	50	11	9

不 姙 手 術

保健所別 不姙手術 實績率은 〈表 9〉에 提示된 바와 같이 2/4分期에 目標量을 達成한 保健所는 33個所였으나 9月末 現在는 88個 保健所가 目標量을 超過하였다. 地域別로는 都市地域의 55個 保健所中 35個所가 이미 年間目標量을 達成한 반면 139個 郡 保健所中 53個所가 目標量을 超過하였다.

이미 종전의 行政的인 目標量을 超過한 88個 保健所, 특히 都市地域의 35個所는 目標量 以外 상당한 數의 不姙手術 受容者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表 9〉 保健所別 不姙手術 實績率

市·道	保健所數	實績率 (%)								
		~49	50~59	60~69	70~79	80~89	90~99	100~109	110~119	120+
서 울	9	—	—	—	—	—	1	—	—	8
부 산	6	—	—	—	—	1	1	1	1	2
경 기	27	1	1	—	1	1	6	11	1	5
강 원	19	2	—	2	3	3	3	3	1	2
충 북	12	—	1	2	2	2	1	2	2	—
충 남	17	—	2	2	1	2	3	3	1	3
전 북	16	—	2	—	4	4	1	4	—	1
전 남	26	—	1	2	5	9	4	5	—	—
경 북	33	—	—	3	2	4	2	12	2	8
경 남	25	—	4	2	4	3	2	7	1	2
제 주	3	1	1	—	—	1	—	—	—	—
계	193	4	12	13	22	30	24	48	9	31

콘 돔

〈表 10〉과 같이 3/4分期末 現在 콘돔의 月目標量을 達成한 保健所는 160個所이며, 특히 實績率이 높은 保健所는 경기도의 부천시(200.2%), 양평군(186.0%), 안성군(180.5%)으로 目標量의 約 2倍程度 보급율을 나타내고있다 전남의 26個 保健所는 120% 이상의 콘돔 보급율을 보이고 있다.

〈表 10〉 保健所別 콘돔 實績率(1月～9月)

市·道	保健所數	實績率(%) ～79	80～89	90～99	100～109	110～119	120～129	130～139	140+
서 울	9	1	—	—	2	1	2	—	3
부 산	6	—	—	2	2	—	1	1	—
경 기	27	7	1	2	2	2	—	3	10
강 원	19	—	—	—	2	4	6	4	3
충 북	12	—	—	1	4	5	2	—	—
충 남	17	—	—	3	3	5	3	—	3
전 북	16	—	—	2	12	2	—	—	—
전 남	26	—	—	—	—	—	3	3	20
경 북	33	—	1	3	18	4	5	2	—
경 남	25	1	—	5	10	2	2	3	2
제 주	3	1	1	1	—	—	—	—	—
계	193	10	3	19	55	25	24	16	41

〈表 11〉 保健所別 먹는 避姙藥 實績率(1月～9月)

市·道	保健所數	實績率(%) ～49	50～59	60～69	70～79	80～89	90～99	100～109	110～119	120+
서 울	9	1	1	1	3	—	1	1	1	—
부 산	6	—	1	3	1	1	—	—	—	—
경 기	27	—	—	—	1	3	9	8	3	3
강 원	19	—	—	—	1	2	2	8	5	1
충 북	12	—	—	—	—	1	7	4	—	—
충 남	17	—	—	—	—	1	9	6	1	—
전 북	16	—	6	3	1	3	1	1	1	—
전 남	26	—	—	—	6	9	8	2	1	—
경 북	33	—	—	—	3	3	2	9	4	12
경 남	25	1	1	2	4	6	7	3	—	1
제 주	3	—	—	1	1	1	—	—	—	—
계	193	2	9	10	21	30	46	42	16	17

먹는 避姙藥

保健所別 먹는 避姙藥 實績率은 〈表 11〉에 提示된 바와 같이 9月末 現在 75個 保健所가 目標量을 達成하였다.

實績率이 높은 保健所는 경기도의 옹진군 (225.0%), 경북 군위군 (161.8%) 울릉군 (159.4%)인 반면 서울 중구(33.4%), 경남 삼천포시(49.4%) 保健所는 가장 저조한 보급율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 옹진군의 경우 管內 施術醫師가 없으므로 下姙手術實績은 가장 低調하나 그 반면 먹는 避姙藥의 보급율은 상당히 높다.

市·道 家族計劃 指導班 會議

1973年度 前半期 事業結果를 評價하고 後半期 事業의 方向을 提示함과 동시에 施術事業 目標量 增大에 따른 諸問題點을 討議하여, 보다 效率的으로 家族計劃事業 遂行에 拍車를 가하기 위한 中央 및 市·道 家族計劃 指導班 會議가 8月 21日~22日 兩日間 當硏究院에서 開催되었다.

첫날은 各 市·道의 73年度 上半期 事業에 대한 現況報告에 이어, 報告에서 擡頭된 各種 問題點에 관한 討議가 있었고, 둘째날은 京畿道 楊州郡 陰縣面 어머니會 會議光景, 어머니會에서 建設中인 簡易上水道 및 橋梁을 見學하고 돌아와 綜合討議를 가졌다.

(評)(價)(事)(業)

病院家族計劃事業評價

第5研究室

本 內容은 每月 全國 45個 指定病院에서 報告되는 家族計劃月末報告書에 의하여 7月, 8月, 9月實績을 集計하여 病院別, 避姙方法 受容時期別로 分析한 結果이다.

=實績現況=

病院家族計劃事業의 7月分 實績을 方法別로 觀察하여 보면, 먼저 子宮內裝置避姙方法에 있어서는 釜山赤十字病院(226件)이 全體 子宮內裝置 受容者의 過半數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서울에 位置하고 있는 大學病院들이 높은 實績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月에 新規加入하였던 綜合病院中에서는 統營赤十字病院(25件)이 他新規加入病院보다 子宮內裝置施術 實績이 良好하였으며, 기타 新規加入病院은 10件 未滿의 不振한 實績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卵管結紮 施術實績을 보면, 7月分 總實績이 190件이었으며 대체적으로 地方에 있는 病院보다도 서울에 位置하고 있는 病院의 實績이 良好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것은 단순히 實績만을 가지고 判斷하는 것이고 좀 더 正確한 評價를 하자면 各 綜合病院이 가지고 있는 特殊性, 病院施設, 病院內에 從事하는 醫師 및 看護員의 要員數 등이 참조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病院別로 與件에 準하는 各病院別 目標量을 設定하여야 될 것으로 思料된다. 지금 段階로서는 實績만을 가지고 評價할 수 밖에 없는 실정

이다.

난관결찰 施術件數가 가장 良好하였던 病院이 中央醫大病院(33件) 이었으며 다음이 서울醫大病院(30件), 漢陽醫大病院(23件), 고려대 우석病院(20件)의 順으로서 前述한 바와 같이 서울에 位置하고 있는 病院 그 中 에서도 大學病院들이 實績을 올리고 있다.

精管切除 施術件數가 가장 많은 病院은 漢陽醫大病院으로 4件의 實績을 보였으며, 기타 精管切除 施術이 있었던 病院(11個 病院)의 實績이라는 것이 1件내지 3件 未滿으로써 그 나마도 實績이 전혀 없었던 病院이 전체 45個病院中 33個 病院이나 된다.

먹는 避姙藥의 普及狀態를 觀察하여 보면 7月分 總普及人員數가 1,773名으로서 前月보다 200餘件이 떨어지며 病院別 實績을 보면 서울醫大病院(351件)이 가장 實績이 좋았으며 다음이 國立醫療院(261件), 延世醫大病院(243件), 市立南部病院(240件) 等의 順序이다. 먹는 避姙藥 역시 서울地域에서 事業이 잘 되는 편이며, 地方일수록 低調한 樣相이다.

男性 피임방법의 하나인 콘돔實績을 보면 7月分 總件數가 418件으로써 6月實績에 比하여 300餘件이나 떨어지며 病院別로 觀察하여 보면 國立醫療院이 가장 實績이 좋아 103名에게 콘돔을 普及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서울醫大病院(99件), 延世醫大病院(34件) 等의 順이다. 콘돔 普及도 역시 서울에 位置하고 있는 病院에서 事業이 잘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5個病院의 7月중 分娩件數는 總 1,386件으로 分娩件數가 가장 많았던 病院이 152件으로서 漢陽醫大病院이며 다음이 延世醫大病院(149件), 國立醫療院(126件) 等이다. 한편 子宮內裝置를 쉽게 受容케 할 수 있는 機會가 되는 流產狀態를 보면 먼저 總實績 件數가 847件으로써 가장 流產件數가 많았던 病院이 釜山赤十字病院(511件)으로 全體 流產件數의 2/3程度를 차지하며 따라서 이 病院의 子宮內裝置 施術件數는 上述한 바와 같이 가장 많으며, 다음이 72件으로 統營赤十字病院, 34件의 道立 군산병원으로서 군산병원의 子宮內裝置 實績은 전혀없었다. 各 病院當 7月分 平均 流產件數는 24.9件이며, 分娩件數는 40.8件, 콘돔은 12.3件, 먹는 피임약은 52.2件, 精管切除는 0.6件, 난관결찰은 8.5件, 子宮內裝置는 15.2件이었다(表 1 參照).

病院別事業實績現況

〈表 1〉

1973年 7月分

病院別	子宮內裝置	卵管結紮	精管切除	먹는避姙藥	콘돔	分娩	流産
1. 국립의료원	20	16	—	261	103	126	4
2. 서울의대병원	14	30	1	351	99	87	—
3. 시립동부병원	1	13	—	7	6	26	3
4. 시립남부병원	4	7	—	240	6	20	15
5. 시립영등포병원	2	1	1	69	24	8	2
6. 연세의대병원	87	15	—	243	34	149	—
7. 고대우석병원	10	20	—	82	25	69	15
8. 이대의대병원	43	10	1	13	6	104	17
9. 서울적십자병원	4	17	2	21	9	54	5
10. 한일병원	—	9	—	4	1	59	12
11. 도립수원병원	1	5	—	11	—	16	6
12. 도립춘천병원	—	3	—	6	1	22	3
13. 도립강능병원※	—	—	—	—	—	—	—
14. 원주기독병원※	—	—	—	—	—	—	—
15. 도립청주병원※	—	—	—	—	—	—	—
16. 도립전주병원	5	5	—	2	3	22	—
17. 도립군산병원	—	8	—	—	—	21	34
18. 전남의대병원	5	2	—	9	3	41	3
19. 광주적십자병원	11	4	—	9	3	14	18
20. 도립순천병원	8	—	—	2	2	3	11
21. 경북의대병원	—	—	2	—	—	—	—
22. 동산기독병원※	—	—	—	—	—	—	—
23. 부산시립병원※	—	—	—	—	—	—	—

〈表 1〉

病院別事業實績現況(계속)

1973年 7月分

病院別	子宮內裝置	卵管結紮	精管切除	먹는 避姙藥	콘돔	分娩	流産
24. 부산적십자병원	226	3	2	196	25	5	511
25. 서울철도병원	11	5	1	9	15	37	2
26. 시립중부병원	12	21	—	76	10	58	9
27. 경희의대병원	3	7	1	18	12	72	13
28. 한미병원	2	1	1	53	1	13	8
29. 한양의대병원	7	23	4	1	—	152	5
30. 중앙의대병원	—	33	3	12	—	84	27
31. 국립경찰병원	—	2	2	10	25	18	6
32. 부산의대병원	—	7	—	—	—	12	9
33. 도립인천병원	7	6	—	6	1	29	6
34. 도립안성병원	8	2	—	3	—	2	4
※ 35. 석공장성병원	—	—	—	—	—	—	—
※ 36. 도립원주병원	—	—	—	—	—	—	—
※ 37. 도립속초병원	—	—	—	—	—	—	—
38. 충남의대병원	7	7	—	17	—	23	—
39. 도립천안병원	—	—	—	—	—	3	1
※ 40. 씨그레이브병원	—	—	—	—	—	—	—
※ 41. 도립남원병원	—	—	—	15	1	13	17
※ 42. 조대부속병원	—	—	—	—	—	—	—
※ 43. 목포적십자병원	5	8	—	7	3	10	9
※ 44. 도립김천병원	—	—	—	—	—	—	—
45. 통영적십자병원	25	—	—	20	—	14	72
計	528	290	21	1,773	418	1,386	847

※ 7月分 實績이 未報告된 病院

=P. C 報告書에 의한 實績評價=

45個 家族計劃事業 指定病院의 8月分 實績을 美國人口協會에서 使用하는 産後 가족계획사업 月末報告書 樣式 B에 依據하여 分析하여 보면 먼저 子宮內裝置 避姙法에 있어서 入院中에 同 避姙法을 받아들인 直接受容者가 222名으로서 病院當 平均 5.6件씩의 施術을 하였으며 退院後(3個月以內) 다시 該當病院을 찾아와서 施術을 받아들인 直接受容者가 54名으로서 病院當 平均 1.4件씩의 루우프 施術을 하였다. 또한 近來(3個月以後)에 該當病院에서 分娩이나 流産을 하였거나 避姙經驗이 없었던 婦人이 該當病院에 찾아와서 루우프 施術을 받은 「以外의 境遇」의 受容者가 總 287名으로서 病院當 平均 7.2件의 施術을 하였다. 全體的인 루우프 施術者의 數는 563名으로서 病院當 平均 14.1件씩의 루우프 施術을 하였다. 먹는 避姙藥의 受容狀態를 보면 入院中에 받아들인 直接受容普及數가 33싸이클로 病院當 平均 0.8싸이클씩을 配付 하였으며, 該當病院에서 退院後에 다시 再訪問하여 먹는 避姙藥을 配付 받아간 싸이클數가 188싸이클로서 病院當 平均 4.7싸이클을 配付하였고 「以外의 境遇」에 病院에서 配付 받아간 數가 1,983싸이클로서 病院當 平均 49.6싸이클을 家族計劃對象者에게 配付하였다. 이달에 配付한 먹는 避姙藥의 總싸이클數는 2,204싸이클로써 病院當 平均 55.1싸이클을 配付하였다.

卵管結紮手術을 受容時期別로 手術實績을 觀察하여 보면 入院中 또는 分娩後나 流産後(直接受容)에 卵管結紮手術을 받았던 境遇가 322件, 病院當 平均 8.1件으로서 其他 時期(退院後 혹은 以外의 境遇)에 받아들인 例보다 훨씬 그 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病院家族計劃事業의 취지에 입각한 좋은 現象이라고 思料된다. 退院後에 該當病院에 찾아와서 卵管結紮手術을 받기 願하였던 婦人은 전혀 없었으며 다만 「以外의 境遇」에 該當病院에 찾아와서 卵管結紮手術 받기를 願하였던 境遇가 85件으로서 病院當 平均 2.1件씩 이었으며 全體的인 手術患者數는 407名으로서 病院當 平均 10.2件씩의 卵管結紮手術을 하였다. 지금까지 言及한 3가지 避姙方法을 受容時期別로 總實績 件數를

P.C
Form B

Hospital(병원수) | 4 | 5 |

0	8
월	

7	3
년	

분만수 Obstetrie cases delivered	1 6 8 5
유산수 Abortion cases	0 9 2 6
분만 및 유산 총계 Total Ob and Ab	2 6 1 1
산후 재방문 자수 (Ob and Ab cases returning for reguiar health check-up)	1 2 8 8

	분만(유산)후 실시자수								분만 (유산) 이외의 경우				계
	입원중				퇴원후								
루 우 프	0	2	2	2	0	0	5	4	0	2	8	7	563
먹는피임약	0	0	3	3	0	1	8	8	1	9	8	3	2,204
난관 결찰	0	3	2	2	0	0	0	0	0	0	8	5	407
주 사	0	0	0	0	0	0	0	0	0	0	0	2	2
기 타	0	0	0	0	0	0	0	0	0	0	0	8	8
계	0	5	7	7	0	2	4	2	2	3	6	5	3,184

가족계획을 위한 재방문자 수	3 9 6 1
루우프 재삽입 수	0 0 8 1
정관절제술	0 0 2 8

觀察하여 보면 入院中에 避姙方法을 受容한 境遇에 있어서는 577件으로서 病院當 平均 14.4件씩이며 該當病院에서 退院後 3個月 以內에 다시 찾아와서 避姙方法을 받아드린 境遇가 242件으로서 病院當 平均 實績은 6.1件이다. 한편 「以外의 境遇」에 該當病院에 찾아와서 避姙方法을 受容한 例가 入院中이나 退院後의 件數보다 2/3 程度나 많으며 前述한 3가지 避姙方法의 全體受容件數는 3,184件으로서 病院當 平均 實績은 79.4件이다.

45個 指定病院의 8月에 있었던 分娩 및 流產現況을 보면 總分娩數는 1,685件이며 流產數는 926件으로 分娩 및 流產의 總件數는 2,611件으로서 病院當平均 分娩數는 42.1件이고 平均 流產數는 23.2件으로서 前月에 比하여 分娩은 300餘件, 流產은 80餘件 程度가 增加하여 前月에 比하여 루우프, 먹는 避姙藥, 卵管結紮의 受容者數가 580餘件 程度가 늘어 났다. 특히 刮目할만한 것은 入院中에 避姙法을 受容한 數가 7月에 比하여 131件이 늘어난 좋은 現象을 보여 주었다.

產後再訪問者는 1,288名으로써 病院當 平均 32.2名이 產後再訪問하였으며 家族計劃을 위하여 再訪問한 境遇는 3,961名으로서 平均 99.0名이 各指定病院을 訪問하였고 루우프 再挿入者數는 81名으로 病院當 平均 2.0名이었으며 精管切除를 받았던 患者가 28名으로써 平均 0.7件이었다(P.C. 樣式 B 參照).

═病院別 避姙方法 受容時期═

9月分 避姙方法(루우프, 먹는避姙藥, 卵管結紮)을 受容時期別로 各 指定病院의 實績現況을 觀察하여 보면 루우프의 境遇에 있어서 總施術件數가 379件으로서 이 中에서 「入院中」에 實施한 受容件數가 169件으로 平均 4.8件이며 「退院後」 3個月만에 다시 該當病院에 찾아와서 受容한 件數가 45件으로서 平均 1.3件이었다. 該當病院에서 分娩이나 流產을 하지 않았던 婦人이 該當病院에 찾아와서 루우프를 受容한 「以外의 경우」가 165건으로서 평균 4.7건이었다. 이를 다시 병원별로 보면 「入院中」인 경우 43個 병원은 實績이 전혀 없었고, 부산적

십자병원 만이 167건의 實績을 올렸다. 「退院後」에 있어서는 「入院中」이나 마찬가지로 거의 受容한 例가 없었으며 통영적십자병원 만이 17件이라는 좋은 실적을 보였다. 「以外의 境遇」에 受容한 부인數가 많아 서울의대병원이 최고 44건의 실적을 보였으며 차위가 고대부속우석병원으로서 21건 이였다. 먹는避姙藥의 配付量은 1,131싸이클 이었으며 이 中에서 「入院中」에受容한 境遇가 12건, 「退院後」에 受容한 부인이 한명도 없었으며 「以外의 境遇」(1,119싸이클)에 대부분 配付를 받아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時期別로 評價하여 보면 대부분의 對象婦人이 「入院中」에는 먹는 피임약을 使用하지 않았으며 「退院後」에는 配付를 받아간 부인이 전혀 없었고 「以外의 경우」에 배부를 받아간 例가 가장 많아 시립남부병원(280싸이클), 釜山赤十字病院(180싸이클), 서울의대병원(169싸이클)등의 順序로 되어 있으며 病院當 平均 配付量은 32.0싸이클 이었다. 난관결찰의 實績은 총 235件으로서 「入院中」에 手術을 수락한 부인수가 123名, 「退院後」에 다시 찾아와서 手術을 願하였던 부인수가 1명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現象은 해당 병원에서 分娩이나 流產을 한後 대부분의 부인들이 退院後 心理的 動機(家族計劃에 대한)가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하여서 다시 該當病院에 찾아와 수술을 願할 수 없으리라는 點, 수술하는데 있어서의 의술의 의심 및 수술 費用에 대한 경제적인 이유 등에 기인된 것이라고 看做된다. 「以外의 경우」에 수술을 願하였던 경우가 111件으로서 서울의대병원이 16件으로서 가장 良好한 實績을 올렸으며 다음으로는 서울적십자병원(15件)이다. 「入院中의」 病院當 평균실적은 3.5件이며 「以外의 境遇」 있어서의 病院當 平均 32件이었다. 男性永久避姙法인 정관절제는 45個 指定病院中에서 10個병원만이 실적이 있었고 나머지 병원은 實績이 없었으며 실적이 있었던 10個병원中에서 가장 施術件數가 많았던 病院이 부산적십자병원으로서 11件의 정관절제 施術을 하였다. 병원당 평균 정관절제 건수는 0.8件으로써 여러가지 避姙方法中 가장 低調한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病院事業 테두리 안에서 精管切除手術 對象者를 포섭하기 위한 세밀한 計劃도 만들어져야할 것으로 思料되는 바이다. 콘돔에 대한 配付狀況을 보면 總配付量이 291打이며 各 病院當 평균 8.3打의 콘돔을 배부하였다. 콘돔을 가장 많이 配付하였던 病院이 서울

醫大病院으로서 85打를 配付하으며 대부분의 경우 서울에 位置하고 있는 병원에서 많이 配付하고 있는 傾向이었다.

9月中에 있었던 45個 病院의 總分娩 件數는 954件으로 病院當 평균 17.3件이며 流產數는 703件으로서 病院當 平均 10.1件, 分娩이나 流產을 하고 退院한 後婦人 자신의 健康診斷을 받기 위하여 來院한 訪問婦人數가 총 814名으로 平均 13.5名이었다.

또한 병원에 찾아와서 家族計劃에 대한 상담, 즉 避姙方法의 再普及이나 變更 및 避姙法 使用後의 健康相談이나 副作用等을 相議하기 위하여 來院한 相談者數가 1,781名으로서 병원당 평균 79.5名이 來院하였으며, 루우프 再揷入者數는 33名으로서 대부분 병원이 再揷入을 위하여 찾아온 婦人이 거의 없다(表 2 參照).

〈表 2〉 病院別 避姙方法別 受容時期

1973年 9月

病院別	루우프 입원중	루우프 퇴원후	루우프 이외의 경우	먹는피임약 입원중	먹는피임약 이외의 경우	난관결찰 입원중	난관결찰 퇴원후	난관결찰 이외의 경우	정관절제	콘돔	기타	분만후	유산후	산후재방문	가족계획재	방문자수	루우프재삽	입자수
1. 국립의료원	—	—	—	—	—	—	—	—	—	—	—	—	—	—	—	—	—	—
2. 서울의대병원	—	—	44	—	169	7	—	16	6	85	—	83	—	29	167	—		
3. 시립동부병원	—	—	1	—	10	10	—	1	—	5	—	16	6	35	15	1		
4. 시립남부병원	—	—	6	—	280	—	—	8	1	10	—	12	14	20	47	—		
5. 시립영등포병원	—	—	6	—	114	4	—	2	—	21	—	17	5	17	20	2		
6. 연세의대병원	—	—	—	—	—	—	—	—	—	—	—	—	—	—	—	—		
7. 고대우석병원	—	—	21	—	98	6	—	11	29	—	—	60	5	32	29	—		
8. 이대의대병원	—	2	5	—	12	7	—	1	1	4	—	103	6	35	9	1		
9. 서울적십자병원	—	—	5	—	10	5	—	15	4	5	—	37	5	12	27	—		
10. 한일병원	—	—	—	—	4	6	—	—	—	—	—	49	11	98	52	—		
11. 도립수원병원	—	—	—	—	15	—	—	11	—	3	—	13	5	5	7	—		
12. 도립춘천병원	—	—	—	—	4	3	—	—	—	4	—	29	1	12	8	—		
13. 도립강능병원	—	—	—	—	—	—	—	—	—	—	—	—	—	—	—	—		
14. 원주기독병원	—	—	—	—	—	—	—	—	—	—	—	—	—	—	—	—		
15. 도립청주병원	—	—	—	—	8	—	—	6	—	2	—	6	14	11	26	—		

〈表 2〉 病院別 避姙方法別 受容時期(계속)

病院別	루우프 입원중	루우프 퇴원후	루우프 이외의 경우	먹는피임약 입원중	먹는피임약 이외의 경우	난관결찰 입원중	난관결찰 퇴원후	난관결찰 이외의 경우	정관절제	콘돔	기타	분만후	유산후	산후재방문	가족계획재	방문자수	루우프재삽	입자수
16. 도립전주병원	—	—	1	—	3	5	—	—	—	—	—	20	—	10	11	—		
17. 도립군산병원	—	—	3	—	—	4	—	1	1	—	—	13	21	8	5	—		
18. 전남의대병원	—	—	3	—	8	3	—	—	—	2	—	41	4	7	10	—		
19. 광주적십자	—	—	7	—	1	1	—	1	—	—	—	15	19	20	24	1		
20. 도립순천병원	—	3	8	—	—	2	—	—	—	—	—	5	9	27	18	1		
21. 경북의대병원	—	—	—	—	—	—	—	—	—	—	—	—	—	—	—	—		
22. 동산기독병원	—	—	4	—	30	3	—	2	1	19	—	62	—	—	—	—		
23. 부산시립병원	—	—	—	—	3	—	—	—	—	11	—	21	7	10	6	—		
24. 부산적십자	167	—	14	12	180	—	—	2	—	16	—	5	354	180	200	—		
25. 서울철도병원	—	—	1	—	16	—	—	—	1	27	—	19	—	12	25	6		
26. 시립중부병원	—	—	—	4	21	2	—	5	—	8	—	30	8	20	35	—		
27. 경희의대병원	—	—	1	—	7	6	—	7	1	3	—	76	9	131	409	—		
28. 한미병원	—	—	2	—	17	—	—	1	—	7	—	11	6	10	30	—		
29. 한양의대병원	—	—	—	—	—	—	—	—	—	—	—	—	—	—	—	—		
30. 중대부속병원	—	—	—	—	10	17	—	—	—	—	—	77	21	47	40	—		
31. 국립경찰병원	—	—	1	—	15	2	—	—	—	30	—	20	6	20	120	—		
32. 부산의대병원	—	—	—	—	—	—	—	—	—	—	—	—	—	—	—	—		
33. 도립인천병원	1	7	2	—	6	7	—	—	—	3	—	20	11	8	10	—		
34. 도립안성병원	—	5	—	—	—	—	—	—	—	—	—	2	2	—	100	—		
35. 석공장성병원	—	—	6	—	9	—	—	—	—	4	—	—	64	12	9	—		
36. 도립원주병원	—	—	—	—	—	—	—	—	—	—	—	—	—	—	—	—		
37. 도립속초병원	—	—	—	—	—	—	—	—	—	—	—	—	—	—	—	—		
38. 중대부속병원	—	—	9	—	40	8	—	—	—	—	—	12	—	59	215	—		
39. 도립천안병원	—	—	—	—	—	—	—	—	—	—	2	11	2	—	—	20		
40. 씨그레이브병원	—	—	—	—	—	—	—	—	—	—	—	—	—	—	—	—		
41. 도립남원병원	—	—	1	—	3	—	—	3	1	—	—	3	2	2	—	—		
42. 조대부속병원	1	—	—	—	—	13	1	8	—	—	—	50	7	6	21	—		
43. 목포적십자	—	—	1	—	6	—	—	5	—	4	—	2	13	6	68	1		
44. 도립김천병원	—	1	—	—	—	—	—	5	—	—	—	5	18	9	3	—		
45. 통영적십자	—	27	9	—	20	2	—	—	—	—	—	9	51	32	15	—		
계	169	45	165	12	1,119	123	1	111	28	291	2	954	706	824	2,781	33		

(評) (價) (事) (業)

資料處理 分析

資 料 課

本 內容은 全國 각 保健所에서 報告되는 家族計劃施術 現況報告書(쿠폰)를 1973年 1月부터 6月까지 수집된 資料를 루우프인 경우 30 : 1 精管切除는 3 : 1로 標本抽出하고, 卵管結紮施術 쿠폰은 全數處理하여 그 分析結果를 要約한 것이다.

子宮內裝置 受容者의 特性

A. 年齡分布

루우프를 처음 挿入한 婦人이나 再挿入을 한 婦人을 막론하고 전체 루우프를 受容한 婦人의 年齡分布를 보면 30~34歲群이 33%로 제일 높고, 35~39歲群이 29%로 30代에 集中하고 있다.

地域的인 分布를 보면 都市의 경우 30~34歲群이 35%, 25~29歲群이 30%였으며, 農村婦人은 30~34歲群과 35~39歲群이 각각 32%였다.

그러나 최근 受容婦人들에서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은 30歲未滿의 젊은年齡層으로 都市婦人이 36%, 農村婦人이 20%로 점차 挿入率이 增加하는 樣相을 보이고 있다.

한편 루우프를 初挿入한 婦人과 再挿入한 婦人들의 年齡을 比較해 보면 30代가 60%(초삽입자)와 65%(재삽입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거의 흙

사한 樣相이라 하겠으나 30歲未滿의 젊은層에서 초삽입한 婦人은 30%인데 比해 루우프를 재삽입한 婦人은 12%로 極少數에 不過했으며 平均年齡은 初挿入婦人이 32.6歲, 再挿入 婦人이 35.5歲로 約 3年이 더 높은 婦人들이 재삽입하고 있는 결과였다(表 1, 2, 3 참조).

Age Group of IUD All Acceptrors

Table. 1 (Jan.-Jun. 1973)

	Number			Percent		
	Total	Urban	Rural	Total	Urban	Rural
Total	5,625	1,859	3,766	100	100	100
-24	247	107	140	4	6	4
25-29	1,170	559	611	21	30	16
30-34	1,832	644	1,188	33	35	32
35-39	1,620	402	1,218	29	22	32
40+	139	140	599	13	7	16
Undear	17	7	10	—	—	—
Mean	33.3	31.8	34.0			

Age Group of Wife of IUD First Acceptors

Table 2 (Jan.-Jun. 1973)

	Number			Percent		
	Total	Urban	Rural	Total	Urban	Rural
Total	4,269	1,618	2,651	100	100	100
-24	229	105	124	6	7	5
25-29	1,034	517	517	24	32	20
30-34	1,451	556	895	34	34	34
35-39	1,116	336	780	26	21	29
40+	426	99	327	10	6	12
Unclear	13	5	8	—	—	—
Mean	32.6	31.4	33.3			

Age Group of Wife of IUD Re-Acceptors

Table 3 (Jan.-Jun. 1973)

	Number			Percent		
	Total	Urban	Rural	Total	Urban	Rural
Total	1,356	241	1,115	100	100	100
-24	18	2	16	2	1	2
25-29	136	42	94	10	17	9
30-34	381	88	293	28	37	26
35-39	504	66	438	37	27	39
40+	313	41	272	23	17	24
Unclear	4	2	2	—	1	—
Mean	35.5	34.1	35.8			

B. 現存子女數

最近 數年間 루우프 避姙方法을 택한 婦人들의 現存子女數는 거의 變化를 볼 수 없을 程度로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973年度 上半期(1~6월)에 루우프를 삽입한 婦人들의 分布는 子女數 3名과 4名이 각각 24%로 제일 높은 率을 보이고 있으며 平均子女數는 3.7名이었다.

地域的으로 比較해 보면 都市婦人은 2名과 3名이 같은 率인 29%로 제일 높고 農村婦人인 경우 子女數 4名이 26%, 3名이 22% 順이며 平均子女數는 都市가 30名, 農村이 41名이었다.

한편 초삽입자와 재삽입자를 比較할때 가장 큰 差異를 볼 수 있던 것은 子女數 2名以下의 境遇로 초삽입자의 27%에 比해 재삽입자는 9%에 불과한 點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結果는 都市에서 受容한 초삽입자가 42%인데 比해 農村에서 擇한 婦人은 21%에 불과해 農村婦人보다는 都市婦人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한다(表 4,5,6 참조).

Table 4 Number of Living Children of IUD Acceptors

	Number			Percent		
	Total	Urban	Rural	Total	Urban	Rural
Total	5,625	1,859	3,766	100	100	100
None	9	6	3	—	—	—
1	318	184	134	6	10	4
2	968	544	424	17	29	11
3	1,354	545	809	24	29	22
4	1,323	344	979	24	19	26
5	930	149	781	17	8	21
6	479	49	430	8	3	11
7	162	20	142	3	1	4
8+	51	3	48	1	—	1
Unclear	31	15	16	—	1	—
Mean	3.7	3.0	4.1			

Table 5 Number of Living Children of IUD Firstinsertion

	Number			Percent		
	Total	Urban	Rural	Total	Urban	Rural
Total	4,269	1,618	2,651	100	100	100
None	8	5	3	—	—	—
1	299	179	120	7	11	5
2	854	498	356	20	31	14
3	1,086	469	617	25	29	23
4	924	279	645	22	17	24
5	621	120	501	14	8	19
6	312	37	275	7	2	10
7	111	16	95	3	1	4
8+	31	2	29	1	—	1
Unclear	23	13	10	1	1	—
Mean	3.5	2.9	3.9			

Number of Living Children of IUD Reinsertion

Table 6

	Number			Percent		
	Total	Urban	Rural	Total	Urban	Rural
Total	1,356	241	1,115	100	100	100
None	1	1	—	—	—	—
1	19	5	14	1	2	1
2	114	46	63	8	19	6
3	268	76	192	20	32	17
4	399	65	334	29	27	30
5	309	29	280	23	12	25
6	167	12	155	12	5	14
7	51	4	47	4	2	4
8+	20	1	19	2	—	2
Unclear	8	2	6	1	1	1
Mean	4.2	3.5	4.4			

C. 現存子女數別 男兒數

現存子女數는 男兒와 女兒의 配合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避姙方法 受容에 가장 重要한 要因인 現存男兒를 現存子女數에 따라 그 分布를 관찰하였다.

현존자수녀별 男兒數의 分布는 子女數 4名일때 男兒數의 比率은 男兒 2名이 51%, 男兒 3名이 28%順이며 子女數 3名인 경우 男兒 2名이 57%, 男兒 1名이 21%順이었다. 子女數 2名인 경우 男兒의 比率은 1名이 49%, 2名이 42%로 1~2名이 91%로 나타나고 있어 子女數가 2名이라 해도 적어도 男兒 1名을 갖지 않고는 아직도 피임방법을 택하지 않는듯 하다.

子女數 1名에서 男兒 1名인 경우 67%로 男兒없는 경우가 33%를 點하고 있으나 절대수로 보아 極少數에 불과해 큰 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現存子女數別 平均男兒를 보면 子女數 1名일때 平均男兒數는 0.7名, 2名이 1.3名, 3名이 1.9名, 4名이 2.2名으로 나타나고 있다.

Number of Living Son of IUD Acceptors

tTable 7 (Jan.-Jun. 1973)

	None	1	2	3	4	5+	Unclear	Total	Mean
Number of Living Children									
Total									
None	100							100	
1	33	67						100	0.7
2	9	49	42					100	1.3
3	3	21	57	19				100	1.9
4	1	14	51	28	6			100	2.2
5	1	9	36	37	14	3		100	2.6
6		8	33	33	17	9		100	2.8
7+		7	22	27	24	20		100	1.5
Unclear							100	100	
Total	5	23	43	21	6	2		100	2.1
Sample size	258	1,298	2,396	1,194	335	109	35	5,625	
Mean	1.8	2.7	3.7	4.5	5.3	6.2	3.8	3.7	
Urban									
None	100							100	
1	37	63						100	0.6
2	10	47	43					100	1.3
3	4	24	54	18				100	1.9
4	1	23	51	20	5			100	2.0
5	1	14	40	30	14	1		100	2.4
6	2	10	37	22	25	4		100	2.7
7+	4	13	22	35	9	17		100	2.8
Unclear							100	100	
Total	9	33	42	12	3		1	100	2.5
Sample size	159	607	785	232	51	8	17	1,859	
Mean	1.8	2.4	3.2	4.0	5.0	6.3	3.0	3.0	

Table 7 **Number of Living Sons of IUD Acceptors**(Continued)

	None	1	2	3	4	5+	Undear	Total	Mean
Rural									
None	100							100	
1	28	72						100	0.7
2	8	51	41					100	1.3
3	2	20	59	19				100	1.3
4		12	51	31	6			100	2.3
5		8	36	39	14	3		100	2.7
6		7	33	35	16	9		100	2.9
7+		6	22	26	26	20		100	3.3
Unclear							100	100	
Total	3	18	43	25	8	3		100	2.3
Sample size	99	691	1,611	962	284	101	18	3,766	
Mean	2.0	2.9	3.9	4.6	5.4	6.2	4.5	4.0	

精管手術한 그들 婦人의 特性

A. 婦人의 年齡分布

精管施術을 한 그들 婦人들의 年齡分布를 보면 30代가 73%로 最多數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30~34歲群이 39%로 제일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30代의 都市婦人이 73%, 農村婦人이 72%로 거의 差異가 없으나 都市에서 30~34歲群이 42%로 首位인데 農村에서는 35~39歲群이 37%로 제일 높은 率을 보여주고 있다.

30歲未滿 젊은層의 比率은 全國的으로 16%를 點하고 있으며 都市가 19%, 農村이 14%로 나타나고 있다.

平均年齡은 都市인 경우 33.3歲, 農村이 34.3歲이며 全國的으로 33.8歲였다.

精管施術을 擇한 被施術者의 年齡은 35~39歲群이 40%로 제일 높고 40歲以上이 33%로 그다음 順이며 平均年齡은 37.2歲였다.

B. 現存子女數

現存子女數의 構成比率을 보면 精管施術한 그들 婦人中 子女數 3名과 4名이

Age Group of Wife

Table 8

	Number			Percent		
	Total	Urban	Rural	Total	Urban	Rural
Total	3,357	1,686	1,671	100	100	100
-24	43	19	24	1	1	1
25-29	508	298	210	15	18	13
30-34	1,298	706	592	39	42	35
35-39	1,135	521	614	34	31	37
40+	335	126	206	10	7	13
Unclear	38	16	22	1	1	1
Mean	33.8	33.3	34.3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5名以上의 子女를 갖고 不姙手術을 擇한 婦人도 23%에 이르고 있는 반면 子女數 2名以下에도 1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地域的인 分布를 보면 子女數 3名과 4名이 大部分 차지하고 있음은 거의 흡사한 樣相이라 하겠으나 都市인 경우 子女數 5名以上이 11%인데 比해 農村의 경우는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反對現象으로 子女數 2名以下에서는 都市에서 25%를 點하고 있는데 比해 農村에서는 不過 10%를 자지하고 있었다. 平均子女數는 都市가 9.2%, 農村이 4.1%, 全國的으로 3.7名을 나타내고 있다.

現存男兒數의 分布는 全國的으로 男兒 2名에서 施術한 경우가 46%, 3名이 22%, 1名이 21%의 順位를 보여주고 있다.

地域的인 分布를 보면 男兒 2名이 都市와 農村이 各各 47%와 46%로 제일 많은 率을 나타내고 있으며 男兒 1名에서 施術한 率이 都市가 29%인데 反해 農村은 13%에 不過하며 都市나 農村에 따라 子女數의 構成比率의 差異를 볼 수 있었다.

C. 現存子女數別 現存男兒數

現存子女數 4名인 婦人이 男兒 2名을 갖고 있는率이 52%, 男兒 3名이 26%

Number of Living Children

Table 9

	Number			Percent		
	Total	Urban	Rural	Total	Urban	Rural
Total	3,357	1,686	1,671	100	100	100
None	1	1	—	—	—	—
1	37	19	18	1	1	1
2	551	393	153	16	24	9
3	1,093	680	413	33	40	25
4	862	386	474	26	23	28
5	511	137	374	15	8	22
6	183	38	145	5	2	9
7	65	13	52	2	1	3
8+	33	4	29	1	—	2
Unclear	21	10	11	1	1	1
Mean	3.7	3.2	4.1			

男兒 1名이 14%로 그 順位를 보여주고 있으며 現存子女數 3名인 婦人은 男兒 2名을 갖고 있는率이 57%로 제일 높고 男兒 3名이 22%, 男兒 1名이 19% 順이었다.

現存子女數 1名인 경우는 絶對數가 적어 큰 뜻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精管施術을 擇하는 경우 男兒없이는 거의 이 방법을 택하지 않는 단단한 結果를 보이고 있다.

卵管結紮手術을 받은 婦人의 特性

A. 年齡分布

全國的으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방법중 난관결찰을 避姙方法으로 擇한 婦人은 가족계획연구원에 수집된 쿠우폰 자료에 의하면 2,436名으로 都市婦人이 36%에 해당하는 874名이며 農村婦人이 64%로 1,562名이었다.

Number of Living Sons of Vasectomy

Table 10 **Jan.—Jun. 1973**

	None	1	2	3	4	5+	Unclear	Total	Mean
Number of living children									
Total									
None	100							100	
1	22	78						100	0.8
2	5	49	46					100	1.4
3	2	19	57	22				100	2.0
4	1	14	52	26	7			100	2.2
5	1	11	34	36	14	4		100	2.6
6		8	24	37	22	9		100	3.0
7+		4	19	26	23	28		100	3.5
Unclear							100	100	
Total	2	21	47	22	6	2		100	2.1
Sample size	62	716	1,565	735	192	65	22	3,357	
Mean	2.5	3.0	3.5	4.2	5.1	6.1	4.0	3.7	
Urban									
None	100							100	
1	21	79						100	0.8
2	5	51	44					100	1.4
3	2	23	55	20				100	1.9
4	1	21	50	22	6			100	2.1
5	3	18	39	27	11	2		100	2.3
6		26	24	26	13	11		100	2.6
7+		26	18	29	12	35		100	3.5
Unclear							100	100	
Total	3	29	48	16	3	1		100	1.9
Sample size	45	495	802	274	47	13	10	1,686	
Mean	2.5	2.9	3.2	3.8	4.7	6.2		3.2	

Table 10 **Number of Living Sons of Vasectomy** (Continued)

	None	1	2	3	4	5+	Unclear	Total	Mean
Rural									
None	100							100	
1	22	78						100	0.8
2	3	45	52					100	1.5
3	1	13	62	24				100	2.1
4	1	9	54	29	7			100	2.3
5		9	32	39	15	5		100	2.7
6		4	23	40	24	9		100	3.1
7+		4	20	24	26	26		100	3.5
Unclear							100	100	
Total	1	13	46	27	9	3	1	100	2.5
Sample size	17	221	763	461	145	02	12	1,671	
Mean	2.5	3.2	3.8	4.5	5.3	6.1	4.0	4.1	

이들의 年齡分布를 보면 34～39歲群이 33%로 제일 높고 그 다음이 30～34歲群으로 31%를 차지하고 있다.

地域的인 分布를 보면 都市에서는 30～34歲群이 41%로 最多數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이 34～39歲群으로 29%를 나타내고 있다. 農村의 境遇는 35～36歲群이 36%, 그 다음이 40歲以上으로 28%이었다.

한편 40歲以上에서 全國的으로 23%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정관시술한 그들 부인과 비교한 결과 13%가 더 높은率을 보이고 있어 特異한 結果라 생각하며 이와 반면 30歲未滿의 젊은層의 比率은 약간 낮은 率을 나타내고 있다.

平均年齡은 全國이 35.3歲, 農村이 36.1歲, 都市가 33.8歲로 나타나고 있다.

B. 現存子女數

卵管結紮은 願하는 數의 子女를 가진 婦人이 不姙을 目的으로 擇하는 것으로 子女數에 큰 영향을 받는듯 하다.

이들 被施術者의 現存子女數의 分布를 보면 都市인 경우 子女數 3名에 31% 子女數 4名에 27%, 子女數 2名에 19%順이며 農村인 境遇는 子女數 4名에 27%, 子女數 3名에 21%, 子女數 5名에 19%順으로 地域的인 特性에 따라 構成比率에서 약간의 差異를 볼 수 있다.

Table 11 **Age Group of Wife of Tubal-ligation**

	Number			Percent		
	Total	Urban	Rural	Total	Urban	Rural
Total	2,436	874	1,562	100	100	100
-24	27	8	19	1	1	1
24-29	272	141	131	11	16	8
30-34	763	360	403	31	41	26
36-39	810	252	558	33	29	36
40+	443	110	553	23	13	28
Unclear	11	3	8	1	—	1
Mean	35.3	33.8	36.1			

한편 子女數 2名을 갖고 이 方法을 擇한 比率은 都市에 22%, 農村이 17%로 都市婦人이 더 많은 率을 나타내고 있으며 全體被施術者의 境遇는 19%이었다.

Table 12 **Number of Living Children**

	Number			Percent		
	Total	Urban	Rural	Total	Urban	Rural
Total	2,436	874	1,562	100	100	100
None	1	1	—	—	—	—
1	105	29	76	4	3	5
2	359	170	189	15	19	12
3	596	272	324	25	31	21
4	656	234	422	27	27	27
5	412	122	290	17	14	19
6	174	32	142	7	4	9
7	72	6	66	3	1	4
8+	33	3	30	1	—	2
Unclear	28	5	23	1	1	1
Mean	3.8	3.4	4.0			

C. 現存子女數別 現存男兒數

現存子女數에 따라 現存男兒數의 分布를 보면 卵管結紮을 할 當時 現存子女數 4名을 가진 婦人인 境遇男兒數名에 48%, 男兒數 3名이 30%順이며 現存子女數 3名인 경우 男兒數 2名이 37%, 男兒數 1名이 23%順으로 大部分 男兒數 2名에 集中하는 傾向이 있으며 現存子女數 2名을갖고 있는 婦人은 男兒 1名이 37%로 제일 높은率이나 男兒 2名은 36%를 點하고 있어 아직도 男兒數는 避姙方法 實踐에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umber of Living Sons of Tubal-ligation

Table 13

	None	1	2	3	4	5+	Unclear	Total	Mean
Number of living children									
Total									
None	100							100	
1	23	75				2		100	0.8
2	8	56	36					100	1.3
3	2	23	57	18				100	1.9
4	1	15	48	30	6			100	2.2
5		9	38	38	13	2		100	2.6
6		9	26	32	22	11		100	3.0
7+	2	10	18	24	20	26		100	3.3
Unclear							100	100	
Total	3	24	41	22	6	2	2	100	2.1
Sample size	72	577	1,005	543	148	57	34	2,436	
Mean	2.1	2.8	3.7	4.4	5.3	6.3	3.3	3.8	
Urban									
None	100							100	
1	10	90						100	0.9
2	9	55	36					100	1.3
3	3	22	58	17				100	1.9
4	1	18	48	28	5			100	2.2

	None	1	2	3	4	5+	Unclear	Total	Mean
5		14	37	34	14	1		100	2.5
6		19	38	25	9	6	3	100	2.5
7+		11	22	11	22	34		100	3.4
Unclear								100	100
Total	3	28	45	18	4	1	1	100	1.9
Sample size	29	243	391	163	34	7	7	874	
Mean	2.2	2.8	3.5	4.1	4.9	6.1	4.5	3.4	
Rural									
None									
1	28	70					2	100	0.7
2	7	57	36					100	1.3
3	2	23	56	19				100	1.9
4		14	48	32	6			100	2.3
5		7	38	39	13	3		100	2.7
6		6	23	33	25	13		100	3.1
7+	2	10	18	25	20	25		100	3.3
Unclear							100	100	
Total	3	22	39	24	7	3	2	100	2.2
Sample size	43	334	614	380	114	50	27	1,562	
Mean	2.0	2.9	3.9	4.6	5.4	6.4	6.3	2.8	

(家)(族)(計)(劃)(事)(業)

第4次5個年 計劃 試案作成

第 1 研 究 室

家族計劃事業 第4次5個年計劃 試案作成 準備過程에 있어서 제1段階로 1973年 8月 20日 午後 3時 當院 신관 2層 會議室에서 院內 會議를 개최하였다.

本 會議에서는 4次 5個年 計劃 作成 過程에서 고려해야할 基本的 問題點인 保健 組織網을 통한 계몽, 써비스, 보급(避姙器具)을 現行方法대로 추진할 것인가의 여부, IEC와 더불어 Service, Supply를 Non-Clinical 접근에 의해 추진하는 特殊 事業의 도입 가능성 여부, 目標量 設定과 要員 投入에 관한 問題 사후 관리와 繼續 使用率 向上에 관한 問題,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의 협조, 地域的인 자비 및 타비 부담 비율의 推移에 따른 Unit-cost의 調節問題, 人工流産에 관한 對策, 人口學的 目標, 保健 組織網을 활용할 경우 事業의 integration 問題에 관해 광범위하게 토의하고 그에 따른 세부 사업지침에 대해 논의하여 院內意見을 綜合하였고 保健社會部 家族計劃 담당보좌관을 비롯하여 院外 各界 專門家 7人을 招請, 2次에 걸친 諮問會議를 개최하였다.

第1次 諮問會議를 1973年 9月 14日 午後 4時 研究院 會議室에서 가졌다. 이 1次 諮問會議에서 1973年度 動態現率 수준과 1976年度의 人口 增加率 目標 達成 실현성 여부, 第 4次 5個年 計劃 期間의 最終年度인 1981年의 人口增加率 目標 設定이라는 세가지 의제를 가지고 약 4時間에 걸쳐 활발한 討論이 展開되었는데, 두개의 假定을 設定 거기서 目標에 到達하는 過程을 事業 內容으로 하여 試案을 作成해 나가기로 決定하였다.

第 2次 諮問會議는 10月 12日에 續開되었는바 人口政策심의기구, 家族計劃의 中央 및 地方機構弘報 및 訓練事業, 人口教育, 事業評價 및 研究개발에 관한 事項이 토의되었다. 여기에서 人口政策 심의기구의 必要性이 强調되었고 弘報活動에 있어서 산탄적이기보다는 集中的인, 좀더 現實에 맞는 計劃 設定이 要求되었다.

그리고 分野別 個別 接觸을 통해 諮問을 받아, 이제까지의 몇 차례에 걸친 會議內容을 바탕으로 1977年부터 1981年까지의 두개의 人口 推計 假定에 의해서 所要人力 및 投資規模를 算定하고 避姙方法別 目標量을 人口學的 出產低下에 基礎를 두고 推定한 家族計劃事業 第 4次 5個年計劃 試案이 作成되었다.

ICARP 會議 開催

지난 9月 11日부타 14日까지 (4日間) 第5次 國際人口應用研究委員會 (International Committee on Applied Research in Population; ICARP) 會議가 美國人口協會韓國事務所와 家族計劃研究院 共同主管으로 當研究院 會議室에서 8個國에서 12名이 參加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開催되었다.

同 會議에서는 家族計劃事業과 관련이 있는 12個의 lead를 중심으로 各國의 評價·研究結果를 比較 檢討하였고 앞으로의 研究內容에 관하여 相互意見을 交換하였다.

多目的 標本活用에 의한

家族計劃 綜合實態 調査

第 2 研究室

——調 査 槪 要——

本調査의 基本的인 方針 및 調査範圍는 季報 第5輯에서 이미 그 內容을 紹介한 바 있으나, 1974年 "人口의 해"를 맞이하여 汎世界的으로 推進하고 있는 世界出產力調査(World Fertility Survey Programme)에 對備하여 今年度의 調査規模를 修正縮少하여 實施하게 되었다.

따라서 調査內容 또한 質疑의 깊이를 制限하게 되었고, 細部的인 資料는 明年度의 大規模調査에서 取扱토록 하고 큰 誤差를 가져오는 部分小集團에 관한 資料는 이를 可及的 피하고 一般的인 趨勢把握을 위하여 重點的인 努力을 傾注하였다.

調査規模는 確率標本에 의한 多目的標本 Frame中 43個 調査區를 抽出하였으며 26名의 訓練된 調査員과 5名의 指導員을 投入하여 1973年 9月 20日을 期하여 約40日間의 實地調査를 完了하고 현재 資料는 整備段階에 있다.

1973年 綜合調査 調査區로서 抽出된 43個 調査地域은 다음과 같다.

A 地域査調(指導員 한성현) 調査以前家口數… 891

경기도 부천군 영종면……83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88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94

경기도 포천군 포천면……43

서울시 서대문구 만리동……95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102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8
서울시 동대문구 보문 1동……86
서울시 성북구 안암 2동……88
서울시 성동구 성수 2동……78
서울시 성동구 행당 1동……86

B 地域調査區(指導員 차정근) 調査以前家口數…559

강원도 명주군 주문진읍…… 118
강원도 삼척군 북평읍……70
경북 영주군 영주읍……71
경북 영천군 화산면……65
대구시 중구 북성동……54
대구시 서구 비산동……57
경북 김천시 지좌동……59
경북 선산군 고아면……65

C 地域調區査(指導員 최순) 調査以前家口數…671

경남 남해군 고현면……99
경남 진해시 경화 3동…… 108
경남 창원군 웅천면……59
부산시동구 좌천 1동 ……56
부산시 동래구 장전 3동……91
경남 밀양군 밀양읍……60
서울시 영등포구 신림동…… 117
부산시 동래구 반여동……81

D 地域調査區(指導員 박승후) 調査以前家口數…566

충북 청주시 남주동……82
충북 청원군 남이면……64

충북 중원군 신니면……52
충남 대전시 자양동……73
충남 연기군 서면……77
충남 당진군 당진읍……83
충남 보령군 청소면……71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64

E 地域調査區(指導員 문명선, 김옥경) **調査以前家口數…555**

전남 장성군 장성읍……79
전남 광주시 장동……67
전남 구례군 마산면……79
전남 장흥군 장흥면……51
전북 정읍군 입암면……88
전북 부안군 줄포면……58
전북 임실군 신덕면……78
강원도 춘성군 북산면……55

——調査結果에 관한 暫定的인 小考——

實地調査를 마친 다음, 事後調査를 통하여 本調査의 質的, 量的面을 검토하여야 하고, 符號要領案의 완성, 符號化作業, 기타 資料處理의 과정을 거쳐 흥미로운 資料가 생산되는 것이지만 暫定的인 事前情報를 수집하는 것도 速報라는 견지에서 意義가 있다.

本調査에서도 1971年의 調査에서 試圖된 바와 같이 간략한 調査區別 暫定資料를 事前에 수집하여 參考資料가 되도록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調査上의 問題點을 자아내게 하는 期待値에 관한 調査現地에서의 종용은 可及的 排除되었다고 생각된다.

調査事業의 品質管理(Quarlity Control)에 관한 效率化의 한가지 方案으로서 各調査區別 調査員의 日日報告를 基準으로한 指導員들의 調査區別 主要情報를 速報로서 事前接受하여 手集計하였든바 出産水準(Fertility level) 및 家

族計劃受容水準(Family planning acceptance level) 등에 관한 資料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資料가 生產될 것으로 展望된다.

특히 調査槪念上 가장 重要하게 大別되는 調査結果의 信憑性은 절대규범의 誤差(Coverage Error)와 調査內容上의 誤差(Content Error)로 區別된다. 內容上의 誤差는 상당한 資料處理의 節次를 거쳐야만 이를 考察할 수 있으나 絶對範圍의 誤差는 手集計結果로서도 그 輪郭을 多少나마 점칠 수 있다고도 하겠다. 例를 들어 手集計結果에 따른 出生率推定(1971~1973)은 1,000名當 約 28로서, 1971年調査 結果에서 얻어진 29와 近似値를 이루고 있으며 總出產率(Total Fertility Rate)의 경우 또한 1971年 資料의 4.5에 比하여 今年度의 手集計 결과에 의한 推定은 4.3으로 算出되었다. 都市의 경우 3.8(1971年 調査)에 比하여 3.6(1973年 本調査), 農村의 경우도 5.0(1971年 調査)에 比하여 4.9(1973年 本調査)로 推定되어 앞으로의 資料處理結果가 많은 注目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速報에 의하여 밝혀진 重要調査內容別 實數는 다음과 같다.

(A) 調査區內人口數
(B) 調査區內男子數
(C) 調査區內女子數
(D) 旣婚婦人數(15~49歲)
(E) 出產力調査에 應答한 婦人數
(F) 現在結婚生活中인 婦人數
(G) KAP調査에 應答한 婦人數
(H) 未婚女性數(18~27歲)
(I) 婚前期調査에 應答한 女性數

調査區番號	地域名	A	B	C	D	E	F	G	H	I
01	종로구 돈의동	183	83	100	33	31	21	21	18	17
02	동대문구 보문 1동	310	144	166	53	52	38	37	16	14
03	성동구 행당 1동	439	195	244	70	68	52	50	36	35
04	성동구 성수 2동	233	120	113	39	38	36	35	17	17
05	성북구 안암 2동	331	143	188	61	58	45	43	26	25
06	서대문구 만리동	408	217	191	74	71	57	56	16	15
07	마포구 합정동	549	249	300	94	88	77	72	52	46
08	영등포구 신림동	541	295	246	103	96	97	90	17	13
	서울특별시	2,994	1,446	1,548	527	502	423	404	198	182
11	부산시 동래구 장전3동	433	199	234	74	73	69	67	24	21

12	부산시 동래구 좌천1동	262	121	141	38	33	34	29	24	20
13	부산시 동래구 반여동	316	165	151	56	55	51	50	10	7
14	경기도 의정부시	503	268	235	75	75	61	61	13	12
15	충북 청주시 남주동	429	215	214	67	66	58	57	25	17
16	충남 대전시 자양동	321	182	139	53	51	40	39	14	13
17	전남 광주시 중부	262	121	141	42	41	41	40	19	18
18	경북 대구중구 북성구동	192	85	107	40	40	28	28	12	11
19	경북 대구서구 비산4구동	233	109	124	37	37	31	31	13	11
20	경북 김천시 지좌 2동	266	127	139	35	35	22	28	5	5
21	경남 진해시 경화 3동	484	238	246	91	88	84	80	9	7
53	경남 창원군 웅천면	302	140	162	47	45	38	36	6	4
	시 부(서울시제외)	4,003	1,970	2,033	655	639	563	546	174	146
36	강원 명주군 주문진읍	561	275	286	93	86	75	73	17	13
37	강원 삼척군 북평읍	356	184	172	55	52	49	47	7	7
42	충남 당진군 당진읍	405	197	208	69	66	61	60	9	8
48	전남 장성군 장성읍	477	237	240	62	62	54	54	7	5
51	경북 영주군 영주읍	347	176	171	54	49	46	43	14	10
52	경남 밀양군 밀양읍	278	142	136	42	41	30	29	15	12
	읍 부	2,424	1,211	1,213	375	356	315	306	69	55
31	경기 평택군 팽성면	207	87	120	42	41	33	32	8	7
32	경기도 부천군 영종면	415	221	194	64	62	55	54	8	6
33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518	259	259	69	68	59	57	22	22
34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236	128	108	35	34	31	31	24	22
35	강원도 춘성군 북산면	230	111	119	35	34	31	30	1	1
38	충북 청원군 남이면	397	194	203	55	54	43	42	18	12
39	충북 중원군 신니면	291	153	138	39	39	33	33	3	2
40	충남 연기군 서면	426	216	210	58	57	45	44	11	10
41	충남 보령군 청소면	436	231	205	61	61	51	51	7	7
43	전북 임실군 신덕면	456	236	220	61	60	45	45	9	9
44	전북 정읍군 입암면	481	240	241	65	64	52	51	8	8
45	전북 부안군 줄포면	301	153	148	41	41	29	29	7	7
46	전남 구례군 마산면	466	245	221	67	65	58	56	11	11
47	전남 장흥군 장흥면	227	113	114	33	30	28	25	5	5
49	경북 영천군 화산면	332	176	15	48	48	41	41	11	10
50	경북 선산군 고아면	367	189	178	46	46	38	38	12	12
54	경남 남해군 고현면	551	260	291	73	73	59	59	9	6
	면 부	6,337	3,212	3,125	892	877	731	718	174	157
	총 43조사구	15,758	7,839	7,919	2,449	2,374	2,032	1,974	615	540

【研究事業】

(報) (恩) (地) (域)

人口動態 申告改善에 관한 研究

第 3 研 究 室

本研究事業은 1973年 4月에 시작되어 報恩郡 全地域에서 人口動態水準이 정확한 人口動態統計를 산출할 정도로 향상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1973年 4月부터 6月까지 3個月間 事業地域內 全家口에 대한 造成員의 家口訪問에 의한 基礎調査가 실시되었으나 造成員 담당지역의 크기 및 調査상 애로가 큰 農繁期 등으로 인하여 9月末에 全 事業地域의 家口調査가 완전히 종결되었다. 家口調査를 통하여 造成地域內 全家口의 정확한 家口現況表가 작성되어 本部와 造成員이 각각 1部씩 갖게되어 本 研究의 기초가 되는 資料가 되었다

資料는 현재 資料處理中이며 이 資料에서 本 研究事業 着手前의 人口動態申告水準과 事業地域의 人口學的 特性이 밝혀질 것이다.

基礎調査에서 나타난 報恩地域(1個邑, 10個面)의 家口數(手集計 結果임)는 總 16,787家口數로 1972年(年末常住人口報告)의 總家口數보다 119家口가 減少되었다. 〈表 1〉은 1972年度 常住人口調査에서 나타난 邑·面別 家口數와 1973年本 基礎調査에서 集計된 家口數를 나타낸 것이다.

本 研究事業이 시작된 이후 造成地域에서 일어난 自然動態(出生 死亡) 報告件數는 〈表 2〉와 같다.

1972年度의 發生件數는 家口表에서 集計된 數이며 1973年度 發生件數는 造成員의 報告에 의한 數이다.

〈表 2〉의 月別 發生件數에 대한 申告率을 보면 低調하다. 이 低調한 主原

〈表 1〉 報恩地域 家口數

地域名	家口數 1972年	家口數 1973年	地域名	家口數 1972年	家口數 1973年
삼승면	1,439	1,516	산외면	1,179	1,195
회남면	1,039	1,035	내속리면	1,269	1,207
회북면	1,636	1,831	외속리면	742	766
보은읍	3,506	3,182	마로면	1,837	1,867
수한면	1,089	1,028	탄부면	1,379	1,405
내북면	1,791	1,755	計	16,909	16,787

因은 本 研究事業 初期에 造成員의 노력이 家口調査에 集中됨으로써 事件發見 및 申告造成活動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데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造成活動에 全力을 傾注할 것이므로 造成員活動效果는 크게 改善될 것으로 기대된다.

〈表 2〉 月別 出生, 死亡 및 申告件數

月別	1972年 出生	1972年 死亡	1973年 出生	1973年 死亡	1973年 申告 出生	1973年 申告 死亡
1月	148	11	187	33	45	15
2月	185	17	191	37	65	17
3月	238	27	183	27	53	7
4月	185	24	132	42	44	26
5月	186	37	128	43	47	18
6月	168	38	120	22	40	12
7月	156	26	84	30	33	11
8月	169	31	74	29	32	15
9月	176	25	61	19	23	9
10月	150	31	54	20	15	5
11月	200	46	—	—	—	—
12月	213	61	—	—	—	—
計	2,174	374	1,214	302	397	135

國內要員訓練

訓 練 課

3/4分期는 炎暑의 季節이라 當初 訓練計劃을 年平均 分期量에 未達되는 總計劃人員 1,380名中 24.1%인 300名을 計劃하였고, 쎄미나는 平均量인 1,352名中 33.5%인 453名을 計劃하였다.

計 劃

3/4分期의 訓練計劃은 前半期에 비해 그 계획된 訓練性格이 좀 다르다.

前半期에는 啓蒙員 基礎訓練 未畢者 早期訓練에 力點을 두었으나 3/4分期에는 基礎訓練을 받고 2年 以上 경과된 啓蒙員의 再訓練에 主力하였다.

前半期의 本來 目的은 邑·面啓蒙員 基礎訓練에 全力하여 一線 啓蒙課業遂行에 이바지 하려고 早期訓練을 計劃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6月末 現在 要員動態分析結果에 의하면 要員의 각종 事由에 의한 轉職 또는 退職에 따라 新規採用要員이 500여명이나 되어 이들에 대한 基礎訓練만 해도 아직 큰 부담을 안고 있는 實情임을 附言한다.

三伏의 7月에는 主로 쎄미나와 견학생에 대한 教育을 위주로 하였다. 各 訓練課程別 參加者 實績現況은 〈表 1〉과 같다. 先任指導員 再訓練은 指導員基礎訓練 實施中 教育補助者로 差出되었는데 6名中 4名이 參加하여 助教의 役割을

擔當하게 하여 이들의 指導力 培養에 重點的인 訓練을 시켰다.

指導員 基礎 訓練課程은 40名 差出에 34名이 參加하였고 啓蒙員 基礎訓練과 같이 週 52時間의 晝夜間 訓練으로 知識·教養·姿勢 確立에 注力하였다.

指導員 再訓練課程은 家族計劃 基礎訓練을 받고 2年 以上 經過된 者를 對象으로 40名을 差出 하였던바 34名이 參加하였으며 市地域과 郡地域의 一線業務의 相異點을 감안하여 새로운 知識의 普及에 主眼點을 두고 週 39時間으로 訓練을 實施하였으나 早朝學習 및 夜間教育은 실시하지 않았다.

邑·面啓蒙員 再訓練課程은 3/4分期의 핵심이 되는 訓練으로 5個班 200名 計劃에 153名이 參加하였으며, 教育方法은 前述한 指導員 再訓練課程과 유사한 방법으로 새로운 知識의 習得에 主眼한 訓練이었다.

루우프施術醫師 基礎訓練生은 47名 差出에 35名이 參加하였는데 3日間 理論教育을 實施하였다.

3/4分期에 特記할 事項은 邑·面行政責任者(邑面長) 쎄미나 인데 5個班으로 편성, 230名 差出에 260名이 參加하여 93%의 實績을 올렸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2일간씩으로 하여 人口 및 家族計劃의 올바른 認識을 갖도록 노력하므로서 一線 行政責任者로서 各各 이 분야 事業에 대한 行政的인 支援과 적극적인 參與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데 力點을 둔 訓練을 시켰으며, 이들의 覩心度 또한 매우 높았음을 經驗했다. 이번 邑·面行政責任者에 대한 家族計劃 쎄미나는 처음 시도된 것이고 이들의 差出에 있어서도 郡內에서 가장 事業實績이 높은 邑·面長과 낮은 邑·面長을 2名씩 對象으로 하였다. 이는 教育實施後 나타나는 行政的인 影響力에 대한 相關性 및 事業效果面을 對照 觀察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本事業啓蒙의 低邊擴大라는 點도 상당히 考慮된 것이다.

그리고 聽講生으로 釜山 一心病院 看護員 1名, 大田 광산병원 醫療補助員 1名, 基督教 保健奉仕隊 看護員 1名, 모두 3名을 訓練시켰다.

이 期間中 外部機關으로 부터 本研究院을 見學하겠다는 要請에 응하여 4時間씩의 多樣한 프로그램을 準備하고 서울大 醫大 2年生 60名, 서울 大學校 看護學科生 22名, 社會事業 指導者 訓練院生 70名 모두 152名에 대해 교육을 시켰다.

〈表 1〉 國內訓練 實績 現況(實績/計劃)

課程別	時間	學級	人員	%
先任指導員再訓練(助敎)	51	1/1	4/6	66.7
指導員基礎訓練	52	1/1	34/40	80.5
指導員再訓練	39	1/1	34/40	80.5
邑·面啓蒙員再訓練	39	5/5	153/200	76.5
루우프施術醫師基礎訓練	3일	1/1	35/47	76.6
邑·面行政責任者쎄미나	2일	5/5	260/280	92.9
聽講生	51	—	3	
見學生	—	—	152	

〈表 2〉 課程別 市·道別 參加者 實績(實績/差出)

시도별	지도원 재교육	지도원 기초	지도원 재훈련	계몽원 재훈련	시술의 기초	행정책임자쎄미나	계	%
서울	/1	6/8	4/4	—	7/7	—	17/20	85
부산	/1	5/4	7/7	—	—	—	12/12	100
경기	1/1	4/4	3/3	24/27	8/8	34/38	74/81	91.3
강원	1/1	2/2	3/4	16/17	1/3	28/30	51/57	89.6
충북		/4	3/4	10/11	4/4	20/20	37/43	86.0
충남		3/3	2/3	29/37	3/5	28/30	65/78	83.3
전북		2/3	2/2	15/20	6/4	26/26	51/55	92.7
전남	1/1	3/2	2/4	15/30	3/7	40/44	64/88	72.7
경북	1/1	4/5	4/5	26/39	3/9	46/48	87/107	81.3
경남		4/4	3/3	14/18		34/40	55/65	84.6
제주		1/4	1/1	1/1		4/4	7/7	100
계	4/6	34/40	34/40	153/200	35/47	260/280	520/612	84.9
%	66.7	85	85	76.5	74.4	92.9	84.9	

實 績

課程別 實績을 보면 面行政責任者 쎄미나가 280名 差出에 260名이 參加하여 92. 9%로 差出 對 實績率이 가장 높고 다음이 85%로 指導員基礎課程과 再訓

練課程이 同率이다.

市·道別 差出 對 參加者 實績을 보면 釜山直割市와 濟州道가 100%로 가장 높고 次位가 全北으로 92.72%, 가장 낮은 곳은 全南의 72.7%이다.

先任指導員의 參與는 6名中 4名이었고 서울과 釜山에서 各 1名씩 2名이 不參하였다.

全南의 경우 참가율이 저조한 것은 邑·面啓蒙員 再訓練에 있어서 50%밖에 參加하지 못한데 그 原因이 있으며 이는 邑·面啓蒙員中 많은 數의 無免許者를 면허소지자로 대체하여 新規採用 함으로써 要員中 基礎教育履修後 2年 以上 경과된 者가 적었기 때문이라 思料되는 바이다.

成 績

<表 3> 市·道 別 訓 練 成 績

시도별	1등			2등			3등			응시 인원	평균 (100)
	반별	점수	연령	반별	점수	연령	반별	점수	연령		
서 울	1기 A	93	36							10	77.6
부 산										12	77.5
경 기	6기 C	92	31							31	77.4
강 원				5기 C	91	22	6기 C	88	33	21	77.2
충 북	4기 C	88	21	4기 C 1기 A	86 88	25 34				13	79.3
충 남	7기 C 8기 C	85 96	35 28	13기 B	89	26				34	77.6
전 북	5기 C	93	30	6기 C	88	22				19	78.3
전 남										20	77.8
경 북	13기 B	91	24	8기 C	89	26	4기 C 7기 C 1기 A	84 80 88	38 25 31	37	76.8
경 남				7기 C	83	31	13기 B 5기 C 8기 C	87 88 85	30 21 29	21	78.8
제 주										3	83.7
계										221	77.8

註 A : 지도원 재훈련 B : 지도원 기초훈련 C : 읍면 계몽원 재훈련

當分期에 訓練받은 要員의 市·道別 成績을 考察하면 (表 3參照) 總平均 成績은 77.8點이다.

濟州道가 83.7點으로 平均成績이 가장 높았지만 入賞者가 전혀 없었다. 次位는 慶南으로 78.8點이며, 入賞者가 4名이나 된다. 기타 地域은 總平均과 大同小異하다. 過去에 없었던 成績型은 慶北이라고 하겠는데 入賞者가 가장 많으면서 平均成績은 最下位 였다는 결과는 要員의 수준이 고르지 않다고 評할 수 있겠고 이것은 濟州道의 경우와는 正反對의 樣相을 보여주고 있다.

綜合的으로 보아 當分期의 1位를 차지한 市·道는 慶南이라고 考察된다. 한편 1, 2, 3位에 入賞한 訓練生의 年齡分布는 20代前群과 30代前群에 속하여 있다.

要員의 水準平準化는 계속 研究 檢討되어야 할 問題라 思慮되는 바이다.

分 析

訓練履修者의 人的事項을 分析하여 보면 (表 4 參照) 첫째, 年齡이 前半期보다 대체로 높은 年齡分布를 보였는데 이는 再訓練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나 20歲 未滿의 低齡이 2名이나 基礎課程에 있었다는 점은 採用人事指針에 어긋난 措處라고 思慮된다. 둘째, 結婚關係 역시 再訓練班이 많으므로 당연히 旣婚이 많았다. 셋째, 學歷 關係는 高卒이 絶對多數이고 中卒, 大卒 順이었다. 中卒이 大多數이던 경향에서 平均水準이 高卒로 向上된 점과 大卒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은 그 展望이 밝음을 豫視하는 것이다.

넷째, 資格別 狀況은 看護補助員이 절대다수인데 이들 無免許者와 看護補助員은 주로 邑·面啓蒙員 再訓練生들이었다. 다섯째, 從事期間別로 보면 5年以上의 經歷者가 가장 많고 次位가 2年以上 3年未滿의 經歷者 順이었다.

前述한 바와 같이 대부분이 再訓練課程이었으므로 長期經歷者가 많았다.

3/4分期는 再訓練 爲主의 課程이므로 前半期 分析과는 다소의 差異가 있음을 指摘하여 두는 바이다.

한편 各 市道別 事故內容을 살펴보면 (表 5 參照), 差出·基準違反이 10名, 遲參者가 2名, 退校 3名中 1名은 發病으로 인하여 계속훈련이 불가능하였다.

<表 4> 訓練履修者 人的狀況

課程別	年齡					婚姻關係		學歷			資格			從事期間					
	1 19	20 24	25 29	30 34	35 +	旣 婚	未 婚	中	高	大	無免許	看護補助員	看護助産員	1 年	1 2	2 3	3 4	4 5	5 +
指導員基礎	2	8	12	4	8	10	24	3	29	2		12	22	14	7	4		3	6
指導員再訓練			2	10	22	33	1	5	29			12	22			2	3	4	25
邑面啓蒙員再訓練		36	38	34	45	100	53	35	111	7	30	121	2		6	32	28	17	70
計	2	44	52	48	75	143	78	43	169	9	30	145	46	14	13	38	31	24	101

<表 5> 各 市·道 別 事故內容

市道別	登錄取消		基準違反		事故	
	退校	遲參	訓練課程	訓練重復	發病	計
서울			2			2
부산			1			1
경기			1			1
강원		1				1
충남	1			1	1	3
전북	1	1		1	1	4
전남			2			2
경북	1		1		1	3
경남			1			1
계	3	2	8	2	3	18

주어진 財源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訓練을 이루려면 教育의 內容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計劃된 人員을 脫落없이 參加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差出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方案을 계속 검토하여야 하겠다.

끝으로 基礎課程은 前期와 같은 教科目이었고, 再訓練課程은 미리 素養考査를 보아 그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教育의 重點을 集中하는 可變的인 방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다소 科目差異가 있었음을 附言하는 바이다.

訓 — 練 — 事 — 業

國 際 訓 練

國 際 訓 練 課

3/4 分期中 本 研究院을 訪問한 外國人數는 總 99名으로서 1/4 分期 18名, 3/4分期의 30名에 比해 훨씬 많은 人事가 訪問하였다. 他分期에 比해 增加된 이유는 同 期間中 當院에서 2回에 걸친 國際「쎄미나」를 開催하였기 때문이다. 첫째로는 8月 6日부터 1週間 國際人口問題夏期「쎄미나」가 昨年에 이어 세번째로 美國東西文化研究院(EWC)과 當研究院 共同主催로 開催된 바 있다. 參加者는 東南亞 11個國에서 57名 內國人 10名 모두 67名이었다. 두번째로는 7月 24日과 25日 兩日間 地域社會開發 兒童福祉財團 亞細亞地域 家族計劃쎄미나에 美國을 비롯한「인도네시아」「월남」「벵그라데쉬」등 4個國에서 10名과 內國人 多數人員이 參加한 바 있다. 이 두 國際「쎄미나」는 비단 짧은 期間이긴하나 成功的인 韓國의 家族計劃事業을 各國 參加者들이 直接 보고 듣고, 意見을 交換할 수 있었다는데 그 意義가 있다.

月別로 보면 7月에는 아세아財團「싱가폴」駐在 人口 및 家族計劃弘報 자문인 Belinda B G Brohier女史가 當研究院의 要請으로 우리나라 家族計劃關係要員 訓練評價와 各種 事業關係資料의 效率的인 活用方案에 관한 자문役割로 지난 6月 25日부터 7月 21日까지 約 4週間의 日程으로 來院한 바 있다. 이어서 政府對外技術供與計劃에 의거 政府가 招請한「케냐」國 訓練生 2名 (Karingi, Kinutia)이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約 1個月間 家族計劃事業에 대한 全般的인 基本理論과 見學 實習等을 위하여 當研究院에서 教育받은 바 있다. 그외 美國에서 1~2年間 保健, 人口 및 家族計劃關係에 관한 教育을 履修한 後 1~2週間의 日程으로 우리나라의 家族計劃事業을 直接 實習과 見學을 위하여 訪問한「휘지」國의 Mr. Mo Kalaam,「필립핀」의 Dr. Rosa, 泰國의 Dr.

Thanom과 Dr. Saraya 등이 7月에 訪問하였다. 8月에는 대개 國際人口問題「쎄미나」參席者들이었으며 9月에는 「에짚트」國 主要日刊紙 社會部長인 Sekina EI Sadat女史(에짚트國 대통령妹)가 親善訪問次 來韓中 本人의 觀心事인 韓國의 家族計劃事業을 視察코저 當院을 訪問하였다. 또한 日本 OTCA主催로 開催한 家族計劃關係「쎄미나」에 參加했든 東南亞 9個國 外國人 10名이 우리나라에서의 實習 및 見學을 위하여 來院하였다. 또한 世界保健機構(WHO) 計劃에 의거 日本 東京에서 開催豫定인 家族計劃醫療 및 外科「쎄미나」에 參加하는 WHO 자문관 一行 3名이 「쎄미나」 參席에 앞서 우리나라 家族計劃事業 全般을 視察한 바 있다. 그 외 自由中國, 越南, 美國人, 少數가 當院을 다녀갔다.

3/4分期中 20個國에서 온 99名中 國家別 來訪者數는 泰國이 24名으로 가장 많았고「필립핀」13名,「인도네시아」10名 順이었다. 支援機關別로는 EWC 49名, USAID 15名, 아세아財團 12名 順이었다.

月別 外國人 訓練 實績

Month	Country	No. of Person	Duration	Sponsor
July	Singapore	1	4 weeks	Asia Foundaion
	Kenya	2	〃	Korean Gov't
	Fiji	1	2 days	EWC
	Thailand	2	11 days	USAID
		1	1 week	〃
	Philippines	1	1 week	〃
	USA	4	2 days	EWC, CDF, IPPF Ford Foundation
	Indonesia	1	2 days	CDF
	Vietnam	4	〃	〃
	Bangladesh	4	〃	〃
August	India	3	5 days	EWC
	Indonesia	7	〃	〃
		1	1 day	WHO
	Japan	1	5 days	EWC

月別 外國人 訓練 實績(계속)

Month	Country	No. of Person	Duration	Sponsor
August	Malaysis	4	5 days	EWC
	Nepal	2	〃	〃
	Pakistan	2	〃	〃
	Philippines	10	〃	〃
		1	1 day	WHO
	Taiwan	3	5 days	EWC
		1	1 day	Asis Foundation
	Thailand	10	5 days	EWC
		11	2 weeks	USAID
	Vietnam	1	5 days	EWC
	USA	3	〃	〃
September	Egypt	1	1 day	Korean Gov't
	Indonesia	1	4 days	Asia Foundation
	Nepal	1	〃	〃
	Sri Lanka	1	〃	〃
	Malaysia	1	〃	〃
	Philippines	1	〃	〃
	Japan	1	〃	〃
		1	1 day	WHO
	Iran	2	4 days	Asia Foundation
	Turkey	1	〃	〃
	Singapore	1	〃	〃
		1	1 day	WHO
	Taiwan	1	〃	〃
	Vietnam	2	〃	〃
	Newzealand	1	〃	〃
	USA	1	5 days	USAID

訓 練 事 業

國際 人口問題 세미나

國際訓練課

國際人口 問題 쎄미나는 美國의 東西文化研究院(East West Center)과 當研究院이 共同으로 主管하여 昨年에 이어 今年이 세번째로 開催된 것이다.

이번 쎄미나는 東南亞 12個國으로 부터 (內國人 10명 包含) 모두 67명이 參加한 가운데 8月 6日부터 8月 10日 까지 5日間에 걸쳐 當研究院에서 實施되었다.

이들 參加者들은 美國의 「하와이」大學校에서 基本理論을 중심으로한 4週間의 課程을 마치고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人口政策 및 家族計劃에 관한 우리의 事業實務經驗을 中心으로한 課程을 가진 것이다. 67명 중 美國際開發處(USAID)에서 후원 받은 11명은 의사 및 간호원들로서 「하와이」에서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이들은 우리나라의 사업견학 훈련을 온 별개의 그룹이었으나 시기적으로 동쎄미나와 일치하여 이에 참여시킨 것이다. 이번 쎄미나에서 특기할 事項으로는 1971年과 1972年 2차에 걸쳐 실시된 쎄미나에는 參加者가 主로 家族計劃 및 人口政策과 관련된 여러 機關의 人事들이 參與한데 反하여 금년에는 家族計劃 機關이나 事業에 無關하고 모두가 大學校教職者들이라는 點이다.

大學教授들이 이 分野에 參與하게 된 것은 教育을 통한 人口問題의 解決에 기여하는 바를 크게 期待할 수 있다는 데 비롯한 것이다. 이들 教授의 學問分野는 人口學이 아니라 主로 經濟學, 政治學, 人類學, 心理學, 地理學, 社會學 公衆保健學 등 7個 分野이며 서로 다른 分野에서 各者 人口問題에 關心을 갖는다는 데 더욱 그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이번 쎄미나의 課程內容과 國家別 參加現況은 다음과 같다.

課程內容(演題 및 演士)

1) 政府家族計劃事業

保健社會部 家族計劃擔當補佐官……張 慶 植

2) 家族計劃研究 및 評價로 본 發見된 主要한 問題點

家族計劃研究院 研究部長……金 泰 龍

3) 家族計劃 啓蒙教育 및 弘報活動

大韓家族計劃協會 事務總長……李 周 鉉

4) 大學에서의 人口 및 家族計劃教育

서울大學校 醫科大學長……權 彝 赫

5) 人口와 經濟

延世大學校 商經大學 教授……韓 基 春

6) 精管切除手術研究

서울大學校 醫科大學 教授……李 熙 永

7) 人工流產研究

高麗大學校 醫科大學 教授……洪 性 鳳

8) 韓國의 出產力 추세

家族計劃研究院 第1研究室長……高 甲 錫

9) 어머니會 運營

延世大學校 醫科大學長……梁 在 模

10) 韓國人의 家族計劃에 對한 價値觀

美國 人口協會 駐韓代表……조 지 위 스

11) 家族計劃訓練과 要員活動

家族計劃研究院 副院長……金 容 完

12) 保健所見學(江華郡 保健所)

13) 大學校見學(延世大, 梨花女大)

國家別 參加 現況

Country	Person(s)	Sponsor
Thailand	11	USAID
Thailand	10	E. W. C.
Philippines	10	〃
Korea	10	〃
Indonesia	7	〃
Malaysia	4	〃
Taiwan	3	〃
India	3	〃
U. S. A. (Staff)	3	〃
Nepal	2	〃
Pakistan	2	〃
Vietnam	1	〃
Japan	1	〃
Total	67	

■ 特別寄稿

評價·研究가 事業運營에 미치는 영향

金 泰 龍
〈本 研究院 研究部長〉

〈目 次〉

Ⅰ. 事業運營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評價와 研究
Ⅱ. 問題解決方案 導出의 根據
Ⅲ. 問題解決方案 導出의 過程
Ⅳ. 研究課題選定의 過程
Ⅴ. 評價·研究結果가 事業運營에 미친 效果檢討
A. 事業統計
B. K. A. P. (知識·態度·實踐) 調査資料
C. 避姙方法別 受容者 追究
D. 造成員投入을 통한 人口動態申告改善을 위한 實驗的研究
E. 全國 出產力 및 人工姙娠中絶調査

Ⅰ. 事業運營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評價와 研究

우리나라에서 家族計劃이 事業의 體系的인 評價·研究를 專擔하는 家族計劃研究院의 評價·研究의 目的은 여러 面에서 또 多樣한 방법으로 이를 묘사할 수 있겠으나 경험론적 또는 현실지향적인 考慮下에서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을 것 같다.[1]

事業統計의 生產: 主로 各 市 道 또는 市·郡·邑·面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대부분 月末報告의 形式으로) 蒐集되는 統計資料의 處理 및 提示를

의미하며 이것은 時時로 事業計劃의 樹立과 實施의 調整을 하기 위한 基礎로 삼는다.

事業効果의 測定： 이는 家族計劃實態調査(K.A.P. 調査), 避姙方法別 追究調査, 出産力調査, 問題의 發見과 解決을 위한 特殊目的의 調査 등을 통하여 事業의 추세와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人口 및 家族計劃分野에 있어서 長期計劃 立案者에 대한 支援： 各種 評價·研究資料에 基礎를 두고 政策立案 및 長期事業計劃樹立에 直接參與하거나 資料를 供給하는 일을 말한다.

以上의 目的으로 보아 評價·研究活動의 內容이 規定되며 規定된 內容(話題 Topics)에 따라 細部 目的이 設定되고 다시 이에 따라 구체적인 事業計劃이 案出되나, 가장 중요한 目的이 事業運營에 영향을 주어 事業計劃을 時時로 修正할 수 있고 또 事業運營方式을 改善하는데 있음은 再三 反復해서 強調해야 할 點이라고 생각한다.

Ⅱ. 問題解決方案 導出의 根據

合理的인 行政이나 運營은 그 基礎가 되는 資料가 正確하여야만 이것이 可能하다. 行政이나 運營의 合理性, 科學化는 그 根據를 합리적인 사이에서 導出된 科學的인 資料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이다.

우리 日常 業務活動에서 때로는 業務의 結果自體보다는 그 結果에 이르는 過程의 合理性과 科學性이 重要視되는 경우가 많은데 家族計劃事業의 問題點을 發見하고 解決方案을 導出하는 作業도 이의 적절한 하나의 例라고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 1970年 여름 一團의 評價研究者「프로그람」 企劃 및 運營擔當官 및 大學教授들이 모여서 家族計劃事業의 問題點을 發見하고 解決方案을 모색하기 위한 作業이 想起된다.2) 이 作業은 다음의 몇가지 段階를 거쳐서 進行되었다.

問題發見의 資料

根據만 확실하면 거의 모든 所見이 資料가 될 수 있다. 1965年부터 評價研究事業이 發刊한 各種 報告書 및 論文, 各 大學이나 研究機關에서 報告된 研究所見, 評價세미나 또는 國際세미나에서 發表된 所見, 評價, 研究나 事業運營에 從事하는 職員이 地方行政機構나 現地에 出張 觀察한 結果, 復命 또는 報告書 등이 問題發見의 基礎資料로서 사용되었다.

各 所見이 提示하는 問題의 分類 및 羅列

所見에서 抽出된 數百가지의 問題點(1970年 作業의 경우 126個 問題點)은 큰 題目을 붙여서 10個내지 12個의 分野로 分類한다.

"家族計劃 方法採擇 改善 組織 및 監督", "公報 및 啓蒙教育"등으로 大分한다.

根據 및 事由의 提示

以上 단계에서 發見, 分類된 問題點 하나 하나에 대해서 研究家와行政家 운영담당자의 지혜를 모아 생각할 수 있는 解決方案을 모두 羅列해 본다.

解決方案은 常識範圍內에서 더는 細分할 수 없을 정도로 마지막까지 구체적인 방안으로 세분되어야 한다. 마치 分子를 나누어서 原子를 끄집어내는 格이다.(1970年 作業例로는 이것이 총 263個에 達하였다)

解決方案의 再整理

同一한 個個의 解決方案을 가지고 두가지 以上의 問題點을 處理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복되는 해결방안을 除去해서 再分類한다(1970년에 총 161개). 이 때 원래의 分類題目과는 다른 題目下에 문제점이나 解決方案이 編入될 수 있다. 分離된 原子를 再結合시켜서 分子로 構成하는 格이다.

財政, 人力등 現實的 考慮에 立脚한 優先順位 決定

모든 해결방안을 동시에 實踐에 옮길수는 없다. 政策, 財政, 人力, 法制等 현실적인 考慮가 이에 隨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以上으로 解決方案導出의 작업은 끝난다. 가능한 限의 合理性과 科學性의 保障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作成된 건의서에는 問題의 根據와 事由가 명시되었다. 이러한 作業을 현재 진행중인 家族計劃長期計劃作成過程에서 되풀이 할 생각이다. 새로운 所見과 研究結果가 문제발견의 根據로 登場하고 이미 解決된 問題는 退場命令을 받을 것이나 作業의 根本過程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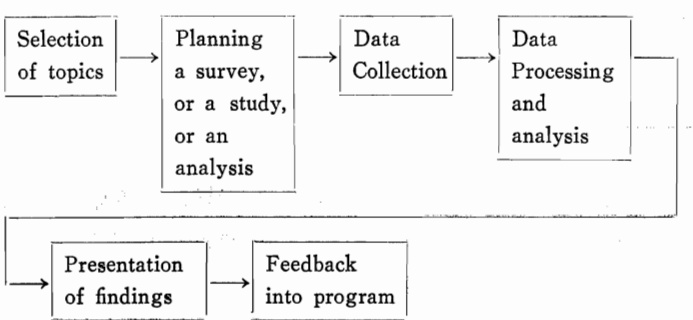
Ⅲ. 問題解決方案 導出의 過程

評價研究의 課題가 선정되어 調査研究의 ① 企劃 ② 資料蒐集 ③ 資料의 處理 및 分析

④ 所見의 提示3) (Presenting the Findings)라는 4個段階를 거쳐서 評價研究의 結果가 提示된다. 이 結果가 事業運營에 影響을 미치려면 研究結果의 ⑤ 再給補 이라는 重要한 段階를 거쳐야 한다.

이 過程을 圖示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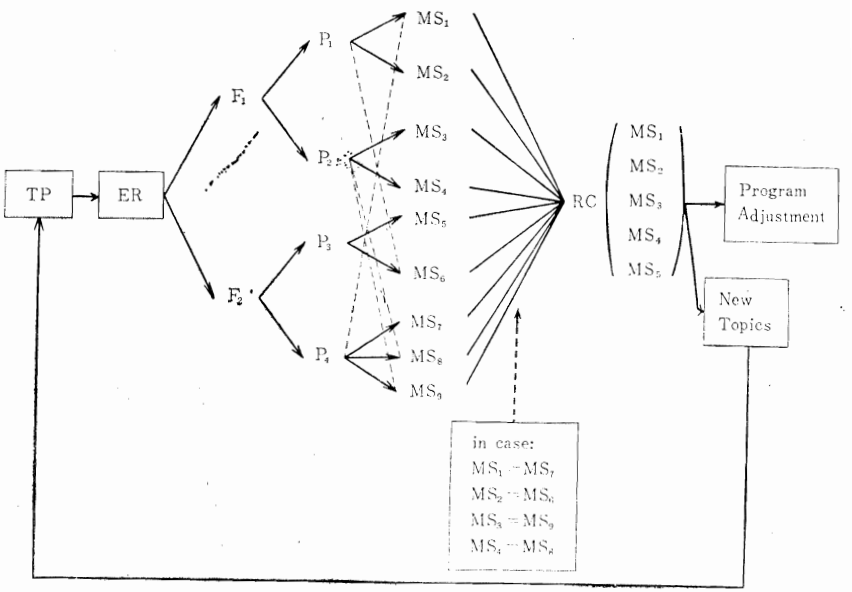
Figure 1. Steps in Conducting Evaluation Research



① 所見에 입각한 問題의 發見, ② 發見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方案의 모색 및 안출 ③ 方案의 重複을 피하여 事業運營者로 하여금 採擇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方案의 再整理 및 選別 ④ 建議案의 作成이라는 4개의 段階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이 再補給의 過程을 圖示하면 아래와 같다.

Figure 2. Steps Between Presentationof Research-Evaluation Findings and Program Adjustment···Feedback Process



Legend: TP=Topic for evaluation research
ER=Evaluation research
F=Finding (Individual, specific)
P=Problem (Concrete, specific)
MS=Measure for solution (Broken down to unbreakables)
RC=Recommendations (Specific, concrete)

즉 研究의 課題가 선정되기 앞서 설명한 評價研究의 段階를 거쳐서 所見이 提示됨으로써 研究者나 이러한 研究를 委託한 者의 使命은 일응 끝나는 것으로 看做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評價研究일 경우 특히 時間的인 制約과 速決에의 壓力을 많이 받은 家族計劃分野에서의 評價研究일 경우 研究者나 委託者의 任務는 단순한 所見의 提示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所見의 提示」를 시발점으로 하여 強力하고도 끈질긴 一連의 作業을 遂行해 나아가야만 한다.

이러한 過程을 再補給이라 하는데 現在 家族計劃事業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마다 또는 평가 연구자나 사업운영자가 놓인 사회적 문화적 환경조건에 따라 이 Feed back의 內容이 달라진다.

筆者가 見聞한 範圍內에서는 아직 아무도 各國에서의 Feedback의 機轉을 規定 내지 描寫한 것이 없고 또 혹 있더라도 이것은 급속한 資料의 처리와 所見의 提示만을 Feedback의 중요한 過程으로 看做할 뿐[4] 이 提示된 資料가 어떻게 事業運營者에 의하여 解釋, 消化, 吸收, 再處理되어서 事業計劃의 內容이나 運營, 施策의 方向을 수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過程을 탐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에 提示한 〔圖 2〕에서 評價研究의 課題(TP)가 선정된 다음, 社會調査論에서 規定한 여러 段階와 절차를 밟아 評價研究의 所見(F)이 導出된다.

한가지 課題 즉 화제에 따라 研究할 때 所見은 흔히 單數가 아니라 複數일 때가 많다.

調査研究 또는 評價研究의 所見은 대개가 事業運營上의 問題點 (Problem; P로 표시)과 연관된다. 問題點 역시 個個의 所見에서 여러가지가 發見될 수 있으므로 역시 複數로 표시하였다.

이렇게 해서 發見된 事業運營上의 또는 計劃執行上의 問題를 解決하고자 할 때 問題가 집합적이나 추상적이 아니고 細分되고 구체적일수록 그 解決方案 (Measures for Solution; MS로 表示)을 보나 細分된 것을 보나 具體的인 것을 構築할 수 있을 것이다.

〔圖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가지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 두가지 또는 그 以上의 解決方案이 제시될 수 있는데(實線으로 表示) 어떤 解決方案은 한가지만으로 두가지 또는 그 以上의 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點線으로 表示).

以上의 과정을 밟아 진출된 解決方案은 同一課題 Topic(TP) 下의 評價研究結果가 제시하는 諸問題들을 解決하는데 重複(解決方案의 중복)될 수 있으므로 建議書를 작성하는 段階에서는 重複되는 解決方案을 추려서 이에 정책적인 재정적인 또 기술적인 考慮를 加하여 優先順位를 定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政策的 考慮라 함은 아무리 좋은 解決方案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문화적전통이나 사회질서에 背馳됨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고 財政的考慮라 함은 이 解決方案을 실천에 옮김에 있어 財政 뒷받침의 可能性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또 技術的 考慮라 함은 行政技術上, 臨床 또는 基礎醫學 그밖에 心理學, 精神醫學的인 原則에 違背됨이 없어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過程을 거쳐서 작성된 建議書를 事業運營者나 그의 補助者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고 또 시기를 잃지 말고 사업계획의 수정이나 운영방식의 개선을 爲하여 능동적인 措置를 取해야 한다(RC에서 Program adjustment에 이르는 화살표는 이 過程을 설명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段階를 밟아서 導出, 構築된 解決方案과 전의만으로 問題가 충분히 解決되지 않고 새로운 評價·調査·研究의 必要性을 제시하게 될런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에 새로운 研究課題가 탄생하는 것이다.

問題의 解決方案導出은 누가 해야 하나?

원칙은 事業運營者가 上記 圖表에 표시된 전과정을 밟아야 하고 評價研究者의 역할과 임무는 調査研究와 資料의 處理와 分析을 통한 所見의 제시에 그쳐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선진국가에서의 研究者와 事業運營者 또는 研究委託者와의 상관관계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은 사실이다.

그러나 事業運營에 종사하는 人員이 부족할 때, 그들의 시간이 큰 제한을 받을 때 評價·研究者는 本來의 研究任務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事業運營의 실제를 파고들어 이에 行政的인 판단을 加하여 評價研究所見에 입각한 문제의 導出뿐 아니라 導出된 問題에 대한 解決方案의 構築에까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며 이런 例에 家族計劃研究院이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 行政·運營 從事者와 評價研究 從事者와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協同과 協業으로 효과적인 解決方案의 모색과 또 評價究究結果의 事業運營에의 반영의 가능성은 매우 크며 그 실례도 허다하다. 이러한 Feedback의 具體的인 例에 대해서는 本 論文에서 後述할 예정이다.

Ⅳ. 研 究 課 題 選 定 의 過 程

大學이나 研究機關에서 研究課題를 選定할 때는 대개 ① 家族計劃事業 運營과 有關한 것 中에서 ② 學問的인 흥미가 있고 ③ 資金供給機關 또한 흥미를 느끼는 topics 中에서 適宜 選定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家族計劃研究院과 같이 政府 家族計劃事業의 評價와 研究를 專擔하는 機關에서의 評價·研究課題의 選定은 그 節次에 있어서 根本的인 差異가 있을 수 있다. 즉 事業의 效果改善과 問題點發見이 一次的인 考慮의 對象이 되어야 하고 學問的인 흥미가 오히려 二次的인 基準이 될 수 있는 것은 事業의 方向設定과 調整에 時間的인 制限이 있을 뿐 아니라 評價·研究가 미치는 영향이 經濟開發의 成功與否와 直結되기 때문이다.

家族計劃研究院의 評價·研究課題選定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밟는 절차를 略記해 보면 아래와 같다.

資料의 蒐集 및 整理

評價·研究課題選定을 위한 資料는 각 방면에서 이를 수집한다. 자료수집의 Source 또는 동기로서 다음의 몇가지를 들 수 있다.

a. 事業運營擔當局 즉 保健社會部가 사업의 企劃과 實地運營을 통해서 認知한 問題

b. 家族計劃研究院에서 각종 통계를 처리분석하고 各種 研究事業에서 얻은 資料를 분석하고 所見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얻은 당면문제에 관한 지견

c. 家族計劃研究院이 주최하거나 各 大學 및 연구기관이 개최하는 평가쎄미나, 各種 會議, 懇談會 또는 세미나에서 提起된 問題

d. 특히 家族計劃研究院의 研究事業에 긴밀한 관련과 유대를 갖고 있는 各 大學의 교직원 또는 研究機關의 직원이 제시하는 사업의 問題點

e. 美國의 人口協會, 美國海外開發處, UN의 各 機關에서 發刊하는 研究報告書, Bulletin, Newsletter 등에 收錄, 指摘되는 問題點

f. 家族計劃研究院 또는 保健社會部의 關係職員이 現地出張하여 파악, 復命하는 사업의 問題點

g. 問題가 있던 없던 一國의 家族計劃事業을 파악하고 소개하기 위한 基本指標 (Indicator) 또는 Index에 대한 의식 : 例를 들자면 KAP指數, 年齡別 差別出產力, 嬰兒死亡率 및 死亡率, 出生率 및 死亡率, 人口增加率 等을 산출함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

h. 최근 美國 人口協會가 주동이 되어 조직한 「人口分野에 있어서의 應用研究를 위한 國際委員會」 즉 International Committee on Applied Research in Population(ICARP)에서는 約 8個國의 家族計劃 評價研究分野의 전문가가 모여 國際的인 次元에서 各國의 家族計劃事業運營의 行政的인 또 技術的인 장애와 問題點을 論議하고 이를 打開하기 위한 研究, 實驗課題를 창안하여 速決主義로 事業을 進行하고 있다.

1972年 4月에 比律賓國 Manila 市에서 開催되었던 第1次 會議에서 合議된 23個의 主導理念, 즉 Lead에서 다시 9個의 긴급한 Lead를 選定하여 研究와 實驗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ICARP의 활동과 家族計劃研究院의 評價研究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研究課題에 있어 相互重複을 피하면서도 서로 補完하고 새로운 研究課題에 관한 暗示를 서로의 研究業績中에서 찾는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본다.

各 研究員에 의한 研究課題 提出

以上과 같이 蒐集, 備蓄된 資料 및 意識에 근거를 두고 各 研究員은 자기가 次年度中에 실시하기를 願하는 評價研究의 제목과 이를 뒷받침할만한 내용을 간단한 文書로서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現在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樣式은 아래와 같다.

a. 評價研究課題名

b. 目的 및 必要性

c. 研究方法 및 節次

d. 所要 豫算

研究課題(研究計劃) 檢討會 開催

다음 研究院에서 밟는 段階는 제출된 評價·研究課題와 그 내용을 검토하는 회의를 各 擔當研究員의 出席下에 개최한다. 研究題目을 제출한 연구원은 여기서 세계적인 인구성장의 추세와 國內 家族計劃事業發展의 進度, 또 그가 意識하게 된 특정목적의 評價研究의 필요도를 근거로 해서 自己題目의 妥當性과 緊急性을 설명하여 참석한 全 研究關係職員의 批判을 받는다.

이러한 研究課題檢討會는 1回로서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數回에 걸쳐서 長時間 討議되는 것이 보통이다.

家族計劃事業運營當局과의 協議

本章「資料의 蒐集 및 整理」에서 言及된바 「事業運營當局 즉 保健社會部가 事業의 企劃과 實地運營을 통해서 認知한 問題」가 評價研究課題選定의 기초가 되는 資料로서 중요한 Source를 이루고 있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運營當局 대표자의 출석을 기다려 事業運營面에서 본 과제의 필요성과 時宜性 또 緊急性等에 대한 검토를 받는다.

詳細한 研究計劃書의 作成

本章「各 研究員에 의한 研究課題 提出」에 소개된 4個項目에 걸친 研究計劃書는 第1次的인 討議資料로서 필요한 目的, 方法 및 豫算에 관한 개요를 담고 있으므로 이것을 細分, 具體化할 필요가 있다.

例를 들면 「b」의 「目的」은 一般과 특수로 細分되어야 하며 필요성을 뒷받침할 具體的인 資料가 제시되어야 하며 「c」의 「研究方法 및 節次」는 一般的인 記述에서 進一步하여 Planning stage5)의

① Determination of purpose

② Organizing the survey planning body

③ Delimitation of area

④ Work schedule

⑤ Selecting methods to be used

⑥ Organizing and training a staff and team of field workers

⑦ Plans for preparing the community for the survey

등에 관한 詳細한 內容이 記述되어야 하며

또 Data collection stage에 속하는

① Maintaining contact with informants

② Staff supervision

③ Cross-checking facts collected for inconsistensies

等 Survey technology上의 具體的인 方法이 一應 Cover되어야 한다.

그리고 時間이 허락하면 그 研究課題를 遂行함으로써 얻게 되리라는 豫想되는 結果와 所見 즉 Hypothesis 그리고 이 評價·研究가 事業運營에 미칠 수 있는 直接的인 또 間接的인 效果와 영향에 대한 記述이 있으면 研究計劃書의 體制로서 더욱 훌륭하다고 하겠다.

研究調整協議會의 開催

以上의 節次를 밟아서 상세하게 또 具體的으로 作成된 研究計劃書는 國內저명한 大學教授, 評價研究家, 家族計劃行政運營 擔當者, 그리고 人口 및 家族計劃研究家로 構成된 研究調整協議會에 提出하여 技術的인 檢討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다시 修正, 調整된 研究計劃案은 院內에서 豫算調整을 거친다.

家族計劃研究院 理事會의 議決로서 完決된다.

Ⅴ. 評價·研究結果가 事業運營에 미친 效果檢討

A. 事業統計

家族計劃事業 評價·研究의 중요한 課題의 하나인 事業統計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時計 혹은 航海士나 航空操縱士들의 羅針盤의 역할을 한다.

各種避姙事業實績

月別로 集計되는 各種 避姙事業實績은 사업의 진도를 측정,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指標가 된다. 전체 피임 受容者中 「루우프」施術, 男女不姙施術 즉 Vasectomy나 Tubal ligation, 먹는 피임약, 콘돔 등 政府事業에 중요한 Tool의 受容性을 이로서 判定하고 여기 算出되는 Rate나 Ratio는 目標量과의 對比와 아울러 當該年度의 各種避姙事業의 實績을 증명하여 주고 이것이 人口學的인 效果 즉 出生防止(Birthe averte)의 算出에 없어서 안될 資料가 된다.

또 「루우프」 再挿入率과 먹는피임약 계속복용율의 算出은 避姙方法의 效果를 더욱 具體的으로 고정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다.

또 이러한 各種 피임方法 受容率과 계속사용율을 各 地方行政區域別로 算出하고 있는데 이것은 各 地方別 業績을 比較 評價하여 行政監督의 方向과 深度를 決定하는데 不可缺의 資料가 된다.

要員現況

各 月別로 現地에서 避姙器具 및 藥劑의 공급에 종사하고 戶別 訪問, 集團啓蒙 등 教育方法을 통해서 家族計劃思想의 보급 및 實踐方法의 지도에 임하고 있는 各 市·道의 專擔指導要員, 各 市·郡·區의 家族計劃指導員, 그리고 各 邑·面의 家族計劃啓蒙員의 現數와 정원의 對比 空席率, 空席率의 趨移, 또 이러한 比率의 各 地方行政區域別 比較는 全國에 定員 2,393名에 達하는 要員들의 動態를 파악하고 이들을 指導監督하며 적절한 昇給對策, 補償策을 樹立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基本資料가 된다.

資料蒐集現況의 測定6)

家族計劃研究院에서는 月別 事業統計分析結果를 同院이 每月中旬에 發刊하는 家族計劃評價·研究月報에 收錄되어 있으며 이 資料를 公表함으로써 各 地方行政單位에 의한 各種 報告의 遲速이 판명되어 次期報告書의 適期提出을 刺戟, 督勵할 수 있다.

月報資料와「쿠우폰」資料의 比較

現在 家族計劃事業評價에 使用되는 「쿠우폰」으로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루우프」의 「쿠우폰」, 또 하나는 「精管手術」의 「쿠우폰」이다.

月末報告내용의 一部로서 보고되는 施術件數와 蒐集·提出되는 해당「쿠우폰」의 枚數와 同一하고 記載內容도 일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를 측정하여 中央行政機構를 통하여 所管 地方行政單位에 통보함으로써 行政·監督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B. K.A.P <知識·態度·實踐>

家族計劃實態調査 즉 K.A.P. 調査는 1964年 이후 매년 봄 3,4月에 실시되었다.7) 그 後 1968年 및 1971년에 全國 出產力調査의 중요한 構成部分으로 K A.P. 項目이 포함된 일도 있다.

이러한 一連의 調査를 통하여 事業개시 이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부인들의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는바 그 변화는 常識의 범위를 넘는 뚜렷한 것이었다.

이 K.A.P. 조사는 사회학적, 보건의학적, 그리고 人口學的인 要因, 즉 年齡, 教育, 職業, 종교, 出產經歷, 結婚年齡 및 結婚期間에 따른 全國의 出產이 가능한 年齡에 있는 婦人 및 男便의 知識, 態度 및 實踐을 觀察·評價하는데 매우 흥미있는 趨勢와 樣相을 보여주었고 조사결과는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한국의 家族計劃事業의 進展度를 파악, 소개하는데 그리고 수시로 事業計劃을 調査하는데 直接的인 價値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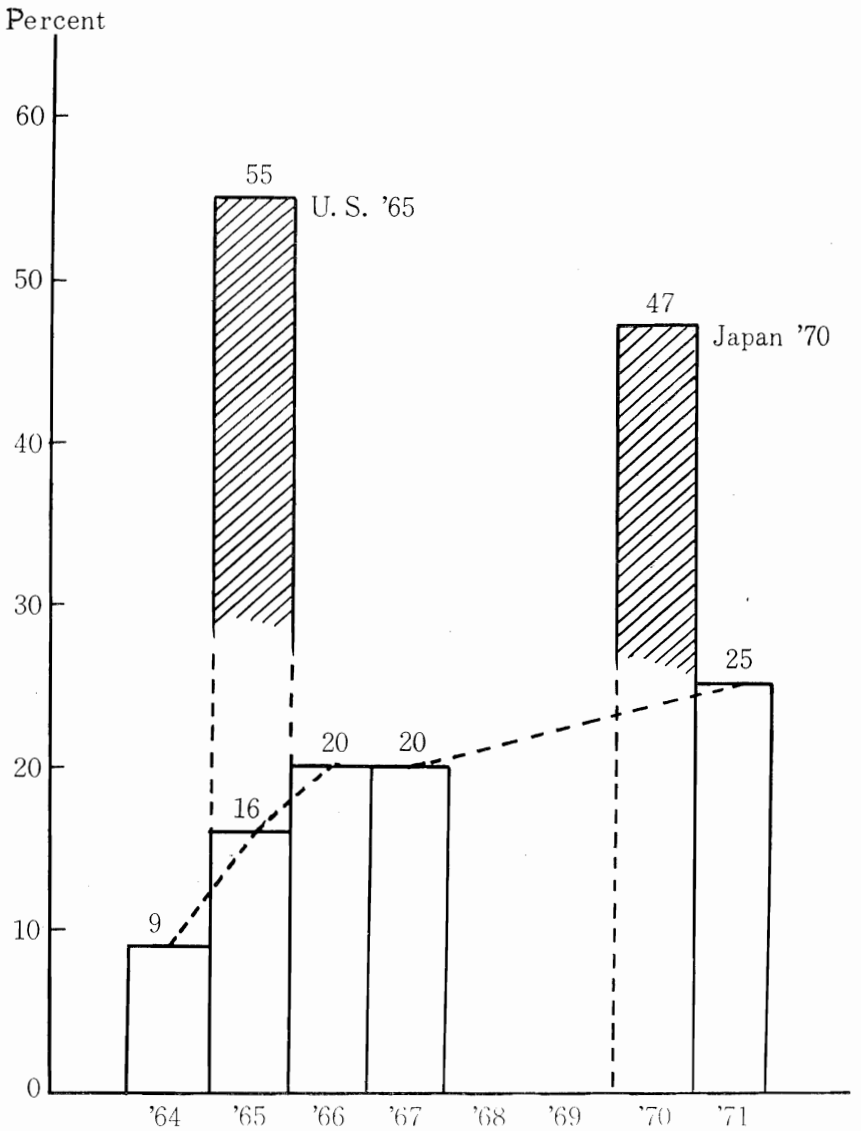


Figure 3. Per Cent of Married Women through Age 44 Currently Using Contraception, Whole Country. Based on National KAP Studies 1964—1967 and 1971 Fertility-Abortion Survey (U.S. Figure Quoted from Westoff, L.A. and C.F. Westoff, From Now to Zero p. 65, Little, Brown and Company, Boston, and Japan Figure from Japan Family Planning Association, Family Planning Manual 1970, p. 245 for Women up to 50)

K.A.P.調査는 이밖에도 母子保健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많은 問題點을 提示해 주었다. 즉 人工姙娠中絶實施의 빈도, 可姙性과 不姙性의 水準, 姙娠의 樣相, 死產 및 嬰幼兒死亡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과의 差異등 유용한 資料가 分析되었다.

〔圖 3〕은 各 年度 K.A.P. 調査에서 얻은 우리나라 有配偶婦人의 家族計劃方法實踐率의 年度別 趨移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家族計劃事業이 성장해온 過程과 그 程度, 外國과의 對比, 그리고 問題點의 파악에 매우 큰 도움을 준다. 즉 우리나라의 避姙實踐率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 행정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問題를 해결하고 事業效率을 開發할 必要性이 本資料8)에 의해서 指摘되고 있다(圖 3 參照).

C. 避姙方法別 受容者 追究

現在까지 3回에 걸쳐서 「루우프」 施術者의 追究調査가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되었다. 子宮內 避姙裝置를 일단 받아들인 婦人을 對象으로 실시한 이 調査에서 年齡과 出產經驗의 差異, 子女數, 父母의 教育程度, 都市와 農村등 居住地域別로 「루우프」의 中斷率이 計算되었고 「루우프」受用者를 사회학적·의학적·인구학적인 면에서 평가했으며, 이 分析을 통해서 「루우프」使用에 수반하는 부작용의 정도도 구명할 수 있었다. 특히 1967년에 실시된 추구조사는 30個月까지의 使用者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의 分析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의 IUD의 效率性, 受容性이 이로서 立證된바 있다9).

또 1970년 12月에 發表된 「먹는 避姙藥服用者의 採擇率 및 避姙效果에 관한 硏究報告」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루우프」의 결함을 補完하기 위하여 1968年부터 全國事業網에 導入된 「먹는 피임약」의 受容效果가 밝혀졌다10).

本 硏究에서 밝혀진 最終姙娠의 結果(出產, 死產, 流產, 人工姙娠中絶等)와 먹는 避姙藥 服用期間의 間隔, 子宮內裝置中斷後 먹는避姙藥 服用期間의 間隔, 먹는 避姙藥 中斷後 避姙狀況, 最初 먹는 避姙藥 中斷과 再服用과의 間隔 먹는 避姙藥 服用者의 사회·인구학적 特性別 累積 繼續率等에 관한 資料와 分析所見은 먹는 避姙藥의 전통이 짧은 우리 社會에서 子宮內裝置의 사용효과를

보완하는데 유의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먹는 避姙藥의 사용효과에 관한 自信을 事業의 Program Administrator에게 주었을 것이다.

D. 造成員投入을 통한 人口動態改善을 위한 實驗的 研究

全國 保健組織網을 통한 人口動態申告 改善을 위한 研究事業(1971年 2月—1973年 2月)[11]에서 人口動態造成員은 實驗地域으로 선택된 25개 지역에서 刺戟投與와 統計蒐集에 힘써 왔다.

結論的으로 人口動態要員이 投入되어 熱과 誠을 가지고 組織的인 監督下에서 活動할 때 人口動態申告率이 向上될 수 있으며 劃期的으로 改善 向上된 人口動態의 申告가 있을 때보다 精密한 家族計劃事業의 Planning과 Program Implementation이 可能함을 立證하였다.

그러나 本 研究로서 問題 解決策의 全部가 浮刻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研究課題索出의 必要를 提示한 例中 뚜렷한 것이 되어 있다.

이러한 必要에 따라서 家族計劃研究院에서는 忠北 報恩郡을 集中的인 刺戟投與地區로 設定하여 約10個月의 期間을 잡아 새로운 實驗을 繼續하고 있는 것이다.

E. 全國 出產力 및 人工姙娠中絕調査

年齡別 特殊出產率

各 年齡層에 속하는 婦人들의 年間 出產數(正常出產數)는 우리나라 出產力의 國際的 對比를 가능케 할뿐 아니라 이를 大都市, 中·小都市, 農漁村別로 比較할 때 거주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우리나라 婦人의 出產力에 큰 差가 있음을 나타냄으로써 家族計劃事業의 戰略을 수립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家族計劃 實踐率

우리나라의 20歲에서 44歲에 이르는 旣婚女性의 피임방법 실천율이 지역별(大都市, 中·小都市, 農漁村別)로 算出되며 1964年以來의 年度別 比較를 可能하게 하고 있다. 이것으로 家族計劃을 實踐하고 있는 國民의 比率 또는 實數의 年度別 上昇과 그 속도를 判定할 수 있으며 거주지역뿐 아니라, 婦人의 年齡子女數, 教育程度, 結婚期間別로 算出된 家族計劃實踐率은 家族計劃事業의 障碍가 되는 문제의 年齡層과, 地域, 教育層等을 확인해서 새로운 普及戰略을 세우는데 貴重한 資料가 되고 있다.

例를 들면 현재 政府가 추진중에 있는 低年齡層을 위한 보급 확대책, 도시지역과 신흥공업지역을 위한 浸透策等도 근거를 上記한 자료와 소견에 두고 있다.

人工姙娠中絕에 관한 資料

人工姙娠中絶經驗率, 姙娠對 人工姙娠中絶比, 婦人의 年齡別人工姙娠中絶數, 姙娠消耗率(年齡, 地域, 教育別), 社會·經濟的 特性別 人工姙娠中絶實態등을 評價함으로써 人工姙娠中絶이 우리나라 出產力을 低下시키는데 있어서의 寄與度를 알 수가 있으며 1973年 5月에 발효된 母子保健法의 當爲性을 뒷받침했으며 出產防止에의 기여도에 있어서 일반 避姙方法에 對比해서 人工姙娠中絶의 役割이 무시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本研究의 결과로서 人口抑制策의 일환으로서의 人工姙娠中絶에 對處하는 정부로서의 施策으로 具體的인 것을 建議할 수 있었다.

以上은 評價·研究事業의 結果가 事業運營에 미치는 影響 내지 효과의 구체적인 例中 몇가지를 소개한 것뿐이며 枚數의 제한으로 모든 例를 게재치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文 獻 및 脚 註

1. Kim, Tae Ryong: Outline of Evaluation Research Activities for Korea's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Achievements and Problems,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p. 25, May 1972.
2. 保健社會部 : 우리나라 家族計劃事業의 問題와 解決方案—家族計劃事業 綜合推進委員會 報告—1970年 8月, pp. 2~3.
3.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ct-Finding with Rural People pp. 6—27, Rome, 1957.
4. Bogue, Donald J.:(Chapter Four, How Can We Make Evaluation Statistics More Useful to Executives and Teach Executives How to Use Evaluation Statistics? pp. 47—48, Family Planning Improvement Through Evaluation, Community and Family Study Center, University of Chicago, 1970.
5. Moser, C.A.: Survey Methods in Social Investigation pp. 39—40, Heinemann Educational Books, Ltd, 1967.
6.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Evaluation-Research Monthly p. 9, May 1973.
7. 金泰龍 : 韓國家族計劃事業의 評價 硏究活動—그 成果와 問題點—p. 8, 家族計劃硏究院, 1972年 5月.
8. 宋建鏞 : 人口動態申告 造成員活動評價세미나 報告, 家族計劃硏究院 p. 10, 1973.
9. Kim, T.R.: National Intra-Uterine Contraception Report,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Center, December 1970.
10. K. S. Cho, E. S. Kim, E. I. Kim: Study on the Acceptability and Effectiveness of Oral Contraceptiues Among Korean Women,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Center, 1970.
11. 宋建鏞外 2人 : 全國保健網을 통한 人口動態申告 改善을 위한 調査硏究(第Ⅰ輯 및 第Ⅱ輯), 家族計劃硏究院, 1972.
12. Moon, Hyun-Sang et al: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February 1973.
13. 洪性鳳 : 全國人工流產의 實態, 最新醫學社, 1972.

■ 特別寄稿

韓國農民의 家族計劃 受容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硏究

——農業革新 受容의 問題와 더불어——

金 智 子
〈地域社會開發學博士〉

Ⅰ. 序 言

多收穫 品種의 普及과 家族計劃 事業은 前者가 生產性을 높이고 後者가 그 生產率(出產力)을 낮춘다는데서 얼핏 서로 정반대되는 사업으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國家經濟의 發展 및 人類의 福祉增進이란 觀點에서 人口問題와 農業生產問題는 아시아를 비롯한 開發途上國들의 커다란 問題거리로 登場, 이 두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기 위해 政策決定者는 물론 理論 및 學問分野에서의 觀心度 역시 상당히 고조되어 가고 있다.

韓國의 경우 6.25事變 이후 급격히 늘어난 人口數와는 달리 農業 및 食糧의 生產量은 늘어난 人口增加率에 비해 그 수급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外米와 밀가루 등 수입에 依存해야 하는 실정에 처했고 食糧의 自給自足은 國家시책의 重大 목표가 되었다. 이에 따라 政府는 食糧增產을 위한 多收穫벼씨(통일벼)의 보급과 人口의 增加를 억제하기 위한 家族計劃事業을 第3次 經濟開發 5個

註 : 本稿는 筆者가 1973年 9月 University of Philippines에서 地域社會開發學博士學位를 받은 論文임.

年計劃에 넣고 동시에 全國的으로 그 事業을 펴 나가게 되었다

家族計劃이나 통일벼 보급事業과 같이, 諸般 經濟開發計劃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重要性은 이미 많은 學者들에 의해 强調되어 왔다(Fliegel外 : 1968, Dube:1967, Feliciano: 1967). 넓은 의미로 「커뮤니케이션」 혹은 情報 및 通信은 새로운 理念이나 革新 등에 대한 知識의 傳波過程뿐 아니라 事業計劃의 수행에 있어서도 필수要件의 하나로 그 重要性이 認知되나(Rogers: 1962, Schramm: 1963, 1967), 특히 「커뮤니케이션」 理論家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이(Persuasive Communication) 그 궁극의 목표를 人間行動의 有意圖的方向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Berlo:1960, Betlinghaus: 1968)이라 보고 특히 그 「커뮤니케이션」 效果는 누가 무엇을 어떤 매체를 통하여 누구에게 어떤 상황속에서(Source, Message, Channel, Receiver and Situation) 이루어 졌느냐에 따라 결정된다(Jamias: 1971)는 가정위에서 本 研究의 근거를 찾게 되었다.

더욱이 家族計劃문제와 農事문제는 두 事業이 모두 활동의 주축이라 볼 수 있는 指導要員(Change agent)을 活用하고 있고 특히 農村을 그 場으로 볼 때 두 사업은 똑 같은 對象(農民, 혹은 그 婦人)을 目標로 전개되고 있어 두 事業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要因들을 상호 비교 검토해 볼 필요성을 가졌다. 이에 더해 農業生產活動에서의 새로운 考案이나 革新에의 접촉은 다른 日常生活에 있어서의 技術的 進步를 促求한다는(Cernea外 : 1971) 假說은 農民들의 農業革新의 (특히 多收穫벼씨) 受容 및 家族計劃活動면에서도 비슷한 理論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假說을 이끌어 내기에 이르렀다.

보다 구체적으로 本 研究는 다음의 目的을 추구했다. 1) 農民들의 個人 및 部落別 「커뮤니케이션」 餘件들을 考察하고 2) 家族計劃 및 통일벼에 관하여 전해진 「메시지」의 내용, 쓰여진 전달 通路 및 매체(Channel Medium) 그리고 農民들의 이들에 대한 접촉 및 접근정도의 고찰 3) 農民들의 家族計劃 및 농업 革新(技術)의 受容活動(知識, 態度 및 實踐)記術 4) 「커뮤니케이션」 要因과 이들 革新의 受容活動間에 存在하는 相關度의 發見 5) 家族計劃과 多收穫벼씨를 주로한 農業技術의 受容間의 相互關係 고찰.

Ⅱ. 研究의 方法

京畿道 始興郡 義旺面 왕곡 1리와 청계 1리, 그리고 같은 郡內, 君子面의 신길 1리와 거모2리등 네 부락의 쌀 농부 151명(동거중인 부인의 연령이 可姙期에 속해 있는)과 이들 네 部落에 배치된 農事指導員(Agricultural Extension Worker) 및 家族計劃要員(Family Planning Agent) 各 세명씩이 面接의 對象者 들이었다. 個人面接 이외에 통일벼 및 家族計劃에 關聯된「리프렛」,「팜프렛」, 책자등(주로 農村振興廳과 家族計劃協會에서 발간되고, 指導要員들에 의해 주로 천거 사용된 것들)과 特定期間동안 發行된 日刊新聞 및 週月刊잡지들의 통일벼 및 家族計劃에 관련된 記事內容을 分析檢討했다.

面接은 미리 준비된 面接票에 의해 6명의 面接員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 면접표는 특수한 응답자의 知識, 態度 및 認識 등을 재기위한 知識 및 態度尺度 등과 農民들의 自由로운 意思反應을 위해 상당한 문항을 주관적 해답에 따랐다. 調査對象者 選定은 우선 有目的 票集方法에 의해 京畿道內에서 郡, 面 그리고 부락을 사전에 설정된 준거 틀에 의거 선정하고, 부락내의 해당자 전원을 個別 조사대상자로 삼았다.

特記할 것은 本 研究가 농업관계 質問은 물론 家族計劃관계 質問까지 婦人이 아닌 農家의 家長(男便)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는 家族計劃이 女性들에게 관한 問題가 아니라, 오히려 보다 적극적인 男性들의 參與 및 協助가 있어야한다는 전제아래 이루어졌다. 男便들을 家族計劃研究의 對象으로 하는데는 李海英(1966), 權彝赫과 姜吉遠(1968) 諸氏의 研究들이 좋은 밑받침이 되었다.

Ⅲ. 研究의 結果

本 研究의 結果는 가능한 한 家族計劃의 問題를 重點的으로 다루면서 農業革新의 受容問題도 곁드려 論하고자 한다.

1. 쌀 農夫들의 家族計劃 受容實態

家族計劃이란 말은 全般的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총 151명의 應答者中

96%에 달하는 145명이 家族計劃이란 말을 들어보았다고 답했고, 나머지 6명만이 전혀 모른다고 했다. 應答者들의 家族計劃에 관한 구체적인 知識은

〈表 1〉 農民들의 家族計劃에 관한 知識(%)

	마을				총수	
	신길리	거모리	왕곡리	청계리	빈도	%
가족계획이란 말을 들은 적이 있다	96	97	98	91	145	96
알고 있는 방법의 數 0가지	—	27	43	18	35	23
1가지	12	3	11	21	17	11
2가지	12	15	30	21	30	20
3가지 혹은 이상	79	56	15	39	69	46
피임기구를 구하는 장소 알고 있음	74	76	39	73	110	72
진단 및 임상적 도움을 받는 장소를 알고 있음	100	76	84	85	131	87
알려진 피임방법(응답자 반응에 의거)						
피임약	81	47	52	61	90	59
루우프	68	62	47	48	85	56
정관수술	82	59	47	39	87	57
콘돔	66	44	13	30	56	37
낙태수술	5	18	11	9	16	11
주기법	5	—	2	12	7	5
링	3	—	17	3	10	7
주사법	—	3	—	3	2	1
금욕	3	—	—	3	2	1
정제	—	3	—	—	1	1

〈表 1〉에 나와 있다. 그러나 注目할 것은 農夫들이 家族計劃은 무엇이며 혹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로서 농민들에게 사전 선입견을 주지 않고 그들이 알거나 혹은 생각하고 있는 나름으로의 반응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質問을 던졌다. "가족계획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또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農夫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족계획의 槪念은 「그저 산아제한이다」가,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으로 전 응답수의 46%를 차지하고, 32%가 일종의 적당히, 적은 수의 자녀를 가져 잘 키우고 잘 살려는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12%가 이상적인 가정생활계획, 人口成長의 증가억제책, 식량 및 농업생산과 관련된

〈表 2〉 農夫들이 진술한 家族計劃槪念

가족계획의 개념	마을				반응총수	
	신길리	거모리	왕곡리	청계리	빈도	%
피 임	—	4	2	1	7	6
산 아 제 한	—	—	1	3	8	—
자녀수 조절	12	9	20	11	52	—
적당히 낳아 잘 키우는 것	6	3	33	25	—	—
경제력한도내에서 자녀를 갖는것	17	7	6	3	33	—
자녀수와 그 교육계획	—	—	2	—	2	—
적은수의 자녀가져 잘 살자는것	1	—	—	4	5	—
이상적인 가정생활 계획	5	—	2	4	11	—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농업생산을 높이자는 계획	1	—	—	—	—	1
인구 성장력을 줄인다	—	—	2	1	3	—
모성보건 위해 출산을 줄이는 것	—	—	1	—	1	—
인 공 유 산	—	1	—	—	1	—
금욕하는 것	—	2	—	—	2	—
식량난을 해소하려는 것	—	—	1	—	1	—
기 타	—	1	—	1	2	—
계	38	28	37	28	131	

문제들로서 가족계획의 문제를 보고 있었다. 母性保健을 위해 出產率을 줄인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이다, 하는 등의 반응도 각기 한번씩 언급되었다(表 2 參照).

全應答者의 85%(129명)가 個人的으로 家族計劃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가족계획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經濟的인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약 69%가 적은 수의 자녀를 가져야 그들을 잘 키우고 가르칠 수 있다고 말했다. 30%는 직접적으로 자신 및 가족들의 경제적 安定 및 文化的인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表 3 參照). 농부들이 가족계획의 必要性을 주로 經濟 및 자녀들의 문제를 중심으로 느끼고 있고, 母性의 保健문제는 전혀 言及이 없었던 것은 (만약 이 질문이 미리 어떤 분항을 제시했을 경우라면 상

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그들의 잠재적인 혹은 無意識的인 生活 속에 이 같은 문제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해석되고 있다. 한편 비록 숫자상으로 적은 수 였으나 소위 농민들의 전통적인 자녀관을 역력히 들어내고 있는 진술들이 가족계획을 반대하는 이유로 언급되어 〈表 3〉에 함께 제시하였다.

가족계획 실천율은 농민들이 이를 알고 있는 정도 혹은 찬성하는 정도와는 별도로 훨씬 뒤지고 있었다. 절반도 못 되는 70명만이 조사당시 가족계획에 참여하고 있었다(46%). 이들을 방법별로 보면 피임약이 가장 많은 27명

〈表 3〉 가족계획 찬성 및 반대하는 이유(농민들의 자유로운 진술을 통해)

가족계획 찬성의 이유	언급된 빈도	%
적당수의 자녀를 낳아 잘 기르려고	46	42.5
자녀들의 장래 및 교육을 위해	20	18.4
경제적 안정을 얻기 위해	33	30.5
국가 발전을 위해	4	3.7
집안의 잡일을 덜기 위해	2	1.8
인간 하나 하나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2	1.8
피임이 가능하기에	1	1.3
총 수	108	100.0
가족계획 반대의 이유		
자식들은 한 가족의 귀한 자산이다	1	
자녀가 많을수록 행복한 가정이다	1	
많은 자식속에서 천재가 나온다	1	
자식이 있으면 가정 파탄을 막을 수 있다	1	
자식은 누구나 다 제 복을 타고 난다	1	
자식은 운에 태인 것이다	1	
아들이 많아야 가문이 끊길 염려가 없다	1	
자식이 많으면 부모들의 노후가 걱정이 없다	1	
산아제한은 죄악이다	1	
후손을 많이 두어야 하니까	1	
아직 아이들이 필요하다	2	
총 수	12	

(38%)을 차지하고 정관수술이 14명(20%), 난관결찰수술이 4명 (5.7%) 그밖에 12명(17%)이 IUD를 삽입, 10명(14%)이 콘돔, 그리고 나머지 3명이 먹는 避姙藥, 「링」, 주사등 기타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가족계획을 실천하고 있지 않던 사람가운데 35명이 그 이유를 들고 있는데 16명이 자녀를 더 원하고 있었고, 8명은 아직 자식이 없었으며, 5명은 출산직전 혹은 직후, 3명은 아무런 피임법을 몰랐다고 답했다. 다른 이유로는 가족계획이 죄가 된다고 했고 부작용을 염려한다고 했다.

가족계획 방법을 바꾸거나 새로 택한 이유를 보면, 사용이 간편하고 효과적이거나 부작용, 혹은 몸에 이상이 없다는데서 새로운 방법을 택하는 율이 가장 많았고, 중단하는 이유로는 소화불량, 출혈, 건강 및 신체조건 등 주로 부작용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家族計劃近代化에 대한 農民들의 態度는 준비된 태도척도에 의해서 측정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적은 수의 자녀를 希望하고 가족계획을 찬성한다는 등에서 近代化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들을 원하는 점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表 4〉에 나타난 것처럼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자녀의 수는 運에 달려있다는데 반대의 뜻을 보였고, 단지 40% 만이 아들이 많은 집은 축복받은 가정이라는데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오직 23% 만이 가족계획 문제를 부부간에 상의하는 것이 쑥스럽다고 말하고 있고, 70%는 전혀 이에 반대했다. 적은수의 자녀 및 가족계획의 필요성은 상당한 정도로 이를 절감하고 있는 편으로 특히 76%는 자녀수가 적으면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돈만 많으면 가족계획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고 한 문항에 대해 약 66%가 반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강한 욕망을 보여 거의 90%에 달하는(135명) 응답자들이 한 가족은 적어도 아들 하나는 꼭 있어야 한다는데 찬성하고 있으며 대다수가(59%) 두 자녀운동을 반대하고 있었다. 특히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자녀의 배합에서도 아들에 대한 편견은 잘 나타나고 있는데 (表 5 參照), 절반이 넘는 64%가 딸보다 많은 수의 아들을 원했고, 오직 1.3%(두명)만이 딸을 아들보다 더 가지기를 원했다. 덧붙여 전체 응답자의 44% 가 아들 둘, 딸 하나를 이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아들 하나

〈表 4〉 家族計劃近代化에 대한 농민의 태도

문 항		반응 (1) 찬성	(2) 중립	(3) 반대
근대화 정도				
※한 가족의 자녀수는 운에 달려 있다	빈도	65	16	70
	%	(43)	(10)	(47)
가족계획을 부부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빈도	34	12	105
쑥스러운 일이다	%	(23)	(7)	(70)
※아들이 많은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이다	빈도	61	33	57
	%	(40)	(22)	(38)
※아이들은 한 가정의 자산이다	빈도	92	13	46
	%	(61)	(9)	(30)
평 균				1.95
적은수의 가족 희망도				
자녀수가 적으면 생활 수준을 높일수 있다	빈도	114	17	20
	%	(76)	(11)	(13)
※자녀가 많으면 늙어서 의지할 곳이 많아	빈도	54	21	76
좋다	%	(36)	(14)	(50)
평 균				1.61
아들을 원하는 정도				
※한 가족은 적어도 대를 이을 아들 하나는	빈도	135	4	12
있어야 한다	%	(89)	(8)	(8)
아들딸 구별없이 둘만 갖는 것이 한국인	빈도	45	17	89
에게 이상적이다	%	(30)	(11)	(59)
평 균				2.55
가족계획 찬성도				
※돈 많은 사람은 가족계획이 필요치 않다	빈도	40	11	100
	%	(27)	(7)	(66)
가족계획에 적당한 방법이 아직 없어	빈도	30	43	78
보인다	%	(20)	(28)	(52)
인공유산은 가족계획을 위한 최선의	빈도	34	16	101
방법 중 하나다	%	(22)	(11)	(67)
산아제한은 종교적으로 죄가 된다	빈도	56	21	74
	%	(37)	(14)	(49)
평 균				1.84

※이 문항의 응답은 점수가 역산됨

〈表 5〉 이상적인 자녀수 및 그 배합

	마을								총수	
	신길리		거모리		왕곡리		청계리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理想的인 자녀수										
%	—	—	—	—	—	—	—	—	0	0
1 명	—	—	—	—	—	—	—	—	0	0
2 명	4	10	5	15	6	13	4	12	19	12
3 명	17	45	14	41	24	52	15	45	70	47
4 명	14	37	11	32	7	17	3	9	36	24
5 명	3	8	3	9	5	11	10	30	21	14
6명 또는 그 이상	—	—	—	—	3	6	2	3	5	3
평 균									3.36	
이상적인 자녀의 배합										
아들 1명—딸 1명	4	10	4	12	4	9	4	12	16	17
아들 2명—딸 1명	16	42	13	38	23	50	15	45	67	44
아들 2명—딸 2명	14	37	9	27	5	11	3	9	32	21
아들 3명—딸 2명	3	8	3	9	5	11	8	24	19	13
아들 3명—딸 1명	—	—	1	3	2	4	—	—	3	2
아들 1명—딸 2명	—	—	1	3	1	2	—	—	2	1.3
아들 2명	1	3	1	3	1	2	—	—	3	2
아들 3명	—	—	—	—	1	2	—	—	1	0.6
아들 3명—딸 3명	—	—	1	3	2	4	—	—	3	2
아들 4명—딸 1명	—	—	—	—	—	—	2	6	2	1.3
아들 4명—딸 2명	—	—	—	—	—	—	1	3	1	0.6
아들 5명—딸 5명	—	—	—	—	1	2	—	—	1	0.6
구별없이	—	—	1	3	—	—	—	—	1	0.6

딸 하나가 17%, 아들 셋 딸 둘이 13%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족계획 근대화에 대한 대도척도에서 또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22%란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족계획 최선의 방법이라고 대답 했었는데, 역시 상당수(37%)가 산아제한 혹은 피임을 죄가 된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아직도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혼돈하고 있는 농부들이 많음을 지적해 주고있었다.

2. 農民들의 「커뮤니케이션」活動

본장에서는 가족계획과 관련 어떠한 內容의 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 農民들에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論하고자 한다.

1) 家族計劃의 槪念 및 必要性 :

家族計劃要員들과 이들을 통해 배부 혹은 소개되고 있는 유인물이나 책자, 그리고 日刊新聞, 週刊 및 月刊잡지에 게재된 가족계획 관계 記事의 內容을 분석한 결과 많은 類似點 혹은 相異點이 눈에 띄었다. 첫째 家族計劃이 무엇이냐 하는 점에서 要員들 혹은 유인물과 책자의 경우, "가족계획은 적당한 수의 자녀를 알맞는 터울로 낳아 건강한 산모와 어린이를 가져 잘 키우고 가르치는 계획"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특히 일부의 책자에선 3.3.35운동(3명의 자녀를 3살 터울로 어머니나이 35살 이전에 낳자), 혹은 2.2.30운동(두명의 자녀를 두살 터울로 어머니나이 30살 이전에 다 낳자)을 強調, 보다 구체적인 接近 및 參與의 方法을 提示하고 있었다. 한편 일반 新聞 및 잡지의 경우 가족계획을 두자녀 갖기 운동과 거의同一視하고 있었다. 家族計劃의 必要性에 언급, 가족계획 要員들 가운데 君子面의 경우 "가족계획은 모든 어린이에게 고루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해줄 뿐아니라 부모들 자신을 위해서도 보다 많은 자기 시간을 가져 자아 實現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데 반해, 義旺面의 경우, 가족계획은 가정경제력과 자녀교육, 모자건강증진, 그리고 농가의 일손을 덜게 한다는 점 등으로 설득하고 있었다. 君子面의 경우 "가족계획을 국가경제, 人口증가 등 거국적인 문제"를 들어 설득하려면 전혀 귀를 귀울이려 하지 않는다는 말은 상당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었다. 대다수 관련책자들은 家族計劃의 意義 및 必要性도 다루고 있으나 그 內容의 상당량이 가족계획 참여의 방법, 사용 및 주의할 점 등을 서술하고 있었으며, 거의 그 내용이 판에 박은듯 같은 것을 서로 다른 표제아래 싣고 있는 것도 있었다(例 10개의 분석된 책자중 네권 이상이 같은 방법에 대한 똑같은 설명을 싣고 있었음), 책자에 소개된 방법으로는 모두 13종류, 그 가운데 피임약, 루우프, 콘돔, 정관수술 및 난관결찰 수술은 주로 장점을 들어 설명했고, 기초체온법(BBT), 정제, 다이아프램, 세척법, 젤리, 인공유산 등은 단점을 주로 많이 소개하고 있었다. 가능한 혹은 예기되는 부작용등이 아울러

언급되고 있었으나 소위 정관수술등 심리적불안 및 일종의 두려움조차 일게하는 方法의 경우를 위하여 독자들이 어떤 안심을 갖게끔 실제 체험기등 소위 「레지티메이션」 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비교적 적었다. 新聞 잡지의 경우, 家族計劃 사업의 문제점 및 人口成長率의 억제를 위한 遠視眼적인 解決策 등이 주로 거론 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人工임신중절수술의 합법화나 두자녀갖기 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社會 文化的 제반 慣例 혹은 法規의 改·制定도 促求하고 있었다. 新聞들이 가장 흥미를 보이고 많이 다룬 方法으로는 피임약과 정관절제수술, 그리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양성화 내지는 합법화였다.

가족계획要員과 유인물 및 책자, 그리고 新聞 혹은 잡지등 세개의 서로 다른 매체를 통한 전달내용을 비교할 때 현저히 눈에 뜨이는 것은, 가장 측근에서 농민들과 접촉하는 要員들의 見解는 아직도 한국 家族計劃事業初創期의 槪念을 그대로 傳達하고, 책이나 유인물은 中間的단계, 그리고 一般新聞 및 잡지등은 最新의 見解를 지니고 있어 이 三者間에 상당한 정도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어 再考가 절실히 要望되고 있었다.

2) 農民들의 일반 「매스·미디어」 접촉도 및 家族計劃活動 참여도

우선 農民들이 어떤 경로 혹은 매체를 통하여 가족계획에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를 듣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접근 방법을 使用하였다. 첫째가 特定 가족계획 프로그람과는 관계없는 일반「매스·미디어」와의 접촉정도, 둘째가 가족계획 요원을 중심으로 農民들을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정보활동에의 접촉도, 그리고 이같은 계획된 활동과는 별도로 일상생활에서 누구 누구와 가족계획문제를 이야기해 보고, 또 하고 있는가 하는 非型式的 對話의 정도(빈도 및 그 대상범위) 등이다.

「매스·미디어」의 소유 및 구독율:

全體 應答者의 96%(145명)가 적어도 一臺 이상의 「라디오」(「트랜지스터」 포함)를 소유하고 있으며 17%(25명)가 日刊紙를 구독하고, 6%(10명)가 한가지 이상의 月刊誌를 정기 구독, 오직 3%(4명)가 집에 TV셋트를 가지고 있었다. 주간잡지를 정기구독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매스·미디어」 소유 혹은 정기 구독과는 별도로 이들의 「매스·미디어」에의 接近度는 〈表 6〉에 나타나 있다.

〈表 6〉 農民들의 일반 매스·미디어 접촉도

매스·미디어 접촉 정도	마 을				총 수	
	신길리	거모리	왕곡리	청계리	빈도	%
라디오 방송 청취	97	97	86	91	145	96
거의 매일					111	74
주 한 두번					26	17
월 한 두차례					4	3
가 끔					4	3
TV 시청	50	38	30	27	51	34
거의 매일					6	4
주 한 두번					30	20
월 한 두차례					13	9
가 끔					2	1
日刊新聞 읽기	50	50	61	73	89	59
거의 매일					27	18
주 한 두번					33	22
월 한 두차례					25	17
가 끔					2	1
週刊誌 읽기	24	9	26	33	34	23
거의 매주					10	7
월 한 두번					16	11
년 몇번					5	3
가 끔					3	2
月刊誌 읽기	53	18	22	39	54	35
영화 관람					85	56.9

ㅆ, 농부들의 家族計劃관계 情報活動에의 접근도 :

가족계획과 같은發展「푸로그램」에서 어떤경로(Channel)를 통해 의사를 나누고 情報를 전파할 것이냐 결정짓는데는 의도한 청중 혹은 이를 필요로 하는 예상 수용자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쉽게 접근하는 통로(Channel)를 택해야 할 것이다. 그 길이 보다 많은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本 연구에서는 이런 의도하에서 과연 농부들이 어떤 통로 혹은 매체를 통해 家族計劃 및 통일벼에 관한 것을 보고 듣고 읽고 있는가, 그 정도에 따라 직접 등급을 짓도록하고 이를 다시 통로간에 비교하여 그 등위를 얻었다.

〈表 7〉 農民들의 농사 및 가족계획에 관한 통로별 정보 접촉도의 비교

전달통로	가족계획에 관한		농사에 관한		등위차
	표준점수	등위	표준점수	등위	
라디오	2.35	1	3.5	1	0
텔레비죤	1.07	12	1.2	11.5	25
영화및스라이드	1.15	10	1.36	10	0
일간신문	1.38	6	1.68	7	1
주간잡지	1.21	9	1.20	11.5	6.25
월간잡지	1.30	8	1.50	9	1
전시회	1.03	13	1.1	13	0
시범크리닉	1.08	11	1.66	8	9
포스터	1.84	2	2.18	4	4
책자(유인물)	1.36	7	1.74	6	1
집회	1.62	3	2.33	2	1
강연	1.49	5	1.88	5	0
要員방문	1.57	4	2.24	3	1
Rho					.93※

※ —P〈.001

〈表 7〉을 참고삼아 농사문제에 관한 것과 나란히 비교해 보았다. 〈表 7〉에 나타난 것처럼 「라디오」는 가족계획 및 농사문제에 있어 가장 농민들이 많이 접근하는 매체이며 가족계획에 관련 하여서는 「포스터」, 집회, 그리고 要員들의 訪問의 순으로 되어 있다. 가장 접촉이 적은 혹은 가장 덜 활용된 것으로는 전시회, TV, 시범「클리닉」, 영화 및 「스라이드」 등이었다. 한편 주민들은 가족계획 및 농사문제에 관련 거의 같은 정도로 서로 다른 통로에 접근하고 있음이 주목되었다. 農民들의 이같은 통로 및 매체에의 접근정도는 네 마을간에 有意味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그들의 정보원 및 통로가 한정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네 부락의 정부요원들(농사 및 가족계획 요원)의 정보活動이 유사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한다.

應答者들의 家族計劃 관계 위인물(혹은 책자)을 읽은 정도를 보면, 오직 32%(49명)만이 읽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고 있는데, 책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는 "가족계획"이 2명, "가정의 벗"과 "가정생활백과"가 각각 한

사람씩 언급되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그 출처 및 책이름을 기억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프린트물 읽는 態度에 있어서는 44%(22명)가 내용을 완전히 통독했다고 말하고, 다른 40%가 부분적으로, 그리고 나머지가 제목이나 큰 글자들만 읽었다고 답하여, 자료만 손에 닿게되면 열심히 읽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家族計劃要員과의 접촉 :

指導要員들이 가족계획 사업 등 계획된 사업에 있어서 주축이 되고 있음은 再論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앞에도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요원과의 접촉문제는 농민들의 농사 및 가족계획문제와 접촉하는 가장 빈번한 통로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었다. 그러나 응답자들이 指導要員들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나 접촉 정도는 서로 다를 것으로 추측,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응답자의 97%가 農事指導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한데 비해 81%만이 家族計劃要員에 대해 들었다고 답했고, 95%가 農事指導員을 보았거나 만났다는데 비해 62%만이 家族計劃要員을 봤거나 만났다. 특히 지난 3個月間 "이들과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가"라는데 대해 단지 20%만이 家族計劃要員과 이야기했다고 밝혔다(農事指導員과는 78%). 재미있는 것은, 가족계획요원과 이야기한 내용으로, 오직 33%만이 家族計劃方法 等에 관한 것들이었고, 나머지는 인사 정도가 22%, 일상생활에 관한 것이22% 그리고 아동 교육문제가 22% 等 일반적인 화제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농사지도원과는 56%가 農事일에 관한 것들이었다는 점과 좋은 對照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는 韓國의 가족계획 사업은 家庭主婦들을 重要對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비록 家族計劃要員들이 戶別방문을 해 온 적이 있더라도 戶主인 男性들과는 적당한 인사를 주고 받는데 그쳤고 家族計劃의 問題를 論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는 事實을 보여 주는 것으로 解釋되고 있다.

家族計劃問題에 대한 非型式的 對話에의 參與度 :

「마샬」(Marshall)은 印度의 예에서 이야기의 話題(Topic)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얘기가 한 마을안에서 전해지는 경로 및 速度가 다르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비슷한 立場에서 그러나 약간 다른 側面에서 個人들이 어떤 사람들과 가족계획 및 농사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알아보았다. 家族計

〈表 8〉 指導要員들에 대한 知識 및 접촉도

	가족계획요원		농사지도원	
	빈도	%	빈도	%
지도요원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124	81	146	97
알고 있는 정도				
얼굴만을 기억한다	50	33	36	23
이름도 알고 있다	24	16	83	55
하는 일도 알고 있다	92	60	143	94
지도요원들을 보거나 만난적이 있다	94	62	144	95
지난 3個월 이내에 함께 이야기한 적 있다	31	20	119	78
이야기한 빈도				
FPA (AEW)				
1—3번 (1—5번)	17	11	58	38
4—7번 (6—11번)	9	6	14	9
8번(12 또는 이상)	5	3	47	31
이 기간중 지도원과 이야기하게 된 계기				
우 연 히	1	3	29	20
지도원의 가정방문	22	67	51	35
지도원을 찾아가	7	21	50	34
집회에서	3	9	16	11
화제의 내용				
인사 정도	14	23	50	22
일상 생활	13	22	40	18
아동 교육	13	22	10	4
농 사 일	20	33	124	56

劃의 경우 婦人과는 86% 이상이, 그리고 男性 친구와 男性 이웃들과는 각각 66%와 50%가 이야기를 나눈다고 말하고 있을뿐, 그 나머지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지도요원이나 女性 이웃 및 女性 친구들과는 극히 적은 수가 이야기를 나눈다고 답했다(各 30% 미만). 반면 農事문제의 경우 비교적 女性이웃 혹은 女性친구들과도 자유로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個人別로 이 非型式的 對話에의 參與度는 상당한 차이(指數가 0에서 부터 14까지)를 보이고 있으며, 部落別로도 신길리와 왕곡리, 청계리 사이에는 有意味한(P<05) 차이를 보였

다(신길리 부락민들이 왕곡리나 청계리 부락민보다 훨씬 넓은 범주의 사람들과 가족계획문제를 討議함).

家族計劃의 最初 및 영향력있는 情報源 :

보다 對人的인 情報源들이 農民들의 家族計劃最初의 情報源으로(67%), 그리고 가장 영향력있는 情報源으로(87%) 言及되었다(表 9參照). 특히 最初의 情報源으로 家族計劃要員이 전체應答數의 41%, 「라디오」가 27%, 이웃 친구, 친척이 17%, 里·班長이 9% 등등으로 되어 있다. 이 결과는 「라디오」가 가족계획 정보원으로 농촌지역의 으뜸으로 나타난 이전의 연구결과(김용한 : 1972, 권이혁外 : 1967)와는 서로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대조를 이루고, 아시아지역의 다른 연구들(팔머 : 1968, 카스틸리오 : 1971, 헬리시아노 : 1966)과는 부합하고 있다. 더구나 농업문제 특히 통일벼의 정보원 역시 42%가 농사 지도원으로부터, 그다음 24%가 「라디오」에서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 가족계획 문제에 있어서와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決定단계에 있어서의 가장 영향력을 준 情報源으로, 家族計劃要員들과 이웃·친지·친척의 언급이 늘어나고 있으며 「라디오」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은 주목할 점이다.

한편 이들 情報源들은 대체적으로 농민들에게 신빙성있게 여겨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가장 많이 언급이 된 指導要員과 라디오 등이 다른 情報源들보다 전문적이고, 새롭고, 과학적이고, 실용적이며, 믿을만하다고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이웃 里·班長 혹은 어머니회장 등의 가족

〈表 9〉 家族計劃 및 통일벼의 最初 및 영향력있는 情報源

구 분	家族計劃 정보원				통일벼 정보원			
	最初의		영향력있는		最初의		영향력있는	
	f	%	f	%	f	%	f	%
라 디 오	38	27	7	13	37	24	4	8
日 刊 신 문	3	2	—	—	5	4	—	—
잡 지 및 책 자	5	4	—	—	1	1	—	—
지 도 요 원	58	41	28	55	64	42	37	71
이웃, 친구, 친척	24	17	12	24	23	16	—	—
里 반 장	13	9	4	8	20	13	6	11
새마을 지도자	—	—	—	—	—	—	5	10

계획에 대한 知識은 전문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 아니라는 평을 보였다.

家族計劃의 意見指導者 :

最初의 혹은 영향력있는 情報源과 달리 어느 누구가 家族計劃에 관한 문제의 의논대상이 되어주고 있느냐를 알기위해 意見指導者를 찾아보게 되었다. 全응답자의 37%가 그들의 부인을 가족계획 문제 의견 지도자라고 답하고 있었고 다른 26%는 전문가(소위 가족계획 요원을 포함한 의사 및 보건소원)를 그리고 32%트가 이웃·친척·친구를 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意見指導者들이 가지고 있는 地位를 보면 40%가 指導要員이니(21%), 마을지도자(10%) 自願지도자(8%) 임을 알 수 있고 나머지 60%가 별다른 직책을 가지지 않은 평범한 농부 혹은 그 부인들이었다. 이는 농사문제에 관하여, 73%가 農事指導員(33%), 마을지도자(25%), 자원지도자(10%)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는 것에 비해, 아직도 가족계획문제를 전문인들과 해결하려는 경향이 비전문인들 사이에서 해결하려는 경향보다 큼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表 10 參照).

意見指導要員의 경우, 家族計劃 및 農事문제 모두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의견을 얻으려 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것으로, 각 마을별로 의견지도자의 필요성 및 그 자질의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다.

家族計劃에 관한 意思決定 :

韓國農村의 家長들이 상당한 정도로 家族計劃에 관계된 意思決定에 참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家族計劃을 당시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나 혹은 사용한 적이 있던 사람 85명 가운데 51%가 그 결정을 本人이 주로했다고 말했고 26%는 夫人과 함께, 나머지 23%는 夫人 혼자서 결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종전 부부간의 가족계획관계 協議 및 의사결정 사항을 알아본(李海英 : 1966, 김용한 : 1972) 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특히 男便들의 참여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다른 의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같은 응답이 男便을 대상으로 얻어진 것이므로, 그들의 소위 체면상 할 수 있는 응답을 감안하더라도 韓國男性들의 家族計劃受容에 있어, 무시하지 못할 重要性을 示唆하는 것으로 한국 家族計劃사업의 方向을 指示해 주고 있다.

〈表 10〉 家族計劃 및 농사문제의 意見指導者

	家族計劃		농사문제	
	빈도	%	빈도	%
性別				
男	36	44	127	99
女	46	56	1	1
연령				
20—29	9	11	5	3
30—39	38	34	60	47
40—49	31	38	46	36
50—59	14	14	16	12
60 혹은 이상	—	—	2	2
응답자와의 관계				
이웃	6	7	38	30
친구	13	15	19	15
친척	8	10	17	13
마을 지도자	4	5	17	13
전문가	21	26	36	28
부인	30	37	1	1
직책				
지도요원	17	21	46	38
마을지도자	8	10	32	25
자원지도자	7	8	13	10
없음	50	60	34	27
거주관계				
같은 마을	67	82	106	83
이웃 마을	2	2	18	15
다른 지역	13	16	4	2

3. 假設의 檢證

人間態度의 近代化 혹은 近代的인 態度는 經濟成長은 물론 政治, 社會, 文化등 諸般 改革의 先行條件으로 最近 그 重要性이 날로 認知되어 가고있다. 한편 「매스·미디어」의 人間生活 全般에 미치는 영향력은 마력의 힘(로져스: 1967)이라고까지 불리고 있어 이들이 人間態度의 近代化 및 改革에 주는 영향이 주목을 끌게 되었다. 따라서 本硏究에서는 유독 家族計劃 내지는 農事문제

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매스·미디어」全般에의 접촉이 많은 사람일수록 家族計劃이나 農事문제에 대한 態度 역시 보다 近代的일 것이며 이 後者는 근대화된 家族計劃 및 農事기술의 受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 다음과 같은 假說을 수립했다.

〈表 11〉 매스·미디어 접촉도 敎育程度 및 年齡 및 근대화 態度(%)

	敎育程度					
	초등교육이하			中等敎育이상		
	매스·미디어 접촉도					
	높다	중간	낮다	높다	중간	낮다
가족계획근대화에 대한 태도						
호의적	70	49	42	91	89	29
중립	8	5	10	4.5	11	4
비호의적	22	46	48	4.5	—	57
X^2		6.15			16.82	
df		4			4	
C		.22			.54	
Level of sig.		n.s			.001	
농사근대화에 대한 태도						
보다 호의적	70	59	55	70	89	14
약간 호의적	30	41	45	30	11	86
X^2		1.37			10.25	
df		2			2	
C		.11			.45	
意義度		n.s			.01	

	年齡					
	93세 이하			40세 이상		
	매스·미디어 접촉도					
	높다	중간	낮다	높다	중간	낮다
가족계획 근대화에 대한 태도						
호의적	80	67	30	80	46	45
중립	6	8	13	10	4	3
비호의적	14	25	57	10	50	52
X^2		15.64			5.98	
df		4			4	
C		.39			.28	
Level of sig		.01			n.s	

假說 1. 一般的인 「매스·미디어」 접촉도가 높은 農民들은, 家族計劃 및 農事近代化에 대한 態度보다 호의적일 것이다.

다음의 〈表 1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카이—스퀘어」 검증결과 農民들의 일반적인 「매스·미디어」 접촉도는 近代的인 家族計劃態度(P<.01)와 農業近代化態度(P<.05)와 긍정적으로 相關되어 있음이 검증되었다. 有關係値(C)는 이들의 相關程度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매스·미디어」의 접촉도가 年齡 및 教育程度와 相關되고 있어, 「매스·미디어」 접촉도, 근대화 태도와 연령 및 교육등 三要因간에 「카이·스퀘어」를 檢證하였다. 그 결과, 연령 및 教育程度가 「매스·미디어」의 접촉도와 家族計劃 및 農業近代化態度間의 相關관계에 意義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다시 말해서, 教育정도가 높은 사람들(中等教育以上) 중에서 「매스·미디어」에 보다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일수록 보다 가족계획에 관해 近代的인 態度를 가지고 있었고 국민학교 혹은 그 미만의 교육을 받은 農民들 가운데서는 이들의 家族計劃 및 농사문제에 대한 態度와 「매스·미디어」 접촉도 사이에 별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年齡 문제에 있어서는, 젊은층(39세 이하)에서만 「매스·미디어」 접촉도와 가족계획 및 농업 近代化 태도간에 적극적인 相關관계가 관측되었다.

假說 2. 家族計劃 및 農事關係 活動 및 전달매체에 자주 접하는 農民들 일수록 各 革新에 관한 많은 知識, 好意的인 態度 및 보다 높은 受容 경향을 보일 것이다.

現 硏究에서 各種 정보활동 및 전달매체에의 접근이라 함은 主로 指導要員들이 관련된 革新의 전파(Diffusion)를 위해 活用하고 있는 情報政策(Channel)들로서 크게 나누어 유인물, 集團情報活動(Group Communication Channels)및 指導要員과의 個別 접촉으로 區分된다(表 12參照).

〈表 12〉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家族計劃의 知識 및 態度, 實踐이 指導要員과의 접촉 내지는 그들에 대한 知識정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 意義度역시 상당히 높음은 家族計劃受容에 있어서 家族計劃要員의 역할이 重要함을 示唆하고 있다. 다음으로 강연회 참석은 知識 및 受容에, 포스터에의 접촉은 가족계획의 知識을, 그리고 유인물을 읽은 사람일수록 가족계획에 호감을 가지고 실천하는 경향을 띄고 있음이 注目 되었다.

<表 12> 커뮤니케이션 要因과 家族計劃 및 통일벼 受容의 相關度

	가의족계지획식	근가에태대족도화계대된획한	가실족천계획	통지일식벼의	통대일한벼태에도	농화한업에근태대대도	통용일벼수	다기른술농수용업
최초의 정보원	3.40	1.84	3.00	9.62+	7.51	—	11.91+	
영향력있는 정보원	—	—	90	—	—	—	10.30+	
지도원에대한 지식	18.37+++	10.98++	13.51+++	13.89+++	—	19	2.04	
지도원과의 접촉	31.30+++	12.55++	11.31+++	7.45++	.27	2.52	1.97	
유인물과의 접촉	—	13.88+	7.41++	—	8.41	—	4.86+	
포스터와의 접촉	12.72++	3.26	2.94	3.30	10.03	—	6.30°	
강연회 참석	19.93+++	3.11	13.37++	7.63	4.91	—	5.61	
집회 참여	1.88	12.09+	5.21°	6.40°	8.02	—	3.22	
시범단지 견학	—	—	—	9.31+	5.05	—	2.52	

○—P<.10 +—P<.05 ++—P<.01 + ++—P<.001 — 자료없음

家族計劃에서와 달리, 통일벼에 대한 知識이나 태도, 受容에 있어서는 情報源 指導員에 대한 知識 정도및 접촉등이 통일벼의 수용(Planting)이나 知識에 有意味한 關係를 보였고, 유인물은 통일벼를 심는데, 집회나 시범단지 견학은 통일벼에 대한 知識을 넓히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結果를 통해 통일벼가 1972년 당시 주로 농사지도원들의 권고 및 독려로 심어 졌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는것 같았으며 農事指導員과의 접촉이 통일벼에 대한 知識을 넓혀주는데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그 첫째로는 家族計劃에서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통일의 선택이 농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었다면, 지도요원과의 보다 잦은 접촉을 갖는 사람이면 역시 이 벼의 受容率도 늘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는 假定이다. 둘째로, 農事지도요원과의 접촉이 통일벼 이외의 다른 농업기술의 수용, 혹은 농사 근대화에 대한 농민들의 태도, 통일벼 이외의 다른 볍씨 채택등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었다는 점으로, 이는 農事指導員들이 통일벼 보급사업에는 적극성을 보였으나 다른 농사지도에는 별로 공헌을 못하고 있었을 것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통일벼에 대한 集會 및 시범단지 견학등은 최소한 통일벼에 대한 知識을 넓히는데 공헌했다는 점으로 보아 계속 권장할 방법으로 추천되어야 할 것이다.

한가지 특이 할 사항은 통일벼에 관한 유인물과 통일벼의 수용과의 상관도에서 교육정도가 낮은 집단속에서만 통일벼를 심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유인물을 읽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이는 家族計劃의 경우 젊고 학력이 높은사람들일수록 유인물을 읽는 빈도와 가족계획 실천율과 사이에 정적인 상관도를 보인점과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같은 事實은 보다 教育정도가 낮은 사람들의 경우 다른 매체나 情報源 혹은 인쇄물과의 접촉이 거의 제한되어 있어 主로 통일벼 團地를 中心으로 배부된 유인물을 열독 할 수 있었을 것이란 해석을 얻게 한다.

假說 3. 家族計劃이나 農事에 대해 보다 廣範圍한 사람들과 對話를 나누는 사람들일수록 이들 革新에 대하여 보다 近代的인 態度를 가지는 경향이 있을 것이며 또한 주민들의 새로운 革新에 대한 非型式的 對話에의 참여도는 한 마을에서의 이들 革新의 전파에 영향을 줄 것이다.

다음의 〈表 13〉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정도 비슷한 경향은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별로 有意롭지는 못하였다 (表 13參照).

家族計劃에 대한 話題의 경우, 보다 높은 정도로 환담에 참여한 64명중에서 66%트가 가족계획 근대화 태도에 보다 호의적 반응을, 28%는 반대의, 나머지 6%가 중립적 반응을 보인데 비해, 낮은 정도로 비형식적 對話 참여도를 보인 87명 가운데는 52%가 호의적, 41%가 비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表 13>非型式的인 對話에의 참여도 및 근대화에 대한 태도

	비형식적인 대화 참여도								
	높다		낮다		X^2	df	Level of sig.
	빈도	%	빈도	%			
가족계획 근대화에 대한 태도							
호 의 적	42	66	45	52			
중 립	4	6	6	7	3.06	2	n.s
비호의적	18	28	36	41			
농사근대화에 대한 태도							
보다 호의적	43	65	44	56	1.14	1	n.s
덜 호의적	23	35	56	44			

비슷한 경향이 農事에 관한 비형식적인 對話에서도 목격되었다.

한편, 마을內에서의 혁신정보의 전파문제를 고찰하기 위해, 마을별 가족계획및 통일벼에 관한 知識指數 및 同 革新에 대한 非型式的인 對話에의 참여 指數가 비교 검토되었다. 그 결과, 통일벼에 대한 知識이 다른 마을에 비해 비교적 높은 청계리의 경우 마을사람들의 농사문제에 대한 이야기상대의 범위가 다른 마을에 비해 개방적이었고, 반대로 가족계획에 관한 知識이 높은 신길리의 경우 주민들의 家族計劃에 대한 비형식적인 환담지수가 다른 마을보다 컸다. 더욱이 신길리와 거모리의 경우, 가족계획에 대한 知識정도나 비형식적인 대화에의 참여지수가 모두 의왕면의 두 마을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家族計劃과 같이 특히 私的인 문제가 介入되는 화제의 경우 다른 性과, 다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 間에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가 그 個人의 當 화제에 대한 근대적 태도 여부와 관련되어 있음이 그 윤곽을 드러 냈다고 보겠다.

假說 4. 家族計劃을 受容한 사람일수록 다수확 볍씨를 받아들이고 반대로 다수확 볍씨를 받아들이는 사람가운데 가족계획 실천자가 많을 것이다.

「세레니아」(Cerenea外 : 1971)는 매일 매일의 生産活動에서의 근대화된 기술과의 접촉은 농민들의 보수적인 태도를 잠식, 새로운 기술 혁신에 대한 흥미를 강하게 불어넣고 있다고 그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마찬가지로 만일 농부들이 家族計劃을 그들의 生産程度를 改善하는데 꼭 필요한 수단으로 느끼고 새로운 볍씨가 수확고를 올려줄 것이라 깨닫게 될 경우, 家族計劃을 받아들인 농부들이면 새로운 볍씨도 아울러 받아들일 것이라는 假定을 하게 된 것이다, 假說 4를 檢證하기 위해 家族計劃에 대한 知識, 態度및 受容率과 통일에 대한 知識, 태도및 受容, 그리고 통일의 受容이 특정團地에 한정되었다는 點을 감안하여 改良 볍씨의 수용및 농사근대화에 대한 태도 등과의 상관도를 알아 보았다.

그 結果, 家族計劃 近代化에 대한 태도, 農事近代에 대한 태도에, 그리고 家族計劃受容과 改良種 볍씨의 受容사이에 서로 意義있는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表 14參照).

비록 가족계획수용과 통일벼수용 사이에는 직접적인 의미있는 상관이 없었으나 이는 두 사업이 택하고 있는 정책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

<表 14> 家族計劃受容과 농업革新의 受容(%)

	態度						
	가족계획 근대화에 대한 태도						
	호의적	중립	비호의적	X^2	df	C	Level of sig
농사근대화에 대한 태도							
보다 호의적	67	60	43	7.94	2	.22+	.02
덜 호의적	33	40	57				
	受容						
	가족계획 수용						
	비사용자	중단자	사용자				
改良볍씨의 受容							
추천된 개량볍씨	45	63	76	6.49	2	.22	.05
재 래 종	55	37	24				

다. 명백한 것은 가족계획에 있어 近代化된 사람은 農事문제에도 비교적 近代化되어있고, 아울러 이들은 家族計劃뿐 아니라 農事에 있어서도 보다 새로운 볍씨를 받아들이는 革新的 경향을 보인 것으로 앞으로의 보다 깊은 연구의 必要性을 제시하고 있다.

4. 農民들의 家族計劃 및 통일벼보급 사업의 관련성 인식도

農夫들은 家族計劃과 통일벼의 수용에서 비슷한 간접적 효과를 얻으려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이 둘은 경제적 安定및 보다 나은 자녀교육(양육포함)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이는 家族計劃의 必要性에서와 통일벼의 필요성에 잘 나타나고 있었다. 더욱이, 농민들은 家族計劃과 多收穫 볍씨를 통한 농업생산의 증가는 相互補完的 관계에 있다고 認識하고 있었다. 이는 1970년에 比한 71년의 生活정도및 수확량의 증감을 묻는 質問에의 응답에서 잘 나타난 것으로 全體의 44%가 전년도와 비슷하고, 12%가 나빠졌고 42%가 나아졌다고 했는데, 특히 못하다 혹은 비슷하다는 응답자들 가운데 그 이유가 대체로 농산물 생산량이 늘었으나 소비성도 그만큼 늘었다는 것, 특히 가족

수의 증가, 자녀의 양육비및 教育費의 앙등등이 주요한 이유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쌀 수확고가 낮았다는 응답자中 65명(43%)은 만일 본인들이 적은수의 자녀를 가졌었다면 그들의 經濟的 餘件은 보다 나아졌으리라 말하고 있었다.

5. 提 言

1) 各種 傳達媒體를 통한 家族計劃 관계 「메시지」의 再評價의 必要性

이미 指導要員의 「커뮤니케이션」활동을 통한 傳達內容및 유인물과 日刊新聞들의 關係記事 內容의 비교 분석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家族計劃의 槪念및그 解釋에 대한 見解上 相異點, 특히 指導要員과 日刊新聞들의 觀點의 차이 等을 시정하고 서로의 간격을 좁히며, 家族計劃全般的인 事業의 效果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全面的인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의 評價및 재편성이 要望된다.

2) 人力의 訓練및 開發

家族計劃要員뿐 아니라 家族計劃事業의 計劃담당자, 公報活動 담당관, 기타 일반 「매스·미디어」관계 要員들에게 家族計劃에 必要한 技術및 知識을 넣어 주어야 할뿐 아니라, 國家가 指向하고있는 目標의 達成을 위하여 必要한 制度的 혹은 價値體制의 變化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보다 집중적이고 광범한 재훈련, 세미나 등을 강화하여야할 것이다. 특히 指導要員의 現職 훈련을 통한 새로운 知識및 새로운 槪念, 새로운 목표에의 접근방법 모색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3) 家族計劃運動의 새로운 方向모색

이제까지 家庭婦人들에게 촛점을 두어온 家族計劃事業을 補強하기 위하여서는 현재의 活動이외에 家長 혹은 男性들을 相對로 하는 새로운 活動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는 方法면에서 男性들이 참여하여야 할 피임법들이 있어서 보다는, 家族計劃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절대적인 男便들의 권한이 행사되고 있음이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같다.

더욱이, 農夫들이 가능한한 자기들의 夫人이외에는 男性들과 家族計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는 경향이 있음에 비추어 女性 指導要員뿐이 아닌 男性要員의 확보 및 活用을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點을 감안 새로운 要員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現存하는 農事指導要員및 里班長, 혹은 各種 자원지도자들의 活用을 제언한다.

4) 「매스·미디어」의 最大限의 活用과 특히 農民들에게 가장 접근력이 있는 「라디오」의 집중적 활용의 필요성.

「매스·미디어」가 農民들의 態度를 近代化하고 새로운 革新을 보다 쉽게 받아들이도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매스·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理念및 計劃된 事業의 수행에 必要한 價値觀등을 넓게 계속적으로 普及傳播하고, 이에 對應하는 자세한 설득을 對人 접촉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를 통해 補完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특히, 라디오의 農家普及및 농민들의 접촉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點을 감안, 「라디오」를 통한 集中的 情報普及活動이 권장된다.

5) 指導要員들의 量的확보 및 현노동력의 最大限 활용책의 강구.

農民들 혹은 그 夫人들의 指導要員과의 접촉은 이들의 가족계획및 농사기술에 대한 知識뿐 아니라 實際行動의 變化에 있어서도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人員및 機動力의 부족으로 혹은 要員들의 士氣의 저하등을 이유로 많은 마을들이 제대로 접촉을 못 하고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要員들과의 접촉이 높은 個人이나 마을이 다른 마을락에 비해 知識및 行動의 變化에서 보다나은 점을 고려하여 이 들의 활약및 그 努力을 最大限으로 높이는 方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의를 要하는 것은 量의 증가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現 人員을 經濟的 또는 다른 동기 유발책을 통해 그 活動의 量과 質을 높일 것인가, 實踐, 및 實驗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6) 끝으로 家族計劃事業과 農村指導事業의 統合 내지는 실질적인 조정이나 협정의 제언이다. 農民들이 비슷한 매체 혹은 情報源을 통하여 家族計劃이나 농사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있고, 아울러 각종 정보활동에의 참여방식 역시 별다름없이 유사하였다. 더욱이, 지도요원들의 경험을 통하여 이들 두가지 사업이 서로 협조하고 같은 기관에 의하여 조정 될 경우, 농촌지도활동의 多樣化, 農民들의 겹치는 集合召集의 최소한 경감 및 指導要員 自身들의 부락및 부락민의 動態파악 등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事業의 計劃 및 그 수행에의 再考가 要望된다.

참 고 문 헌

BERLO, DAVID K. 1960. Process of communic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BETTINGHAS, ERWIN P. 1968. Persuasive communic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CASTILO, GELIA T. 1970. "Impact of agricultural innovation on patterns of rural life (Focus on the Philippines." Agricultural revolution in southeast asia: Consequences for development. Vol. II. New York: McGraw Hill Book Co., Inc.

CASTILO, GELIA T. 1970. "Some sociological considerations in promoting family planning program." Solidarity 5(3): 12—16.

CERNEA, M. GH. CHEPES, E. GHEORGHE, H. ENE and M. LARIONESCU. 1971. "Socio-ecnomic structures and diffusion of innovation in the Rumanian co-operative villige." Sociologia Ruralis: Jounal of the European Society for Rural Sociology 11(2): 140—158.

CHUNG, BOM MO, JAMES A. PALMORE, SANG JOO LEE and SUNG JIN LEE. 1972. Psychological perspectives: family planning in Korea. Seoul: Hollum Co., Publishers.

DUBE, S. C. 1967. "A note on communication in economic development." In D. Lerner and Wilbur Schramm, eds. Communication and change in the developing countries. Honolulu: East-West Center Press.

FELICIANO, GLORIA D. 1967. "Using traditional communications media in the development of Asia: A challenge to the Asian media practitioner."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Communications Media and National Develoment, Philippines.

FLIEGEF, FREDERICK C., PRODIPTO ROY. LALIT K. SEN, and JOSEPH E. KIVLIN 1968. Agricultural innovations in Indian villages. Hyderabad: National Institute of community Development.

KIM, YONG HAN. "A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family planning communic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Seoul: S/K Marketing Reas Research Company. (Mimeoggaphed).

KWON, E HYOCK, TAE RYONG KIM, UNG RING KO, and HYUNG JONG PARK. 1967. "A Study on urban population control: family planning and fertility with population in Seoul." College of Medicine and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HAE YONG, CHIN KYUN KIM. TAE HWAN KWON, and TONG WON LEE. 1966. Family planning status in a Korean middle town, Ichon Eup. Paper presented at the Pacific Science Congress Symposium, Tokyo, Japan.

LIONBERGER, HERBERT F. and H.C. CHANG. 1970. Farm information for modernizing agriculture: The Taiwan System. New York: Pareger Publishers.

MARSHALL, JOHN F. 1971. "Topics and networks in intravillage commmunication." In Steven Polgar. ed. Culture and population: A collection of current studies. Monograph 9. Carolina Population Center,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MERCADO, CESAR M. 1971. "Communication strategies and their impact on launching the 1967 'Green Revolution' in the Philippines." Philippine Journal of Communications Studies 1(1): 25—43.

MYRDAL, GUNNAR. 1968. Asian drama: An inquiry into the poverty of nations. Vol. I. New York: The Twentieth Century Fund.

PALMORE, JAMES A. 1968. "Awareness sources and stages in the adoption of specific contraceptives." Demography 5(2): 960—972.

ROGERS, EVERETT M. 1962. Diffusion of innov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ROGERS, EVERETT M. 1969. Modernization among peasants: The impactt of communication. N. Y.: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SCHRAMMI, WILBUR. 1963. "Communication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process." In Lucian W. Pye. ed. Communic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SCHRAMM, WILBUR. 1967. "Communication and change." In Daniel Lerner and Wilbur Schramm. eds. Communication and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Honolulu: East-West Center Press.

WATSON, WALTER and GEORGE WORTH. 1972. "Korea." Studies in Family Planning 3(7): 132—135.

■ 飜譯論文

人口問題와 社會經濟開發

——아시아 諸國家를 중심으로——

館　　稔 著
孔　世　權 譯
〈本 硏究院 硏究員〉

아시아地域의 人口現況

1) 유엔의 推計에 의하면 1962년 世界人口는 약 31億3千5百萬에 달하며, 그 중 약 56%에 해당하는 17億6千4百萬이 아시아人口였다(表 1參照).

아시아의 人口密度는 매 Km²당 64명으로 유럽의 매 Km²당 88명에 다음가는 높은 率을 나타내고 있다.

아시아國家는 대개가 農業國이므로 높은 人口密度는 土地에 비하여 과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낮은 生産性은 세계 어느 地域보다 뚜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ECAFE에서 계산한1) 1960년의 매 Km²당 可耕作人口數는 세계평균이 207명인데 비하여 아시아地域은 374명이나 되며 유럽은 279명, 南北「아메리카」가 121명, 「아프리카」가 109명, 蘇聯이 94명으로 아시아는 전 세계 대륙중에서 가장 높은 人口密度를 나타내고 있다.

「아시아」國家中에서 人口密度가 매 Km²당 500을 넘는 국가는 日本 1,535, 越南 1,262, 韓國 1,225, 台灣 560, 「인도네시아」 553이다.

2) 人口增加率은 세계적으로 1950년부터 1965년 사이에 급격한 上昇趨勢를

1) ECAFE Secretariat, The Demographic Situation and Prospective Population Trends in Asia and the Far East, paper presented to the Asian Population Conference, APC/wp/1, 23 Oct. 1963.

Table 1. World Population by Continents, 1930—1962

Continent and region	Population				Population density per Km² 1962
	1930	1940	1950	1962	
	Midyear estimates(in million)				
World total	2,015	2,249	2,509	3,135	23
Africa	157	176	207	269	9
Americas	244	277	329	430	10
Asia	1,072	1,212	1,384	1,764	64
South West	47	53	60	80	13
South Central	362	410	471	536	114
South East	128	155	174	230	51
East	535	594	679	868	74
Europe	356	381	395	434	88
Oceania	10	11	13	17	2
USSR	176	192	181	221	10
	Percentage distribution				Index number
World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Africa	7.7	7.8	8.3	8.6	39.1
Americas	12.1	12.3	13.1	13.7	43.5
Asia	53.2	53.9	55.2	56.3	278.3
South West	2.3	2.4	2.6	56.5	18.9
South Central	18.2	18.8	18.7		495.7
South East	6.4	6.9	6.9	7.3	221.7
East	26.6	26.4	27.1	27.7	321.7
Europe	17.7	16.9	19.9	15.7	321.7
Oceania	0.5	0.5	0.5	8.7	8.5
USSR	8.7	8.6	7.2	7.0	43.5

Source: United Nations, Demographic Yearbook, 1967, New York, 1964.

나타내고 있다(表 2參照). 同 期間中 가장 높은 年平均 人口增加率은 大洋州가 2.5%며 그 다음은 「아메리카」가 25%, 「아프리카」가 21%, 「아시아」地域은 2.0%를 나타내고 있다.

3) 「아시아」 地域에서 1960~1992년 사이에 年平均 人口增加率이 가장 높은 地域은 東南「아시아」가 2.7%, 西南 「아시아」가 2.6%며 가장 낮은 地域은 中西 및 中東 「아시아」로 2.3%다. 〈表 3〉에 呈示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가

Table 2. Annual Average Population Increase Rate by Continents, 1930—1962

Continent and region	1930-40	1940-50	1950-60	1960-62
World total	1.1%	1.1%	1.8%	2.1%
Africa	1.1	1.6	2.2	2.4
America	1.3	1.7	2.3	2.2
Asia	1.2	1.3	2.0	2.3
South West	1.2	1.2	2.4	2.6
South Central	1.3	1.4	1.7	2.3
South East	1.9	1.2	2.3	2.7
East	1.1	1.3	2.0	2.3
Europe	0.7	0.4	0.8	0.9
Oceania	1.0	1.7	2.4	2.2
USSR	0.9	0.6	0.8	1.7

Source: Table 1.

2.0% 이상 또는 3.0% 이상의 높은 人口增加率을 나타내고 있음은 주목할만한 점이라 하겠다.

4) 〈表 4〉에 의하면 높은 出生率은 높은 年平均 人口增加率을 나타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表 2〉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大洋州에서의 높은 年平均 人口增加率은 전체적으로 「아시아」지역과는 전혀 조건이 다른 점에서 비교가 되고 있다.

즉 大洋州의 人口自然增加率이 높은 원인은 극히 낮은 死亡率에 대해 별로

Table 3. Distribution of Countries on the Basis of Annual Average Population Increase Rate in ECAFE Region, 1950—1960

1.0-1.4%	1.5-1.9%	2.0-2.9%	3.0-3.9%	4.0% and over
Japan	Afghanistan	Ceylon	Cambodia	
	Brunei	Hong Kong	China: Taiwan	
	Burma	Indonesia	Laos	
	China: Mainland	Iran	Malysia	
	India	Pakistan	Philippines	
	Rep. of Korea	Viet-Nam	Thailand	
	Mongolia			
	Nepal			

Source: ECAFE, op. cit.

Table 4. Crude Vital Rates by Continent, 1958—1962

Continent and region	Birth rate	Death rate	Natural increase rate
World total	37%	17%	20%
Africa	46	23	23
America	33	11	22
Asia	43	20	23
South West	47	24	23
South Central	43	21	22
South East	49	23	26
East	42	19	23
Europe	19	10	9
Oceania	24	8	16
USSR	24	7	17

Source: UN., Demographic Yearbook, 1963.

높지않은 出生率에 기인되는 점이라 볼 수 있겠다. 이 높은 人口自然增加率은 人口移動에 따른 과잉인구의 유입이 附加要因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

5)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死亡率이 低下하는 傾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世界 第 2次大戰 이후부터라 보겠다. 〈表 5〉에서도 呈示된 바와 같이 死亡水準은 국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어 死亡率이 5~10%로

Table 5. Recent Estimated or Recorded Crude Death Rates in Some Asian Countries

Country	Year	Death rate
Brunei	1960	10.9%
Burma	1959	18.9
Cambodia	1959	19.7
Ceylon	1960	8.6
China: Mainlend	1953	21.0※
Taiwan	1960	6.9
Hong Kong	1960	6.4
India	1959-60	21.6※
Indonesia	1953-54	about 20
Iran	1956-59	about 20
Japan	1961	7.4
Rep. of Korea	1955-60	16.0※

Table 5. Recent Estimated or Recorded Crude Death Rates in Some Asian Countries

Country	Year	Death rate
Malysia		
Fed. of Malya	1960	9.5
North Borneo	1960	8.3
Sarawak	1960	8.8
Singapore	1960	6.3
Nepal	around 1960	36.6
Pakistan	1960	28.8
Philippines	1948-60	19.0※
Thailand	1960	13.0※

Source: ECAFE, op. cit. ※ denotes estimated scores.

저하되고 있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이와는 달리 아직도 20%를 넘는 높은 死亡率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6) 嬰兒死亡率은 死亡率을 결정하는 중요한 要因이 될 뿐만 아니라 生活水準의 한 指標로서도 表示될 수 있다.2)

Table 6. Recent Infant Mortality Rate in Some Asian Countries

Country	Year	Infant mortality rate per 1,000 birth
Brunei	1962	50.8
Burma	1952	195-300
Cambodia	1955	127.0
Ceylon	1560	56.8
China: Taiwan	1562	25.1
Fed. of Malya	1562	55.7
Hong Kong	1563	33.0
India	1551-61	145.0
Indonesia	1562	125.0
Japan	1563	26.0
Philippines	1562	67.7
Singapores	1562	31.0
Thailand	1561	50.1

Source: UN., Demographic Yearbook, 1963

2) United Nations, Report on International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Standards and Levels of Living, E/CN. 3/179, E/CN. 5/299, N.Y. 1954, p. 55.

Table 7. Expectation of Life at Birth in Some Asian Countries

Country	Period	Male	Female
Cambodia	1958-59	44.2(Years)	43.3
Ceylon	1945-47	46.8	44.7
	1948	54.9	53.3
	1950	56.4	54.8
	1954	60.3	59.4
China: Mainland	1950-55	about 40 (both sexes)	
Taiwan	1936-41	41.1	45.7
	1956-58	60.5	65.0
	1959-60	61.3	65.6
India	1941-50	32.5	31.7
	1951-56	37.8	37.5
	1956-61	41.7	42.1
Indonesia	1960	about 47.5 (both sexes)	
Japan	1947	50.1	54.0
	1949-50	56.2	59.6
	1955	63.6	67.8
Rep. of Korea.	1962	66.2	71.2
Malaysia	1955-60	52.5(both sexes)	
Fed. of Malaya	1956-58	55.8	58.2
Singapore	1960	about 60 (both sexes)	
Philippines	1951-55	47.5(both sexes)	
	1956-60	52.5(both sexes)	
Thailand	1947-48	48.7	51.9
	1960	57.2 (both sexes)	

Source: ECAFE, op. cit.

〈表 6〉에서 물示된 嬰兒死亡率은 국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 1,000명당 약 30을 전후한 낮은 율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는 적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그 높은 嬰兒死亡率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많은 국가에서 嬰兒死亡率은 減少의 趨勢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같은 減少趨勢가 현저한 경향을 나타내는 국가는 「보르네오」, 「실론」, 臺灣, 「말라야」聯邦, 日本 및 「싱가폴」과 같은 국가들이다.

7) 〈表 7〉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死亡率의 減少는 平均壽命을 延長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7〉에서 주목되고 있는 점은 女性에 있어

서 보다 男性의 平均壽命이 짧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반대로 「캄보디아」나 「실론」 및 印度에서는 1941~50년 사이에 男子의 平均壽命이 더 긴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男子와 女子사이의 차이는 統計學的인 有意性이 나타나고 있다.

8)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死亡率低下가 公衆保健事業에 따른 새로운 藥品을 광범하게 보급함으로써 傳染病發生을 억제시킨데 基因된다고 보겠으나 아직도 일부 國家에서는 불충분한 傳染病管理와 국민의 營養不良으로 높은 死亡率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한편 최근 대부분의 아시아國家에서는 보편적으로 死亡率이 低下되고 있으나 이와같은 死亡率低下는 國民의 生活水準向上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公衆保健事業도 일반 大衆에게 광범

Table 8. Recent Crude Birth Rate and Gross Reproduction Rate in Some Asian Countries

Country	Date	Crude birth rate	Gross reproduction rate
Brunei	1960	48.9%	—
Burma	1938-54	43※	2.6※
Cambodia	1948-54	51※	3.3※
Ceylon	1960	36.6	2.5
China: Taiwan	1961	38.3	2.7
Hong Kong	1961	34.2	2.4
India	1958-59	40.4※	2.7※
Indonesia	1951-56	52※	2.8※
Iran	1946-51	48※	3.1
Japan	1960	17.2	1.0
Rep. of Korea	1950-55	45※	3.1※
Malaysia			
Fed. of Malaya	1960	40.9	2.9
North Borneo	1950-55	53※	3.4※
Sarawak	1950-55	54※	3.4※
Singapore	1960	37.8	2.8
Nepal	1944-49	45※	2.7※
Pakistan	1946-61	48※	3.3※
Philippines	1950-55	50※	3.5※
Thailand	1950-55	46※	3.2※

Source: ECAFE, op. cit. ※ denotes more or less rough estimates

하게 普及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9) 그러나 대부분의 아시아국가들은 아직도 높은 粗出生率을 유지하고 있으며 〈表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日本을 제외하고는 粗出生率이 가장 낮은 地域은 「홍콩」이 34%고 그외 일부 국가에서는 50% 이상의 높은 粗出生率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性別 年齡別 人口構造에 영향을 받지 않는 出産力을 비교하기 위하여는 總再生産率을 使用하는 것이 간편하다고 보겠다.

이 總再生産率은 日本의 1을 제외하고는 홍콩이 2.4로 가장 낮은 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3 또는 그 이상을 나타내는 국가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이와같이 아시아 제 국가에서 死亡率은 低下되고 있으나 出生率은 별로 低下되지 않고 있어 人口學的間隔(Demographic gap)은 보다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0) 현재까지 世界的으로 開發途上國家들의 出生率의 低下 傾向은 뚜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 않으며 이와같은 점은 아시아 일부 국가들 중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주목이 되고 있다.

그 一例로 日本은 1950년 이후 類例없이 빠른 속도로 出生率이 저하되어 최근에 와서는 가장 낮은 出生率을 가진 先進國隊列에 끼게 되었다. 이 중에서도 日本의 「유구」(Ryuku)섬은 타지역 보다 出生率低上가 뚜렷한 지역이다.

出産率 低下는 1956년 이후 臺灣에도 비교적 뚜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도 37.4%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싱가폴」에 있어서는 1957년 이후 계속해서 비슷한 出生率을 유지해 왔으며 「말라야」聯邦도 1957년 이후 현재의 출생율 약 40.3%로 계속 비슷한 양상을 유지해 왔으며 홍콩은 1961년부터 出生率이 다소 감소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臺灣의 경우는 주목할만 한 점이라 하겠다.

11) 終戰直後 日本의 生活水準은 戰爭前보다 1/2로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로 30세 또는 그 이상의 어머니들 사이에 가족수를 制限하려는 강한 의욕을 갖게 된데 기인되는 점이라 하였다. 그러나 戰爭前 日本에서는 家族計劃普及이 미미한 단계에 있었으며 그 實踐度도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어 많은 부

인들은 人工流産이 刑法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人工流産을 不法的으로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태를 우려한 나머지 1948년 日本政府는 "優生保護法"을 기초로 한 人工流産法이 제정되었다.

이 法律은 (1) 優生政策의 하나로서 不姙을 許容하며 (2) 전국적으로 家族計劃을 普及하기 위한 기본항목으로 설정하며 (3) 非合法的인 人工姙娠中絶의 위험을 防止하기 위하여 규정된 조건하에서 법으로 지정된 産婦人科醫師에 한하여 人工姙娠中絶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와같이 日本에서는 家族計劃을 정책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단지 人口政策으로서 뿐만 아니라 母子保健을 위한 목적과 家庭福祉의 향상을 위한 계획하에 國家가 政策的으로 採擇하고 있다.

12) 이 法律이 制定公布된 후 人工姙娠中絶件數는 急激히 上昇되어 1955년에 들어 最高의 頂點을 나타내었으며 그후부터 점차 減少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表 9 參照).

「마이니찌」 신문3)이 실시한 大衆에 대한 意見調査에 의하면 1952년이래 人工姙娠中絶의 찬성율은 계속 減少되고 있다는 것으로 發表하였다.

Table 9. Number of Cases of Induced Abortion Reported in Japan.

Year	Number of cases of induced aortion	Year	Number of cases of induced abortion
1950	489,000	1958	1,128,000
1951	638	1959	1,099
1952	806	1960	1,093
1953	1,068	1961	1,035
1954	1,143	1962	986
1955	1,170	1963	955
1956	1,159	1964	879
1957	1,122		

3) Population Problems Research Council of the Mainichi Newspapers has been conducting regular public opinion survey on family planning, once in every three years since 1950. Sample size is 3,000-4,000 couples or wives, 1/4,000 of the eligible ones.

한편 1965년에는 人工姙娠中絶을 받은 부인들에 대하여 心理的反應을 調査한 결과에 의하면 對象者中「胎兒에 대한 念慮」가 35%,「罪惡感」이 28%,「手術後 不姙症에 대한 憂慮」가 18%,「괜찮다」는 意見이 18%로 나타났다. 1955년 이후 人工姙娠中絶件數가 점차 減少되고 있는 경향은 人工姙娠에 대한 排除意識과 家族計劃普及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13) 이와같은 調査結果에 의하면 〈表 10〉에서 呈示된 바와 같이 調査當時인 1950년의 日本의 旣婚婦人中 當時避姙實踐率은 19.5%에 불과했으며 避姙經驗率을 포함하면 29.1%였다. 그러나 年次的으로 家族計劃은 광범하게 보급됨에 따라 1965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避姙經驗率은 51.9% 또는 67.3%까지 그 율이 상승되었다.

14) 〈表 10〉에서 呈示된 바와 같이 6개 大都市와 其他市 및 農村地域간에 場族計劃普及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어 1963년과 1965년에 실시한 양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6개 大都市地域에서 보다 農村地域에서 높은 普及率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1950년에 避姙에 찬성하는 율은 60.7%였으며 1961년에는 약 70.4%로 증가되었다.

1965년 조사에 의하면 家族計劃贊成率은 87.5%로 이는 避姙이나 家族計劃普及率이 大衆에 의하여 增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大衆에 대한 意見調査는 다른 調査와 같이 家族計劃은 大衆들에게 傳統的인 家族制度의 近代化와 더불어 小家族單位의 生活을 보다 合理的으로 향상시키며, 婦女들의 과중한 가정일을 덜어주며, 적당한 수의 자녀에게 충분한 敎育의 기회를 주며 더 나아가 文化的인 생활을 享有할 수 있는 명백한 인식을 갖게 됨에 따라서 가

Table 10. Percentage Distribution of Couples Practising Contraception in Japan

Year	Surveyer	Whole country	6 big cities	Other cities	Rural areas
1950	The Mainichi	19.5%	23.7%	23.6%	17.4%
1954	Ministry of Health & Welfare	33.2	37.2	—	30.4
1955	The Mainichi	33.9	37.7	34.0	31.9
1963	The Mainichi	44.0	43.0	42.6	46.0
1965	The Mainichi	51.9	51.5	—	52.3

족계획 채택율은 보다 급격히 증가되게 되었다.

한편 1950—1955년경 日本에서 避姙을 실시하기 시작한 주요 원인은 經濟的인 苦衷을 극복하는 데 있었으며 1965년 調査結果는 어머니들중 가족계획의 실천목적을 "子女數를 制限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가 41% "母性의 健康을 유지하기 위하여"가 29%, "적은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유"가 16%, "부인 자신의 생활을 즐기기 위하여"가 8%였다. 이중에서 가장 뚜렷한 점은 어머니들의 주요 관심사인 자녀들의 교육문제라 보겠다.4)

15)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높은 出生率이 유지되고 있으나 死亡率은 低下되고 있기 때문에 15歲 以下의 幼年人口의 比率은 매우 높다. 그러나 經濟的으로 開發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25—30세의 年齡群이 25~30%였으나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도 40% 이상이며 심지어는 45% 이상이 되는 국가도 있다. 더 나아가 生產年齡 人口에 대한 扶養比率은 〈表 11〉에서 呈示된 바와 같이 經濟的으로 發達된 國家의 扶養人口比는 약 70%에 달하고 있으나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80%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100%를 넘는 국가들도 있다. 특히 15세 이하의 인구에 대한 비율은 두개의 國家群으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발달된 국가의 扶養費는 일반적으로 약 50%나 아시아 국가들은 70%를 초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90% 이상이 되는 국가도 있다. 전체 인구에 대한 60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先進國은 20~30%의 높은 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6~10%에 불과하다.

이와같이 勞動人口에 의한 人口學的 扶養人口의 重壓은 아시아 국가에 있어서 보다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5세 이하의 幼年人口의 負擔은 한층 더 크다.

16) 아시아지역에 있어서 開發途上에 있는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人口의 都市化정도가 낮은 것으로 豫想할 수 있다. 「홍콩」과 「싱가폴」을 제외하면 日本의 都市化 경향은 타국에 비하여 상당히 높으며 臺灣과 韓國 및 「타이랜드」도 비교적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으며 國內移動에 대한 統計資料는 制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에 있어서 주요 都市의 人口增加率은

4) Minoru Tachi, Implication of Population Trends for Planning Social Welfare Services, Prepared for Asian Population Conference, APC/wp/6, 1963.

Table 11. Ratio of Dependent Population in Some Asian Countries, around 1960.

Country	Year	Ratio of dependent population	
		under 15 and 60 and over	under 15
Brunei	1960	109.4%	97.6%
Burma	1960	86.9	77.2
Cambodia	1959	94.8	87.0
Ceylon	1955	79.1	72.8
China: Taiwan	1960	97.1	88.9
Hong Kong	1961	84.0	75.1
India	1961	82.1	71.9
Indonesia	1961	86.3	78.4
Iran	1956	91.5	80.8
Japan	1960	63.8	49.2
Rep. of Korea	1960	91.0	79.2
Malaysia			
Fed. of Malaya	1957	94.0	85.0
North Borneo	1960	90.2	82.8
Sarawak	1960	98.7	88.4
Singapore	1960	87.4	80.2
Philippines	1960	100.0	91.4
Thailand	1960	91.6	82.7

Source: ECAFE, op. cit.

사실상 統計數値보다 훨씬 높게나타나고있다. 한편 農村地域에 있어서 人口의 壓力은 한층 더 強力하게 영향을 주고 있어 國內移動은 突進型態(Push type)를 造成하고 있다.

17) ECAFE地域內의 각 국들에 대한 장래 人口推計에 의하면 현재 높은 出生率을 유지하고 있는 ECAFE 地域 國家의 人口增加率은 적어도 앞으로도 10년간은 현재 수준이 지속될 것이며 그후까지도 出生率의 저하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수십년 동안은 상당히 높은 인구증가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出生率이 저하하기 시작하면 幼年人口의 증가율은 감소하게 되며 따라서 成年人口의 增加率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扶養比도 감소되게 될 것이다. 한편 經濟的으로 活動力이 있는 男性人口의 推計는 1980년까지는 이들의 增加가 한층 더 加速化 될 것으로 전망된다.**5)**

5) ECAFE, op. cit.

18) ECAFE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는 1인당 國民所得에 의한 生活水準은 매우 낮다(表 12 參照).

UN의 10個年開發을 위한 年平均 農業生產 成長率이 5% 이하인 국가는 「캄보디아」「실론」「마라야」聯邦, 印度, 「인도네시아」, 韓國 및 「파키스탄」 등이 이에 해당되며, 5% 이상의 農業生產 성장율을 나타내는 국가는 臺灣, 日本, 「필리핀」「타일랜드」 뿐이다.

그러나 「버마」의 성장율은 두드러 진 것같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過度推計된 것으로 예상된다.6)

한편 많은 국가들은 1人當 國民所得의 成長率은 總生產과의 비교에서 보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자연히 경제성장율에 대한 비교적 높은 人口成長率에 영향되는 점으로 볼 수 있다(表 13 參照).

19) 〈表 14〉에서 呈示된 내용은 經濟成長率을 人口成長率로 나눈 값(著者는 人口學的 彈性係數라 칭함)을 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數値는 經濟開發을 위하여 특히 "經濟的 跳躍"(Ecnomic take-off)을 위하여 취해질 수 있는 彈性係數의 最少要件은 理論的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나 적어도 일본에 있어서의 경험을 비추어 볼때 1880—90년은 經濟的 跳躍을 위한 준비단계며, 1890—

Table 12. Distribution of Countries on the Basis of Per Capita National Income in the ECAFE Region, 1960.

Per capita national income (in US dollars)	Countries
0-50	Burma, Laos, Mongolia, Nepal
51-100	Afghanistan, Cambodia, India, Indonesia, Iran, Pakistan, Thailand, Rep. of Viet-Nam
101-150	Ceylon, China (Taiwan), Hong Kong, Rep. of Korea, Philippines
151-200	Sarawak, Singapore
201 and above	Brunei, Fed. of Malaya, Japan

Source: ECAFE, Economic and Demographic Situation in Asia and the Far East, E/ICEF/472.

6) ECAFE, op. cit., E/ICEF/472, p. 5.

Table 13. Annual Average Growth Rate of Real National Product in Some Asian Countries, 1950—1960.

Country	Growth rate per annum	
	Aggregate product	Per capita product
Burma	6.1%	5.1%
Cambodia	4.0	1.3
Ceylon	4.1	1.4
China: Taiwan	7.9	4.2
Fed. of Malaya	3.9	0.7
India	3.6	1.6
Indonesia	3.3	1.1
Japan	9.3	8.1
Rep. of Korea	4.6	2.5
Pakistan	2.4	0.5
Philippines	5.8	2.3
Thailand	5.6	2.5

Source: ECAFE, op. cit., E/ICEF/472.

1900년은 最終段階로 經濟跳躍의 初創期인 經濟成長率은 4~5%에 대하여 人口成長率은 비교적 낮은 0.6~0.8%로 彈性係數는 약 7이라는 數値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表 15 參照).7)

巨視的인 眼目에서 관찰할 때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考慮할 수 있는 人口成長率은 經濟成長率에 비추어 매우 높으며 人口成長率은 저축율을 절감하고 있으며, 資本形成을 침체시키며 經濟發展에 장해를 주거나 오히려 해치는 결과까지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다.

20)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人口增加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食糧問題라 하겠다. 食糧供給은 현재도 불충분한 상태에 있으며 營養問題는 보다 광범하게 확대되고 있다.

한편 높은 人口成長率로 최근 1인당 食糧生産은 현재도 2차대전의 같은 수8)

7) Minoru Tachi, Forecasting Manpower Resources: Population and Labor Force Some experiences in Japan, Institute of Population Problems, Japan, English Series No. 55, 1962.

8) ECAFE, op. cit., E/ICEF/472. United Nations, Report on the World Social Situation, E/CN. 5/346/Rev. 1. ST/SOA/42, New York, 1961, pp. 4-6.

Table 14. Demographic Elasticity Coefficient in Some Asian countries, 1950—1960

Country	Coefficient
Burma	5.5
Cambodia	2.0
Ceylon	1.6
China: Taiwan	2.3
Federation of Malaya	1.3
India	1.9
Indonesia	1.6
Japan	7.8
Rep. of Korea	2.6
Pakistan	1.1
Philippines	1.8
Thailand	1.6

Table 15. Demographic Elasticity Coefficient in Japan, 1880—1960

Period	Real national income growth rate (1)	Demographic growth rate (2)	(1)/(2)
1880-1890	4.3%	0.6%	7.2
1890-1900	5.3	0.8	6.6
1900-1910	2.9	1.1	2.6
1910-1920	4.0	1.2	3.3
1920-1925	5.1	1.3	3.9
1925-1930	5.9	1.5	3.9
1930-1935	3.8	1.4	2.7
1935-1940	3.9	0.8	4.9
1950-1955	8.7	1.4	6.2
1955-1960	9.4	0.9	10.4

Source: Minoru Tachi, op. cit.

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시아 人口會議에서 建議한 내용중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앞으로 20년동안 예상되는 대규모의 人口增加에 대비하기 위하여 營養水準의 향상은 시급히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農產物의 增產과 아울러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1) 아시아 국가들의 死亡率은 減少되고 있으나 아직도 滿足할 만한 것은 못

되며 일반적으로 保健水準도 낮다. 한편 公衆保健施設은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 있어 일반대중의 保健水準 향상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되어있다.

나아가 人口問題에 있어서도 다음 두가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한가지는 死亡率의 저하는 환영할 만한 요인의 하나이지만 이러한 死亡率의 감소는 많은 국가가 出生率이 거의 抑制되지 않고 높은 水準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人口增加는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다른 하나는 人口推勢의 특징의 하나로 年少人口의 급격한 증가는 母子保健의 필요성이 긴급히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아시아 人口會議에서 建議된 내용중에서도 "많은 국가는 가정의 福祉와 健康을 증진시킴으로써 出產力을 알맞게 調節하기 위한 施策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試寫되고 있다"는 점이며, 健康에 관하여는 단지 醫療活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며 "社會·經濟的인 변천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은 매우 중요한 점이다고 지적하였다.

22) 아시아 국가들의 人口推勢는 社會福祉奉仕, 주로 母子의 福祉事業과 家庭福祉事業의 展開가 要求되고 있으며, 특히 주목되고 있는 점은 家庭福祉事業으로 이는 結婚이나 또는 子女養育에 대한 態度와 行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23) 일반적으로 말하기에는 아시아 국가들은 文盲率이나 教育水準 및 就學率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부터 앞으로는 學齡人口는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經濟開發이나 人口의 資質向上을 위하여는 教育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겠다.

日本에 있어서는 1872년부터 시작한 義務教育制度와 그 후 定規 學校教育이나 職業教育의 發達이 日本의 經濟發展에 있어서 어떻게 寄與해 왔는가에 대한 研究는 계속해 왔다.

한편 人口의 樣態는 教育의 필요성에 대하여 영향을 나타내며 人口推勢에 따른 教育의 發達効果는 역시 重要하다.

이와 비슷한 많은 종류의 研究가 각국에서 행하여지고 있지만 특히 日本에서는 많은 調査結果와 같이 既婚夫婦의 教育程度와 家族計劃實踐이나 家庭福祉와는 밀접한 相關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24) 현재 아시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潛在失業者와 完全失業者가 많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국가들은 앞으로 勞動人口가 急激히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 人口에 대하여 적합한 就業의 機會를 주는 것은 매우 重要한 점의 하나라 하겠다. 經濟開發을 위하여는 이와같은 人的資源의 活用은 再考되어야 할 문제라 하겠다.

아시아 人口會議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절대적으로 숙련된 勞動力이 不足한 입장에 있음을 비추어 볼때 訓練事業을 강화시키기 위한 계획과 勞動生產性이나 雇用을 증진시키며 勞動의 集約的인 方法을 강구하며 農村事業의 過剩勞動力을 이용하기 위한 계획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日本에서도 한때는 勞動集約的 中小企業이 激增하는 剩餘勞動力을 흡수시킴으로써 사태 수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경험이 있다.

25) 이상의 아시아 人口會議에서 토의된 내용과 日本의 일부 경험을 고려하여 현재 아시아의 人口現狀이 國家發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檢討하고저 한다.

이러한 점에서 人口會議에서 제시된 몇가지 결론을 引用하면 人口會議는 人口問題와 社會·經濟發達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또한 社會·經濟發展의 촉진은 높은 人口成長率에 의하여 나타나는 問題點들을 除去시키는데 중요한 意味를 갖는다9)는 점에 관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점에 채택 동의하였다.

즉 "이들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급격한 人口成長은 社會·經濟發展을 저해하고 있으며 許容된 期間內에 만족할 만한 生活水準에까지 도달시키려는 성공적인 노력을 위협하고 있다."

대부분의 ECAFE地域 國家에서 볼 수 있는 높은 出生率로 인한 人口의 높은 幼年層의 扶養比率은 역시 社會·經濟發展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教育의 發展을 방해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한편 都市의 人口集中化 問題는 보다 많은 難點을 야기시키게 될 것이며 이러한 점은 적어도 農村地域에서의 급격한 人口增加로 나타나게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單位 土地面積에 대한 人口의 壓力을 加重시키게 된다.

9) Recommendations of the Asian Population Conference (Draft).

人口會議의 全般的인 討議過程에서 人口增加率을 조정하고 동시에 家庭福祉增進을 목적으로 하는 人口政策으로서의 家族計劃은 그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人口會議는 또한 ECAFE地域 국가들은 그들 국가의 社會·經濟發展을 위한 종합적인 政策과 計劃을 樹立·推進함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人口政策을 채택하도록 권고하였다.

26) 人口會議의 議事錄에 의하면 "대부분의 ECAFE地域의 국가들은 家族計劃에서 家族數의 制限에 대한 文化的인 영향은 없으며 宗教的인 障害가 있다. 고 밝혔으며 家族數를 制限하기 위한 方法에 대한 知識은 家族의 크기에 따른 「모든 價値體系」10)는 相反되는 樣相을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人口會議의 建議案중에는 印度, 「파키스탄」 및 韓國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家族計劃事業을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ECAFE지역 국가중 일부 국가는 家族計劃事業을 위하여 民間團體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家族計劃事業이 國家의 社會·經濟開發을 비롯하여 母性의 保健 및 家庭의 福祉를 위하여는 이들 국가의 높은 出生率과 관련되는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있다9)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家族計劃普及을 위한 有意性을 가진 要因이라 할 수 있다.

27) 한편 家族計劃普及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는 각국의 특수성이나 국민성의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겠으며, 出産에 대한 態度나 行態는 복잡한 社會·經濟 및 文化的 價値體系에 따라서 규정되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家族計劃事業普及의 실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이러한 요소들은 家族計劃普及에 장해가 되는 요소들로 생각될 수 있다.

著者가 생각하는 가족계획보급에 장애점은 다음과 같다.

(1) 전반적으로 農業의 未發達로 經濟發展의 지연

(2) 낮은 都市化 현상

(3) 社會制度

(A) 結合이나 擴大家族 또는 家長支配의 家族制度

(B) 社會階層에 있어서의 能力主義보다 身分制度의 존중 등등

10) Asian Population Conference, Press Release, 20 December 1962.

(4) 價値觀

(A) 傳統主義

(B) 적극적 행동에 대한 動機의 결여

(C) 宿命感

(D) 目的遂行에 대한 合理性 결여

(E) 性問題에 대한 傳統的인 態度

(F) 都市生活樣式의 결여 등등

(5) 教育의 不備 및 文盲

(6) 宗教的인 障害

(7) 政府에 대한 無意識

(8) 일반대중의 無意識

(9) 家族計劃에 대한 知識普及의 不充分과 효과적인 弘報組織의 결여

(10) 家族計劃과 性問題에 대한 夫婦間의 의사소통 결여

(11) 효과적인 교통수단 결여

(12) 훈련된 助産員이나 看護員의 부족

(13) 有資格 指導者의 부족

(14) 避姙藥劑 器具使用의 곤란

(15) 알맞는 住居樣式의 결여(쑤라이버시나 水道 및 제시설 부족 등등)기타

28) 이와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家族計劃普及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 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 사회 및 문화제도의 제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家族計劃事業의 보급은 社會開發事業의 일환으로 연결되어야하며, 社會改革의 촉진요인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9) 日本의 경험을 비추어 몇가지 내용을 첨가하면 家族計劃의 보급은 社會開發計劃 특히 公衆保健事業이나 社會福祉事業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정부가 계획한 여러가지 정책은 가족계획보급을 각기 다른 가정에 대하여 일상생활 속에 침투시키기 위해 民間團體의 활동에 의하여 지원받지 않고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